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월 18일(음력 12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561 호

대구지역 불자 교장 교감들

아름다운 서원

'불교교육지도자모임' 결성 … 인성교육 뒷받침

3월초 창립법회, 파라미타 활성화 큰 힘 기대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불자 교장 교감들이 가칭 '불교교육지도자모임'을 결성한다. 김용태 조계종립 능인중학교 교장 등 대구지역 불자 교장 16명은 1월 6일 모임을 갖고 모임 결성을 결의했다. 이 모임에 참여할 뜻을 확인한 지역 불자 교장 교감은 40명이며 시교육청 간부 7명도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자교장들은 이 모임을 통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지식 교육의 전형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전개할 방침이다. 모임의 구성원이 교육현장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란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 나간다는 것이 모임의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교장들의 계획이다.

이 모임의 초대회장으로 내정된 능인중학교 김용태 교장은 "종립학교 교장으로서 청소년 포교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해 전부터 교장 교감 모임을 준비해 왔다"며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틀을 제시하는 보다 장기적인 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3월 초순경에 창립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모임 결성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회원을 늘려 나가면서 타 지역의 모임 결성도 도울 방침이다. 매년 두 차례 이상 성지순례 등을 통해 모임의 결속과 활성화를 꾀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구지역의 불자 교장 교감들이 공식 모임을 결성하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지회 구성이 전혀 안된 상황이 파라미타 대구지회는 이 모임의 향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파라미타 대구지회장 지성 스님(동화사 주지)은 "모임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가시화

공단, 7월부터 4개 공원 폐지 의견 밝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불교계의 요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부터 일부 국립공원의 입장료폐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월 10일 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7월부터 태안해안, 다도해, 한려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내용이 조계종으로 정식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료 관련 정책이 사실상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국립공원 입장료문제와 맞물려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1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지관 스님을 예방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입장료를 받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도 12월 16일 지관 스님을 방문, "공단도 입장료 폐지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해당 사찰들과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종단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김순태 할아버지
本寺 국장회의 허와 실 4면
군병원 포교환경 8면



파라미타 지도자 연수 9면
신행다이어리 작성법 19면
중국 차시장 이용법 26면
불화속의 명장면 28면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설립 승인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설립을 승인했다. 부산지원 원장에는 이영숙 코모도 호텔 대표(前 전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를 선임했다.

부산지원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이숙자 한국유니세프 부산지회장, 선양복지원 김수현 이사장, 박태규 사회복지법인 홍익 대표이사 등 33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공정수사로 '진상규명'을

'황교수 사태' 견해 양극화 우려 높아

종단협 '진상규명위' 설치 움직임

서울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희)가 황우석 교수팀의 2004 · 2005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원천기술은 없다"고 최종결론을 내렸지만 '황우석 지키기'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불교계에도 황 교수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기술까지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어, 황 교수 지지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에서는 교구본사주지연합회 명의의 성명서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검찰 측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서울대조사발표는 기대보다 절망을 안겨줬지만 그의 과학적 능력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며 "마녀사냥식의 조사보다는 연구팀들이 좀더 과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고종도 11일 종무회의에서 황우석 교수를 감싸 안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교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지관 · 이하 종단협)도 16일로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황우석 교수 사태를 다룬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협 차원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이처럼 황 교수를 여전히 지지하는 것은 서울대조사위 구성 및 조사결과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위에 줄기세포전문가가 없다는 점, 황 교수팀의 기술 보유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 한 점 등으로 미루어 '황 교수 죽이기'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황 교수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논문 데이터 조작은 시인하면서도,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갖고 있음을 강조함에 따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황 교수가 불자라는 데서 비롯된 불교계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황 교수 지지여론 형성에 한몫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황우석 박사 지키기 재가불가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100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황 교수의 연구재개 및 원천 기술 재현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반 언론에 의해 불교계 공식입장인 양 확대 해석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또 황 교수가 동국대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교계 언론에 알림으로써 황 교수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동국대 이사 영담 스님은 "특정인을 위해 수의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움직임들과 관련 불교계 내부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전 실상사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 등 중진 스님 9인은 10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가 황 교수를 질타하는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으로 양분되고, 종교 간 대립 양상으로까지 비쳐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면에서 계속

'현대불교' 해외통신원 모집

현대불교가 2006년 지면개편에 따라 국제면을 신설하고 세계 곳곳의 불교소식을 전할 해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원은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국가의 불교 소식을 전하게 되며, 기획 취재 시 원고료 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 대한 추천도 좋습니다. 특히 불교국가에서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격 : 불교신도라면 누구나 가능(출가자 포함)
◇지 역 :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연락처 : 전화(82-2-2004-8240)
팩스(82-2-737-0698)
◇이메일 : mwhan22@hanmail.net
ivanovich29@hanmail.net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 일시: 2006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법당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현불 현대불교신문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인도불교성지순례 (룸비니,니르바나,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계로2월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20만원 동참금205만원

제1일 델리도착
제2일 델리, 럭나우,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헤트)
제3일 룸비니 | 마야데비 사원 | 구룡못 | 아쇼카 석주 순례.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흙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빔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크 수토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아소산,벳부,지옥온천)
4박5일 2월16일-20일 동참금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선내식),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입,가이드및기사팀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향발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궁 :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제3일 사루마와시 원숭이쇼 | 아소활화산 | 쿠사센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옥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키항
제5일 KTX 84 | 서울역


룸비니
구마모토 성
지옥온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

승랍 기산 언제부터?

조계종 승려법개정청원위 … "사미(니)계부터로 고쳐야"

94년 '개혁' 이후 비구(니)계부터 기산, 고령화 원인 지적

스님의 '나이'인 승랍의 기산은 예비승에 해당하는 사미(니)계 수계 년도부터일까, 정식스님이 되는 '비구(니)계' 수계년도부터 일까?

조계종 승려법개정 청원추진위원회가 승려법의 '승랍기산'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석사 도륜, 통도사 선원 범우, 동화사 강사 우경, 해인지 편집장 종현스님 등 추진위원회 준비위원들은 승려법 '제5조(승랍기산) 승려의 승랍은 비구 ·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조항을 '승랍은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 기산하되 대중좌좌는 비구 · 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로 개정하기 위해 2월 7일까지 서명운동에 돌입, 관련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bud95)를 개설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추진위원회 준비위원 도륜 스님은 "현 승려법에 따라 95년 이후 수계자는 4년간 예비승의 신분으로 시작해 3급 승가고시를 마치기까지 약 15년이 걸린다"며 "이럴 경우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인 최근 출가자는 40대 후반~50대가 돼야 스님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 "현 승려법은 종단의 인재활용에 손실이 큰 만큼 2월 중순까지 서명을 받아 3월 임시중앙종회에 청원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94년 종단개혁이후 승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선교육 후득도'를 원칙으로 승려법을 강화해 했다.

이에 따라 94년 이전 출가자는 승납을 득도(사미(니)계 수계) 시점부터 1년을 기산하고, 95년 이후 출가자는 구족계 수계 이후를 승랍 1년을 기산해 왔다. 이에 따라 95~98년 사이는 승랍을 가진 스님이 없는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 총무분과 간사 효림 스님은 "승단의 고령화는 젊은 신도들을 상대해야 할 포교현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종법도 불필요한 규제 보다는 열린 자세로 승단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혀 청원운동에 긍정적 반응을 표시했다.

종회의원外 스님들의 법개정 청원은 처음

종회의원이 아닌 일반 스님들의 종법개정 청원운동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젊은 스님들의 청원운동은 종단의 의사구조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인터넷과 교구본사, 전국 선방에서 동시에 1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그동안 스님의 종법개정요구는 종단의 비상시국에서 승려대회 등의 방법으로 분출돼 왔다. 이번 같은 승가내부에서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청원운동은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1면에서 이어짐

중진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황 교수가 불교인이라 해서 일방적인 옹호를 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는 정부에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모든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간 대중학술지인 <불교평론>의 주간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 · 불교학)는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 권두언을 통해 "최근 불교계의 지지 입장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불자라는 이유로 황우석 교수 개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라며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연구 윤리와 정직성을 무시한 연구자를 같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비호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종교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황 교수를 지지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공적인 기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난 뒤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남동우 · 박익순 ·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1월1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불기 2550년 신년 하례식.

"화합 · 안정 그리고 보살행을…"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신년하례식서 강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새해를 맞아 스님들에게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신도들에게는 보살행의 실천으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교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은 1월 1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불기 2550년 병술년 종정 법전 스님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전 스님은 "전법교화를 위한 제반불사가 원만히 봉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승단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원로대덕스님과 종단지도자스님들은 무엇보다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도회 대표자들을 향해서도 "불교의 근본은 자비심"이라고 전제하고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데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의 통알문 독송에 따라 불전 삼배로 시작해 종정스님에 삼배, 원로 대덕스님에 삼배, 신도대표의 대중스님에 대한 삼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예하께서 법체를 청정히 하시고 수시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종단의 불사에 원로의원스님의 끊임없는 격려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보성 지혜 이두 지종 초우 동춘 원명 스님,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등이 참석했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타종단 군승진출 반대 안 해"

신년하례회서 입장 밝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타종단의 군승진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불기 2550년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신년하례에서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이 타종단의 군승진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에서 본사주지스님들은 "타 종단에서의 군승 진출문제는 적극 환영하나 조계종과 같이 법제화를 통해 여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타종단과 진행해 온 군승진출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자주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종단의 문제를 논의하고 교구운영상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이날 행사의 성격을 밝혔다.

이어 교육원장 청화 스님도 "총무원장 스님의 재임기간 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종책에 적극 호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각 교구 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사, 불국사, 직지사, 동화사, 고운사 등 17곳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포교사 자격고시 2월19일

동국대 등 전국 7곳서, LA는 18일 실시

조계종 제11회 포교사 자격고시가 2월 19일 오전 9시(국내), 18일 오후 4시(LA) 두 차례 실시된다.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은 동국대, 대전 · 충청지역은 보문고,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은 금정중, 대구 · 경북지역은 능인고, 광주 · 전남지역은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전북지역은 전북불교회관, 강원지역은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미주지역은 LA 관음사에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조계종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신도5계(보살계) 수지 및 신도등록을 필한 사람 중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동국대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 학점(20학점)을 취득한 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불교관련학과 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자 △중앙종무기관장, 교구본사 주지, 포교원 등록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포교원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선발돼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응시원서 및 배포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이나 포교원에서 한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등을 첨부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신도기본교육과정 교과목 및 불교일반 △신도전문교육과정 교과목(불교의 이해와 신행, 불교사의 이해, 불교문화) 등. (02)2011-1894 남동우 기자

학교상징 조형물도안 공모

중앙승가대 2월28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가 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도안을 공모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2월 28일까지 도안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조감도 형태로 제작해 대학 총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또 4절 용지 기준에 각 도면을 별도제작(4매)하고, 첫 장에 도안작의 의미와 상징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상징동물인 사자의 형상을 응용해 중앙승가대학교 교훈, 설립이념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물 크기는 높이 5m 이내. 당선작 1편에 상금 1000만원과 가작 2편에 상금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3월 8일 홈페이지(www.sangha.ac.kr)에 발표. (031)980-7777 남동우 기자

사미니강원 입방고사

동학사 등 19일, 삼선강원 25일

동학사(강주 일초) 운문사(강주 명성) 봉녕사(강주 묘엄) 청암사(강주 지형) 등 조계종 사미니 강원은 불기 2550년 신입학인 모집을 위한 입방고사를 1월 19일 일제히 치른다. 삼선강원(강주 묘순)은 25일.

선발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스님을 대상으로, 시험은 사미니 율의,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등 4과목.

조계종 사미니 강원은 신입학인들의 중복지원을 막고 학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같은 날 전형을 치른다. 삼선강원은 대중생활의 부담이 없는 도심 강원으로 경쟁률이 높다.

한편, 사미 강원들은 30기 행자교육원이 끝나는 3월 중순 신입학인을 모집한다. 조용수기자

봉축표어 31일까지 공모

조계종 총무원 행사기획팀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를 1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봉축표어는 △고통받는 중생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알리는 내용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같은 날로 연계하여 어린이의 순수, 천진함과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내용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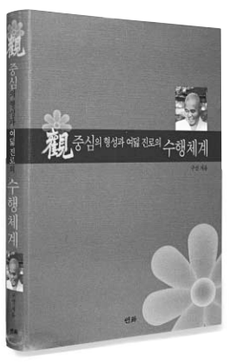
당선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불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10자 이내로 1인이 최대 2개씩 응모가능하며, 조계종 행사기획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nhk@buddhism.or.kr)로 접수한다. (02)2011-1745. 조용수 기자

본사사령

이은아
命 지방팀 영상기자
2006년 1월 3일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구선 지음
312쪽 / 값 18,000원

見性을 넘어 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아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종영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산본) :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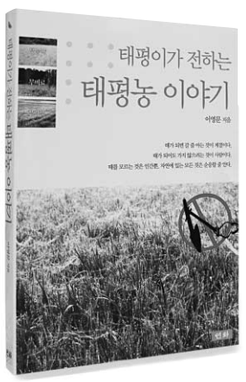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역성질환과 성인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덟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선정 / 여덟진로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중심의 일 心 → 無心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識 → 無念	안팎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합일을 이루었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의식의 발현)	존재목적을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위각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위각 (미세망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돈독한 미세적 유위각	일시적 무위각
자기제도	장부순화 (음수련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척추순화 (척추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갈비뼈 순화 (갈비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위장 소장 대장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뼈순화, 채약
교류성의 확 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점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조화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 현	있는 그대로 본다	흔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색계뿐만이 아니라 무색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식의 틀 깨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중극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매의 증득

※ 이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상수멸정(想受滅定)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세상 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바랍니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호남폭설 피해지역에 자비를

사랑의 쌀 · 성금 모금 등 온정 밀물
교계 조직적인 지원활동 이어져야

나눔의 온정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 이재민들에게 불교계가 작은 정성을 보태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설날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운동'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는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등 인덕원 산하 11개 시설이 모두 참여했다. 현재 목표는 5천kg의 쌀을 모으는 것. 십시일반 모은 쌀은 5톤 트럭에 가득 실려 1월 25일 호남 폭설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29일 열렸던 4대 종교 성직자 문화공연 '오색콘서트'에서 모인 성금 역시 1월 25일 호남폭설 피해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와 함께 개최한 '이웃과 함께하는 4개 종단 성직자 문화공연'에서 모인 성금 5백만원을 KBS를 통해 1월 25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호남지역 폭설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작년 12월 28일 MBC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을 하달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교구 차원의 자원봉사 및 성금 전달, 방문격려 등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장성 백양사, 고창 선운사 등 호남지역 교구본사에 대해서는 말사피해 현황을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도 사중 스님과 자원봉사단, 성림문화재연구원, 16개의 신행단체 등이 참여해 2천5백만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이번 폭설로 인해 재산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먹구구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모금을 통해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쓰나미 · 카트리나 · 파키스탄 지진피해 성금구호와는 달리, 현재 불교계 종단 내에 호남폭설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재해기금창구는 한 곳도 개설돼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체계적인 지원책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재해지역에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구호봉사단을 발족했음에도 불구, 재난구호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이번 폭설피해현장에 봉사단을 투입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 사찰 역시 피해 농가와 지역민들을 위해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폭설로 최대의 피해를 입은 나주, 담양, 장성 등지에 30개의 말사를 소유하고 있는 백양사와 다른 교구본사들은 구호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각 사찰의 자원봉사단 활동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각종 재해 ·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단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의료진, 현장자원봉사자,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구호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나와

찬불동요 108곡 엄선…초 · 중 · 고급 3권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가 지난 10년간 발표한 찬불동요에서 엄선한 108곡을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Ⅰ·Ⅱ·Ⅲ'으로 발표했다. 개인이 사비를 털어 교본을 만든 적은 있으나 여러 명의 작곡 작사 편곡 등이 어우러진 피아노 반주곡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피아노 반주곡집 세 권은 초 · 중 · 고급으로 나뉜다. 1권은 바이엘, 2권은 체르니 100번, 3권은 체르니 30~40번 수준에 맞도록 구성했다. 피아노 연습의 교육적인 측면과 단계별 학습을 위해 전문음악 편찬위원의 자문을 구하는 등 교재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번 반주곡집은 교육기관이나 일선 음악학원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짜임새 있게 편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꾸벅의 이병덕 대표는 "이번 반주곡집은 법보시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나은 품질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악보집의 가격도 대폭 낮춰 3권 한 질에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현 스님은 "새싹 불자들이 이 악보집으로 피아노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축하했다.

피아노반주곡집은 전국의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02)723-9836

강지연 기자

교회서 구청행사 '불교계 반발'

종평위 시정요구…부평구 "내년엔 바꾸겠다"

인천 부평구청이 1월 20일 개최 예정인 '2006 신년음악회'를 특정 종교시설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신교 교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입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월 12일 부평구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교평화위는 부평구청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종교적 중립 위반과 특정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역 불교계 스님들은 1월 7일 부평구청을 방문, 종교편향 행위 중단과 신년음악회 장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측은 "내년부터 구내 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하겠다"며 "교회에서 개최하되, 선교 관련 행위는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지율스님 의학적으로 위중"

일산불교병원 "위급시 인위적 개입"

1월 5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한 지율 스님이 "의학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측은 1월 13일 "전해질 검사와 콩팥 · 간 기능, 빈혈 등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율 스님은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시급하며 계속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아직까지 의식이 비교적 또렷하고, 간단한 의사표현도 가능하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석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무원장은 "지율 스님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 병원은 인위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라며 "절대로 스님이 입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철도시설공단 측이 "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측발표해 공정성 시비로 조사가 중단됐던 천성산 공동조사 마무리작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고속철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 대책위)측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철도시설공단이 공식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조사를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조만간 천성산 대책위측과 철도시설공단측 조사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사과를 수용하는 한편, 조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현장검증

2월6일 실시…16일 2차 심리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현장 검증이 2월 6일 실시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는 1월 10일 조계종 용화사가 통영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2월 6일 오후 2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과 용화사, 미래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용화사 부지 상공과 상부, 하부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중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미래사와 용화사를 차례로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용화사측이 제기한 현장검증과 확실한 경계 구분을 위한 사찰 소유 토지측량, 증인 심문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통영시측이 신청한 '토지수용절차 사실조회'도 경남도에 요구키로 했다.

통영지원은 2월 16일 2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세법 모르는 종교단체 많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받아야 면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월 10일 종교단체 가운데 세법을 몰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충처리위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조직 · 운영규정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돼 법인과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며 "이런 경우 고유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분류돼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충처리위 윤성용 재정세무팀장은 "세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종교단체(비영리단체 포함)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02)360-2793

박봉영 기자

노인복지 · 여성불교 힘쓴다

조계종 포교사단 4대 단장에 양성홍씨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4대 단장에 양성홍(59 · 사진) 포교사를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포교사단은 1월 5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양성홍씨를 단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4대 단장으로 선출된 이욱용 포교사는 임기전인 12월 31일 일신상의 이유로 단장직을 사퇴했다.

포교사단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이타행을 위한 복지포교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 포교 확대(포교) △포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 마련과 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포교역량강화와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전문포교분야 확대(교육) △지역별 단위사업 지도 등을 내놓았다.

특히 양 단장은 "노인복지사업과 여성불교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단장은 지역 사찰과 연계한 지역사회복지와 개호복지(노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사업)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머니 불교가 살아야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포교사 결집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 단장은 (주)대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8년 포교사 품수를 했다. 또 포교사단 부단장과 제3대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8일 대전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포교사 대학원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포교사가 돼야 한다"며 "각 지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도와 화합 단결하는 포교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청교련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15종 등 제작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올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 및 배포에 나섰다.

93년부터 점자도서 보급사업을 진행해온 청소년연합회는 주로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시각장애인학교와 각종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지정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배포되는 도서목록에는 점자도서 15종, 전자도서 2종, 녹음도서 테이프북 5종, 녹음도서 CD 5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은희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공지·통보만 하는 회의보다 활발한 토론으로 '결과' 얻어야

조계종 사회부가 2~3월경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조계종 교구본사 국장회의의 성격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의 23곳의 교구본사들은 각각 적게는 40여곳에서 많게는 70~80곳에 이르는 말사를 관리한다. '본사(本寺)'는 말 그대로 지역의 중심사찰로서 각종 종무행정과 지역 포교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본사의 유기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종무기관과 본사의 관계는 '형식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중앙종무기관은 종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본사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의 중앙종무기관은 교구본사 국장 소임자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회의는 아직 큰 내실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허와 실을 진단해본다.



조계종 교구본사 국장회의 허와 실

포교국장 회의 가장 활발, 정례화 시작단계
종책 전달 급급…지역 의견 제시 드물어

●4개의 국장회의 진행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등의 중앙종무기관 실무 부서가 진행하는 교구본사 국장회의는 4개다. 포교국장, 교무국장, 호법국장, 성보박물관장 회의 등이 열리고 있으며, 종단 안팎의 사회 현안이 있을 때 개최되던 사회국장회의도 조만간 정례화 될 예정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회의도 사찰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포교국장 회의다. 포교국장 회의는 조계종 종법에 명시돼 있는 유일한 회의다. 포교법 제2장 제6절에 규정된 전국포교국장회의는 ▲포교원 사업과 정책 ▲포교진흥에 관한 계획 및 정책 ▲각 지역포교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한다. 포교원장이 분기별 1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중요 사안 결정시에는 수시 소집도 가능하다.

교무국장 회의도 매년 2차례 정도 개최된다. 행자교육과 본말사 주지연수, 각급 승가고시를 비롯한 각종 승려교육과 관련한 일정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교무국장회의는 비교적 높은 참여 속에서 진행된다.

본말사 스님들의 일상생활지도와 감찰, 호법(護法)을 담당하는 호법국장회의도 열리고 있다. 호법국장회의에서는 본사별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비롯한 주요 동향과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는 장이다.

최근 사찰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3곳 본사를 포함해 총 18곳 사찰에 건립된 성보박물관의 관장회의도 정례화 돼 있다.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열었던 박물관장회의에서는 문화재 관리 방법 토론과 박물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전창훈 교육행정팀장은 "국장회의는 중앙종무기관의 주요 종책과 업무를 각 교구본사에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말사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성과와 한계

그러나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교구본사 국장회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것은 본지가 포교, 교무, 호법, 사회 등의 소임을 맡고 있는 전국 교구본사 국장스님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50명 스님들 중 80%가 넘는 43명의 스님들은 "교구본사 국장회의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국장 회의나 교무국장 회의의 경우 참여율이 높긴 하지만, 포교원과 교육원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일부 국장스님들은 회의를 실질적인 안건 토론이 되는 형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법국장 회의 역시 소임자의 부재가 많다보니 일부 교구본사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와 함께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회의의 가장 큰 문제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스님들은 국장 회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호법국장회의의 경우 가장 최근에 열렸던 때가 2004년 5월이다. 호법부장이 중앙종회의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

다른 국장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다보니 중앙과 지역이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집중성 또한 떨어진다.

조계종 호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4명의 부장스님이 부임했었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하지만 본사와의 업무연관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 국장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제로 제출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토론하기보다 '공지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충청지역의 A사 포교국장 스님은 "회의를 하면 전체 23곳 중 18곳 안팎의 본사가 회의에 참석한다"며 "포교원이 제시하는 종책 중 지역의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이 나올 때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한다.

이와 같이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교구본사 국장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교구본사 국장의 임기는 짧으면 3개월, 길면 1~2년 정도다. "업무를 파악하기 무섭게 그만 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장 임기 길어야 1~2년 업무 효율성 낮아
7직 구성조차 안된 교구본사 30% 달해

교구본사 교무국장 중 유일하게 10년 이상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용주사 교무국장 성무 스님은 "회의를 할 때마다 새롭게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적지 않게 온다"며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임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무 스님은 "국장은 최소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원이 직접 교무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것은 교구본사에 총무, 재무, 교무, 기획, 호법, 사회, 포교 등의 7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다는 것이다. 1/3이상의 본사가 아직도 7직을 구성하지 않을 만큼 본사의 행정의지는 미약하다. 7직은 조계종이 종헌 90조 1항을 통해 교구본사가 갖춰야 할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구행정의 핵심이다.

호남지역의 B사 교무국장 스님은 "일부 소임이 공석일 경우 다른 국장 스님이 업무를 겸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구본사의 행정력부터 높이는 방안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제는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의 업무 권한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남지역의 C사 호법국장 스님은 "교구본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조사권은 해당 본사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름뿐인 회의보다 조사권 위임 등의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한 지역과 중앙의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명하달식 행정은 지양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비해 국장회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회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앙종무기관과 지역 교구본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명하달식 행정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7직도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소수의 종무원들로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교구본사도 보다 체계적인 종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미리 공지된 안건이 활발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고, 결의된 내용들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혜용 스님은 "늦었지만 사회국장회의를 진행하려는 것은 지역 현안과 중앙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본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중앙종무기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종무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과목

교육 과정 / 내 용		강 의 내 용	강 의 과 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초발심자경문,사미율의, 불전의식,포교학,상담심리학,선어록,불교학,불교사,태고종학,다도,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사상,역사,포교,불교복지 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유식학,선학개론,화엄학개론,기신론,불교학,불교사,원각경,금강경,불교사회복지론,생활역학,다도,태고종학등	스님 및 일반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을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	의식이론,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주권공,시식,화청,바라무,착복무,불교학,불교사,초발심자경문,사미율의,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 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재,예수재.영산재및 각종,행사시 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양공(손가사제작),지화(전통꽃),재설비,장엄서예(범서).불교학,불교사,초발심자경문,사미율의,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불자
특강 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 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스님 및 일반 불자
	생활 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스님 및 일반 불자

2 교육과정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 학교식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모집일자 2006년 2월 25일까지

4 구비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5 전형방법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이내,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개별통지

7 통신강의 지방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생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교학처 ☎02)763-5213 / 팩스 02)747-9290 서울 종로구 창신 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10 특 전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2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 우 승 가 대 학 학 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영 축 총 림 율 원 학 인 모 집 공 고

佛之宗家 國之大刹

계율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 율원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가풍을 확립하고자 금번 2006학년도 율원 신입생 방부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방 및 지원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써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06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모 집 인 원 0명

모 집 일 정

· 접 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06년 2월 13일까지(음 1월 16일)
· 전형 및 면접일자 : 2006년 2월 14일 오후 1시(음 1월 17일)
· 합 격 자 발 표 : 2006년 2월 16일(개별통보)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 (본원 소정 양식)
2) 승적 사본
3) 졸업증명서
4)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진단서(종합병원)
7) 자기소개서 각 1부, 사진(4×5) 5매
8) 본인 도장



문 의 처 055)382-8348 (율원) 055)382-7182 (종무소 교무국)

불기 255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율원

부산불교련 '사단법인'으로 변신

3월 등록 완료…회원제 운영방침 '주목'
기부금 지정단체 지정 · 행사기획단 구성
홈페이지 통해 홍보 · 참여폭 최대화

부산시내 31개 종단, 1300여개 사찰을 아우르는 연합체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스님)가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980년 5월 창립이후 26년만의 대변신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지난해 '법인설립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검토 등의 준비에 들어간 부산불교연합회는 빠르면 1월 중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 20~30명 선의 이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1300여 개의 사찰과 2100명이 넘는 스님들의 연합체이다 보니 법인 설립 준비도 만만치 않다. 부산불교의 대표성을 잃지 않으면서 종단이나 사찰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골고루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점차적으로 기존 부산불교연합회 이사급을 사단법인 이사로 영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단법인 설립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회원제 운영이다. 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사찰을 중심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회원 우선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회비납부, 행사 동참 등의 의무를 다 한 만큼 주인으로 대접받게 함으로써, 사찰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는 부산불교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회원제 운영은 부산불교연합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으로 활동하는 사찰을 확보하는 일로, 부산불교연합회의 결속력과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3년 안에 500개의 회원 사찰 확보가 목표다. 이로써 확보된 기본 재정으로 규모 있고 계획성 있는 살림과 사업 계획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단법인설립이 완료되는대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을 서둘러 회원사찰의 복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게 된다.

특히 부산불교연합회는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3월 중으로 홈페이지(www.bba.or.kr)도 개설한다. 홈페이지는 굵직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봉축 캐치프레이즈 공모, 행사 아이디어 공모 등 열린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주최해온 봉축 행사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팔관회 등의 연중행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연구기획단 회의를 상시화 한다. 매월 한차례 회의로 행사뿐 아니라 부산불교 전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행사에 내실을 다지고 부산불교의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산불교연합회 법인설립 소위원회를 꾸려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사무총장 범산 스님은 "그릇이 바뀌면 내용물도 달라지는 것처럼 사단법인 설립으로 부산불교연합회의 내실을 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051)867-050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연등 만들며 '희망' 키워요

소년소녀가장들 범어사서 템플스테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여느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범어사에 모였다.

1월 10~11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열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사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이다. '어둡고 위축돼 있겠지' 하고 짐짓 섣부른 짐작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성격대로 구김살 없는 웃음을 보이거나, 수줍어하며 낯선 사찰 문화를 익혀 가기 시작했다.

수련복을 입고 사찰예절교육, 사찰 안내를 받을 때만 해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던 아이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연등을 만들기 시작하자 연잎 빛깔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분홍빛, 붉은 빛, 초록빛 연잎을 빚는 아이들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한잎 한잎 연잎을 빚으며 절은 어떤 곳인지, 연등은 왜 만드는지,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끝도 없는 의문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알고 싶다. 그래서 차담을 나누는 시간에 스님에게 질문도 많이 했다.

아이들이 특히 재미있어 한 시간은 스님과 함께 한 윷놀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한 윷놀이에서 아이들은 윷판위에 '희망'을 던져 올렸다. 환호성도 터지고, 안타까운 탄성도 질러가며 범어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둘째날인 11일에는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 산행이 진행됐다. 힘겨운 산행이었지만 고당봉에 올라 내려다본 전경은 가슴을 확 열어주었다.

연수국장 혜수 스님은 "누구나 금정산을 오르지만 고당봉을 오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정상에 올라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절에 와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추억이며 앞으로 힘들 때마다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14일~ 15일 한차례 더 열리고 회향됐다.

천미희 기자

활발한 봉사 올해도 다시 한번
적십자 불교봉사회 정기총회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는 1월 11일 정기총회를 갖고 2005년 활동 보고 및 2006년 계획을 세웠다(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훈훈한 얘기들이 많았다. 박추자 회장이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한 달여 투병 끝에 병석을 털고 일어나 자리를 함께 한 총회인데다, 지난 1년간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이 2781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봉사를 펼쳐온 뒤였기 때문이다.

정기총회에 함께 한 박추자 회장은 "지난 연말 내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더욱 알차게 봉사활동을 마무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봉사와 자비의 마음이 병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해 말 박추자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자 회원들이 교대로 간병을 도맡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적극 동참하며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병석에 누운 박 회장과 함께 나눠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지구단위로 승격된 후 더욱 활발해진 적십자불교봉사회의 활동은 하나회(회장 심금조), 두리회(회장 김호선), 연등조(회장 채삼연), 유심조(회장 황재연), 수련회(회장 권점이) 광명회(회장 천미화) 등 단위조직별로 성애원 목욕봉사, 헌혈캠페인, 무료급식,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를 펼쳐왔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인 상락정 봉사를 추가하는 한편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부산 청년불자 간담회 개최
포교 활성화 등 의견 나눠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청년불교연대는 1월 21일 오후 5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 지역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청년불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부산지역 청년불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대모임인 청년불교연대는 이날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불자들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포교의 방향성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005년 1월 범어사 포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청년불교연대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불자 포교에 관심이 있는 이나 현재 부산지역 청년불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467-5241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놀며 배우며 행복 찾아요"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 금정청소년수련관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열린 공간이다.

방학 중에도 수련관은 북적 … 상담코너 인기
방과후 아카데미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력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의 풍토 속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 그에 대한 해법을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로 찾아내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재)범어청소년동네에서 운영하는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이다. 1월 10일, 방학 중인데도 수련관 곳곳에 아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하에는 청소년들이 재료 준비, 요리, 판매까지 도맡아서 창업한 청소년 스낵바 '쫌'이 성업 중이고, 수련관 뒷벽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벽화로 꾸며져 있다. 아이들이 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선 18세 청소년들이 또래 상담에 참여해 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도교사를 뽑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다. 모두 청소년들의 주인이라는 방증이다.

지난해에는 범어사청소년동네가 운영한지 1년 만에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를 개발, 판매하는 '캐릭터 개판치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전국 46개 기관 중 부산에선 유일한 성과였다.

특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원에 버금가는 알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기를 모았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본 공통과목과 함께 댄스, 연극, 수화, POP(예쁜 글씨쓰기), 리본 공예 등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꿈틀거리게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아이들은 수련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생활에 쫓기는 부모님을 대신해 저녁을 챙겨주고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금정청소년수련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만화, 영상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는 금정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2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년 뮤지션 육성을 위한 음악스튜디오 특성화 시설을 위한 '금정청소년미디어 Plus 센터'를 갖춘다. '음악'과 '소리'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공간이다.

윤희선 청소년사업과장은 "아이들은 수련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면서 더 행복하고 풍성한 미래를 가꾸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051)581-2070

천미희 기자

쓰나미 피해 1주기 추모법회 봉행

스리랑카 노동자 50여명 대구 관오사서



1월8일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노인요양시설 '여래원'에 화장지를 전달하고 있다.

1월 8일, 동남아시아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발생 1주기를 맞아 대구지역 스리랑카 노동자 50여명이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산뜨스리, 소바나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추모법회는 스리랑카식으로 이어졌다.

50여명의 스리랑카 노동자중 지난해 쓰나미 피해로 가족을 잃은 노동자는 7명. 추모법회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염불의식과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7명의 피해 노동자들은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며 쓰나미로 희생된 가족들의 영혼이 이생에서의 죄를 씻고 맑게 떠올라 구제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거행했다.

한국사찰 도움에 감사 용돈모아 여래원 전달

새해 처음 봉행된 외국인 노동자법회. 이날 법회는 새해 첫날 부모형제에게 인사를 하고 사찰을 찾아 스님에게 례를 올리는 이들 문화풍습에 따른 신년 법회를 겸했다. 법회가 끝나자 노동자들은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 다양한 생활상담도 하는 등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법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한국사찰이 쓰나미 피해민 돕기에 나서고 1년동안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데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용돈을 모았다.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모은 정성금은 치매노인 전문요양원에서 1년간 사용할 두루마리 휴지로 바뀌었다.

이날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 산하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여래원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쓰나미 피해자 3명이 할머니들에게 직접 휴지를 전달하고 쓰나미 피해로 먼저 세상을 뜬 가족의 명복을 빌었다.

비록 말은 서로 통하지 않지만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는 순수한 교류의 끈이 이어졌다. 한국에 온지 불과 석 달밖에 안된 니르마라(24)양은 할머니 손을 잡고 마냥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친손녀에게 어리광이라도 부리는 듯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며 떼를 썼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영천 은해사, 얼음조각공원 조성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솔밭공원에 불교얼음조각공원을 조성한다. 매년 겨울 경내 은해교 옆 암벽에 얼음폭포를 조성해 온 은해사가 겨울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것.

은해사는 불교얼음조각공원에 불상, 보살상 나한상 등 가로 세로 3m 규모의 불교를 소재로 한 얼음조각 작품 20여점을 설치하며, 이를 위해 1월 20일까지 불교얼음조각작품을 조각할 예술가들의 응모를 받고 있다. (054)335-3318 배지선 기자

불교포교 위한 교류협정 체결

경주 동국대 · 대구사원주지련…시설 · 교육환경 환용 등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고복현, 이하 경주동국대)는 1월 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세에 포교하기 위해 시설과 교육환경을 환용 · 교류하는데 협력한다는 교류협정을 맺고, 대구불교회관에 동대 사회문화교육원 대구 학습관을 개설한다는데 합의했다(사진).

이에 따라 사원주지연합회는 올 1학기부터 대구불교회관에서 동국대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불교지도자과정과 불교풍수지리과정 등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규 석사과정인 특수대학원 개설도 고려중이며, 학점 은행제 등록기관으로의 인증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는 경주 동국대는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계종립대학으로서 포교역량을 경주지역뿐 아니라 대구지역까지 넓혀 나가게 됐다.

법혜 스님은 "동국대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아픔 함께하고자 무료급식 제공"

해인사, 서문시장화재 피해상인 1000여명에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문시장화재 피해상인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해인사 대구지역 신도회인 대구 화림회, 해인사 수련동문회, 해인사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해인사 자원봉사단 30여명과 해인사 스님은 서문시장 주차 빌딩 앞에서 대체 상가 마련을 위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피해상인 약 10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줬다(사진).

해인사는 또 서문시장화재피해상인 돕기 모금함도 경내에 마련했다.

10일 무료급식에 참가한 해인사 포교국장 일감 스님은 "지난해 동남아 쓰나미 피해민을 돕기에 서문시장 상인들이 적극 동참해주었다"며 "지난해의 도움을 생각하며, 피해상인들과 조금이라도 아픔을 같이 하고자 무료급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대웅전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대구시는 동화사 대웅전 등 일부 대구시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추진하고 있다. 시지정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함으로써 당해 문화재의 위상과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 주요지방문화재에 대한 자체 조사와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중이다. 현재 대구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주목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재는 동화사 대웅전과 도동서원, 달성 하목정 등 3건이다. 대구시는 조만간 시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대구시 성도절 기념법회 개최

불기 2549년 성도절을 맞아 대구광역시 성도절 기념대법회가 대구시민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의 주최로 봉행됐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 스님, 김범일 대구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이날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분별한 생각을 내기 때문이다.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없다면 통연히 명백함이로다"는 법어를 내렸다.

한편 사원주지연합회는 성도절 법회 때 모금한 금액과 회원사찰 스님과 신도가 모금한 금액을 합한 500만원을 1월 10일 서문시장 피해상인에게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박진수

조계종 대구광역신도회 사무국장

대구 불교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다보면 대구광역시 신도회 박진수 사무국장을 만나야한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평생을 불교활동으로 일관해 왔기에 대구불교 역사부터 야사까지 훤히 꿰고 있다는 게 지역불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렇기에 박 국장에게는 '대구불교의 산증인'. '대구불교계의 마당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따라 붙는다.

현재 나이 58세. 대구가 고향인 박진수 사무국장은 어린시절 어린이법회부터 참가한 인물이다. 그러다 교계활동을 본격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청소년 시절이다. 동화사 직할 포교당인 보현사 대구불교학생회원으로 활동한 박진수 사무국장은 주지 스님이 자주 교체되던 혼란한 시기의 보현사를 회고했다. 박국장은 혼란한 시기였기에 부처님의 법이 바르게 널리 홍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며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러 단체 실무 맡아온 대구불교 산증인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왕발'

대구지역불교 50년 역사와 함께 해온 박진수 사무국장에게 그동안 따라다닌 직함만도 여러개다. 1971년에는 원만사 학생회를 창립하고 지도교사로 활동했고, 76년에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지부창립발기인중 한사람으로 봉사직인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돈을 모두 쏟아부으며 청소년 불자를 키웠던 세월이 무려 10년이다.

1982년부터 3년간은 대구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83년에는 동화사 상임포교사로 임명됐다. 대구광역시신도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86년부터다. 부실 운영으로 1000여 만원 이상의 빚을 떠안은 상태에서 원명, 무공, 경희, 운성, 태일 스님 등 지역 스님의 권유와 동의로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97년부터는 9교구신도회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다. 그 외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자문위원, 무료급식소 자비의집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다.

박국장은 한 평생 지역불교계의 중심에서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 한 번도 전면에 나선적은 없다. 언제나 뒤에서 모든 일이 잘 이뤄지도록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원래 역사는 솟았다 내렸다 하는 거지 뭐. 봉우리도 만들고 골도 만들고…"

박진수 사무국장의 설렁 설렁 내뱉는 한마디에서 뭔지 모를 깊이를 느끼게 한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도 싶을 터. 또 한번쯤은 전면에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터인데 박진수 국장의 발걸음은 한결 같다. 누구보다 큰 키에 잰걸음으로 종횡무진 대구지역 불교계를 누비며 조용히 뒤를 받치고 있다.

오랜 경륜으로 지역불교역사를 꿰고 있는 박국장에게 물었다. 불교발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요즘 불교복지를 많이 주장하는데 복지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집중 투자 해야 합니다. 또 어느 단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폐쇄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존속 발전시켜나가야지 먼 훗날 필요할 때 단체 하나를 육성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지선 기자

각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代비법 요/베개


주무시면서편안하게치료完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 : 1 완전 맞춤 치유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닥터스® 02)782-0022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3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얼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의 교리 · 사상 · 역사와 경전,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포교와 복지과목 등을 이수하고 기초불교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승가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주요 내전 및 종학 등 대승교화 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교과를 이수하고 기초불교 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범패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교신행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의식 등 전통불교의식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50명	2년제
불교미술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화 · 단청을 비롯한 불교미술 전반의 체계적 학습을 위한 미술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50명	3년제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5. 12. 26(월)~ 2006. 2. 3(금) 17:00	본교 교학처 www.dongbang.org 인터넷 교부 · 접수
전형고사 (필기 · 실기 · 면접)	2006. 2. 10(금) 10:00~17:00	본교 강의실 및 실기실
합격자 발표	2006. 2. 13(월)	개별통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등록	2006. 2. 13(월)~2.17(금)	계좌입금: 농협 029-01-130257 동방대

3. 지원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나.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지원방법
가. 불교학과는 정규 및 통신반의 선택지원이 가능하다.
나. 승가학과 ·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는 정규반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인터넷 원서접수한 후 출력하여 사진 부착)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3매 바. 전형료 50,000원

◆제출방법
가. 본교 교학처 직접방문 및 우편 이용.
나. 인터넷 교부 · 접수는 원서접수한 후 출력하여 사진을 부착하고, 여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학처로 방문 제출한다.
다. 주소 :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학생과

구 분	필기고사 불교상식	실기고사	면 접	합 계
불교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승가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범패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불교미술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가. 태고종 승려로 출가득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제도시행에 따라 본교(전체학과 해당)를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
나. 불교학과 통신생은 본교 홈페이지 사이버 음원강의 및 통신강의CD를 통해 교육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라. 승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합동득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지원자는 삭발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마. 승적증명서나 수계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바.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가.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출가희망자에게는 종단의 합동득도교육(태고총림 선암사에 입방하여 전통행자교육 및 승려의 습의를 수행함) 때 특혜를 부여한다.
나. 졸업생 전원에게 태고종단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다. 졸업생 중 출가승려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선덕(善德)법계를 품수한다.
라. 졸업생 중 재가승려(전법사)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수교(修敎)법계를 품수한다.
마.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바. 불교미술학과는 각종 공모대전 참여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을 대비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사.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지방학생들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10월 18일 태고종립 불교포교사전문대학으로 개교.
1983년 6월 1일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1990년 3월 1일 범패과 개설 및 기숙사 개설.
1991년 3월 1일 불교미술과 개설.
2004년 3월 1일 승가과 개설.
2005년 2월 28일 제22회 졸업식, 1,043명 졸업생 배출.
2005년 12월 20일 승가과 · 범패과 · 불교미술과를 승가학과 ·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로 공칭, 학과개념 부여 / 불교미술학과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

문의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 (02)745-2030~2 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으로”

사암련 · 신도단체, 조찬법회서 선언

불자비율 10% 불과…모임 정례화 하기로

1월 11일 아침 7시, 익산 그랜드호텔 대회의실에서 조찬법회가 열렸다.

신년초가 되면 지역마다 흔히 열리는 법회지만, 익산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가슴벅차게한 ‘야단법석’이었다.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을 선언하는 법회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법회는 스님과 불자들이 처음으로 지역기관장을 초청한 법회로 불교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신년하례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지광(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 향봉(사자암 주지)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강현욱 전북지사, 채규정 익산시장, 진교중 익산교육장, 김복현 익산문화원장 등 지역기관장, 익산 능인회 박중근 회장, 대원회 김덕순 회장 등 익산의 7개 신행단체장과 재가불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찬법회를 주최한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이의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익산은 불자가 10%로 내외로 더이상 물러서서는 안되겠기에 금년을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으로 선언한다”며 “지역 스님과 신행단체가 하나되어 익산불교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기복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대승불자가 되자”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고민하고 실천수행하자”고 말했다.

또한 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은 발원문에서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구경성불의 그날까지 깨달음을 구하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불교가 피어나기”를 기원했다.

이날 조찬법회에 참석한 강현욱 도지사와 채규정 익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익산은 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이다”며 “문화국가 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지역불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불교는 지난해 봉축행사 무산으로 지역불교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최악의 상태였다. 새해를 앞둔 지난달, 각 사암 스님과 단체장들은 ‘더이상 물러설수없다’는 각오로 조직정비에 나섰다.

지광 스님(숭림사 주지)은 ‘익산불교 활성화를 위한 사부대중 간담회’를 개최해 사암연합회를 추스르고, 7개 신행단체장들이 모여 익산불교신도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처럼 금년을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으로 선언한 익산불교 사암연과 신도연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날 첫 모임으로 조찬법회를 마련했다.

글 · 사진/익산=이준엽 기자



익산불교활성화를 위해 익산불교사암연합회와 신도연합회가 주최한 조찬법회 모습.



광주 정광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골든벨 도전자들에게 ‘파이팅’ 응원을 펼치는 모습.

종립 정광고 골든벨 울렸다

3학년 박나영양 영예의 주인공

수능 수석 배출 명문고 급부상

‘룸비니’에서 골든벨이 울렸다.

불교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고등학교 3학년 박나영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퀴즈프로그램 ‘KBS 도전! 골든벨’(KBS1 1월 15일 방영)에서 제 53대 골든벨에 등극해 화제.

지난달 7일 정광고 룸비니관(체육관)에서 골든벨을 울린 박양은 “현장에서는 긴장해서 얼떨떨했으나 부모님이 기뻐할 때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음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찬스’ 한번 쓰지 않고 50문제를 풀어낸 박양은 골든벨 녹화중에 “시장에서 고생하시며 3남매를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에게서 인내심을 배웠다”며 울먹여 청중을 숙연케 하기도.

“다양한 독서와 학업에 충실하는것이 골든벨을 울린 정석”이라고 밝힌 박 양은 “의사가 되어 의술연구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문제를 발표한 정인영 교장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건립된 종립학교이기에 골든벨을 울릴것이다”고 확신했다며 “정광고는 광주 최초의 골든벨과 금번 수능에서 자연계열 수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최고의 명문이다”고 소개했다.

정 교장은 또한 “불교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 활동으로 학생들이 차분한 편이어서 10년 넘도록 별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교직원들과 함께 부처님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동배 교법사는 “지난해 4월 건립된 룸비니 관은 올림픽 규격을 갖춘 600석 규모의 메머드 체육관으로 골든벨이 울려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정광학원(이사장 천운 스님)은 1946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중심으로 지역사암과 불자들에 의해 건립됐으며 정광중,고에 2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부처님 자비’를 건학이념으로 생활하고있다.

이준엽 기자


지관스님, 송광사 화엄사 방문

동안거 결제 수좌 대중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 12일 송광사 조계총림 선원과 화엄사 선등선원을 방문하고 대중공양을 올렸다(사진).

동안거 결제중인 선원 수좌들과 대중들을 격려하기 위해 화엄사를 찾은 지관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종무행정에 여념이 없는 주지 스님과 대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진중인 대중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성도재일 기념법회 봉행

대전 청림회 장학금 전달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영진)는 성도재일 대법회를 1월 8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봉행했다(사진).

염홍철 대전시장, 교수불자회원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김룡사 회주 자광스님의 법문과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청림회는 충남대 대불련 회원 5명과 보문중고교 학생 14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혜철 대전 · 충북 지사장

제주도 템플스테이 상설화

약천사 광명사 올해부터 운영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상설 운영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06년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서귀포시 약천사(주지 원조)와 서귀포시 광명사(주지 수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국내 · 외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선보일 수 있어 포교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천사와 광명사측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포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실사 당시 미비한 점으로 지적된 점을 보완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광명사 주지 수보 스님은 “템플스테이 예약 및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관광지와 공항 · 항만에 비치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관련 기관에서도 템플스테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템플스테이가 제주지역 관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 지자체에서도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템플스테이 홍보방안을 구상 중이다. 남동우 기자



하이닉스 노사화합 당부

청주청원불교련, 기자회견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가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사진).

연합회는 1월11일 오전11시 청주 용화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지역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 심화 등 충북불교계의 우려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혜철 대전 · 충북 지사장

제천사암련, 성도재일 법회

5천여명 참석…화합의 한마당

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무암)는 성도재일 특별대법회를 1월 7일 오후 2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엄태영 제천시장과 서재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법회는 성도재일 기념 의식과 축하 공개방송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불교방송이 주관한 성도재일 축하



공개방송에는 김태곤 ,장미화, 선오스님, 이현민, 석기영, 유미, 신준아등 유명 불자 가수들이 대거 참가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성도재일 축하 공개방송은 1월 15일 청주불교방송 ‘음악의 마을’을 통해 방송됐다. 혜철 대전 · 충북 지사장

성도재일 기념법회 봉행

대전 청림회 장학금 전달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영진)는 성도재일 대법회를 1월 8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봉행했다(사진).

염홍철 대전시장, 교수불자회원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김룡사 회주 자광스님의 법문과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청림회는 충남대 대불련 회원 5명과 보문중고교 학생 14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혜철 대전 · 충북 지사장

한마음선원 어린이수련회

광주 통영 등서 150명 참가

한마음선원 어린이 겨울 연합수련회가 1월 10~11일 양일간 광주지원에서 열렸다.

‘쉿! 주인공과 얘기중이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대회에는 광주 통영 진주 대구 목포지원 어린이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선재동자가 구도의 길을 떠나는 화엄놀이, 촛불재, 발우공양 등으로 마음공부를 하고 눈썰매장에서 놀이 한마당으로 회향했다. 이준엽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4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8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6년 2월 4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본 대학사무국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의와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 팩스 접수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현장 지원하는 포교원 된다

조계종 포교전진대회 행정체계구축 등 종책과제 발표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포교현장을 지원하는 포교원'을 슬로건으로 교구와 단위사찰 및 단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생산하고 추진한다.

1월 7일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열린 '불기2550년 포교전진대회'에서 포교부장 일관 스님이 밝힌 올해 슬로건과 주요 종책 과제에 따르면, 포교원은 종책 과제 중심이 '중앙-교구-말사-단체 포교행정체계 구축'에 있다고 보고 △포교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구 포교 매뉴얼 제작 △모범 교구 운영 지원을 한다.

이는 급변하는 포교환경에 따라 포교의 유연성 및 시효성이 절대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포교시스템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 각급 포교주체 책임행정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포교원은 또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한국불교문화의 새로운 불사를 위해 '국제사이트 구축'을 종책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사이트 개발 운용 △포교컨텐츠 개발 및 보급을 세부목표로 내놓았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포교전진대회 참석자들이 포교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혜철 대전 · 충북지사장

포교원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 온 신도등록 사업 결과 신도등록자 및 재등록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판단아래 '신도등록사업의 획기적 개선과 활성화'도 모색한다. 종단 신도등록자 관리 및 지원 조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신도등록 방법 개선 △신도등록 절차 개선 △신도등록자의 조직, 지원 방안 모색을 지원한다.

포교원은 이와 더불어 조계종도 정체성 함양과 이에 부합하는 신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정립'을 실시한다. 이는 신도 등록, 교육, 조직, 수행 체계 완성을 위한 종반부 사업이 될 전망이다.

포교원은 이 외에도 '간화선 수행진작'을 위해 △간화선 기본 수행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 완성 및 보급 △신도교육 교재 개정도 완성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포교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포교종책 과제 수행 결실은 우리 모두의 원력과 함께 할 것"이라며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다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포교전진대회는 8일까지 법주사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 지역 · 단체 대표자 간담회, 원로의원 혜정 스님 법문, 서원의식 등이 열렸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각 종단 신년하례식 화합과 정진 다짐



태고종 신년 종정 하례식이 1월 9일 태고총림 선암사 설선당에서 봉행됐다(사진).

하례식에는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의장 일우, 총무원장 운산, 사정원장 월운 스님등 종단 각급 기관장과 전국 21개 시도교구종무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시간을 토막내어 묵은해, 새해 하는것은 근본도리에 맞지 않으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월속에 종도가 화합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인사말에서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연수원 확충, 종립불교대학 교육여건 개선으로 수행풍토를 진작시키고 전통종단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미륵종 신년하례회가 1월 9일 지리산 일성콘도에서 종정 연화, 종회의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년하례회 후 가진 종회의장선거에서는 지은 스님(경남 중부교구원장)이 신임 종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감찰원장은 월산 스님(대원정사 조실)이, 산악회장엔 보성스님이 선출됐다.

해동종은 1월 10일 용인 대원사 총무원 법당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

종정 혜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산, 종회의장 보장 스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행자기본교육 15일로 확대 △중국 구화산과 미얀마불교명상대학과 연계 해외성지 연수교육 실시 △하기 연수교육(종도 사찰지정: 7월말경) 등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본원종도 1월 9일 양평 서림사에서 신년 하례식 및 시무식을 거행했다.

종정 무구 스님은 "창종 16주년을 맞는 올해는 행자교육과 유아포교사업 및 복지사업 기틀 마련 원년으로 정했다"며 "모든 종도들이 올해 세운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원효종은 1월 10일 원효종 총본산 부산 금수사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고산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종정 덕산 스님은 신년교시를 통해 "그동안 분열된 종단의 이미지를 모두 털어버리고 원효성사와 법흥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종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다.

김주일 기자



군 생활 도중 다치거나 몸이 아픈 장병들은 1차적으로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지만 중증인 경우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육체적 병을 가진 장병들은 종교에 의지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군병원의 포교 열기는 차갑기만 하다. 자원봉사 부재 등 군병원 포교 시스템의 허술함은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군병원 법당은 포교 사각지대

15개 병원에 법당 있지만 군법사 1명뿐
군법사 늘리고 · '민간성직자제도' 확대를
사찰 · 기업 자매결연 통해 지원 이어져야

■군병원 법당 운영실태

현재 전국 군병원은 모두 15개다. 이 가운데 건물 신축중인 원주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당이 있다. 군병원 법당은 일반부대 법당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월등히 좋다. 대부분의 군법당은 군법사의 모연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군병원 법당은 군 예산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당을 관리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15개 병원 가운데 군법사가 상주하는 곳은 의무사령부 단 한곳뿐이다. 나머지 법당은 군종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병이 한명 있을 뿐 불교 군종병조차도 없다.

법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법회는 고사하고 시설관리도 제대로 될 리 없다. 양주병원 법당의 경우 3년전에 신축됐으나 법당 안에 습기가 차고 퀴퀴한 냄새가 나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다.

군법사가 없는 법당은 인근부대 군법사가 일주일에 한차례 찾아와 법회를 보는 것이 불교 행사의 전부다. 부산, 마산, 광주병원은 포교사가 민간성직자(군대에서 종교활동을 허용받은 민간종교인)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법당에 상주하는 군법사가 없다보니 법회 보는 것 이외의 병자들을 위한 위문이나 기타 대외 행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경우 두 곳의 병원에 군목사가 배치되어 있다. 군종장교 수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병원에는 목회활동을 전담하는 민간 성직자가 모두 위촉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전도사들이 병동전담 요원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간성직자는 군 교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장병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교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선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병원의 경우 각 병동마다 사병 가운데 한명을 선정해 군종병 역할을 맡기고 있고 각 층마다 전도사가 1명씩 배치되어 환자 위문 등 장병에게 찾아가는 선교를 하고 있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인근 지역의 교회가 돌아가면서 부대 교회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교회를 찾는 장병에게는 어김없이 위문품을 주고 있으며 경비는 위문온 교회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병동 전담 사병과 전도사가 일일이 환자들을 찾아가 예배 참석을 권유해 현재 100여명의 장병들이 매 예배 때마다 교회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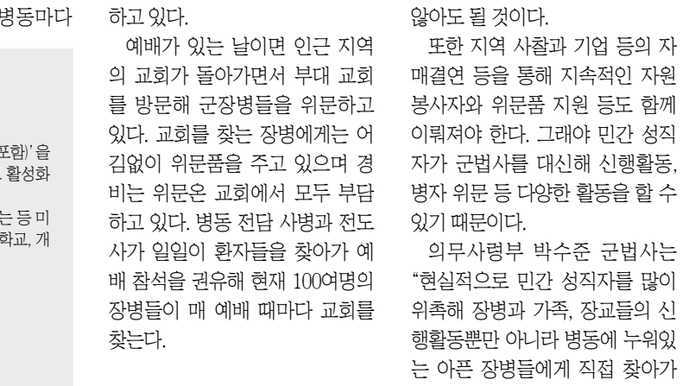
■찾아가는 맞춤형포교 바람직

군에서 '소외 지역'에 해당하는 군 병원 법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행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군법사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병원 법당마다 모두 군법사가 배치되어 법당을 관리하고 신행활동과 장병 위문 등의 활동을 펼친다면 군의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군의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 민간성직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인근 사찰의 스님이나 재가 포교사, 또는 전역한 예비역 군법사를 군병원 법당에 상주하는 민간 성직자로 위촉해 활동을 지원한다면 굳이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사찰과 기업 등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와 위문품 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민간 성직자가 군법사를 대신해 신행활동, 병자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사령부 박수준 군법사는 "현실적으로 민간 성직자를 많이 위촉해 장병과 가족, 장교들의 신행활동뿐만 아니라 병동에 누워있는 아픈 장병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포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인근 지역 사찰이나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속적인 위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군병원 법당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성직자 제도 확대, 지역 인근 사찰 · 기업 등의 자매결연 등이 절실하다. 사진은 의무사령부 박수준 군법사가 병실 장병을 위문하는 모습.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만사형통의 불화!


높이 88cm, 폭58cm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등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옵셋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도 물리치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관세음보살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소원 성취하리라!!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는 금강저도 부착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돼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 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훔 밸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달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훔**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룩되는 진리의 뜻을 담은 밸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훔자동밸트**는 밸트에서 원적외선과 멜토에너지가 발산되어 장과 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밸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파라미타 지도자 기본과정 직무연수 현장

좀 더 가까이 좀 더 즐겁게…

강의를 경청중인 선생님들.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신뢰감과 협동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임.

전국서 모인 교사 30명 봉은사서 3박4일 연수
명상 수련 · 상담론 · 지도안 작성 등 체험
친교활동프로그램 통해 눈높이 교육 필요성 느껴

"자, 두 명씩 서로 마주보세요."

1월 10일 서울 봉은사 선불당. 선재이벤트 이성훈 대표(41)의 말에 따라 주황색 수련복을 입은 30명이 주위 사람들과 짝을 이루기 시작한다. 같은 성(性)끼리 짝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성끼리 짝이 된 사람들은 조금 어색한 듯 멋쩍은 웃음을 흘리기도 한다.

"이제 짝의 손을 잡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 칭찬해보세요."

한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참 잘생기셨네요"라고 말하자 이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라는 화답이 돌아온다.

칭찬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사람, 파안대소를 하는 사람. 어색함은 멀찌감치 사라져버리고 선불당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전국서 교사 30명 청소년 포교 위해 모여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이하 파라미타)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봉은사에서 지도자 기본과정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도자를 3단계(기본, 전문, 최고과정)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연수를 처음 실시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30명의 유치원 · 중 ·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의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종교의 역할' 강의와 청소년 상담론, 청소년 명상수련,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및 지도안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10일 열린 '친교활동프로그램' 강의는 청소년들과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열기가 높았다.

▶동심의 세계 직접 체험

"푸른 하늘 은하수~."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들이 동요에 맞춰 손바닥을 부딪친다. 학교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일지 몰라도 여기서는 말 잘 듣는 학생일 뿐이다. 잠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어 본다.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말로만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게임을 직접 해봐야 진짜 눈높이가 됩니다. 다시 상대방의 손을 잡아 보세요." 이성훈 대표의 주문에 따라 선생님들은 마주보며 손잡고 일어서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잇달아 들렸다.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서로간의 신뢰감과 협동심을 강화시켜 줍니다. '왕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요즈음 필요한 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있어야 내가 있듯, 너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임이다. 어느 한 조가 여러 차례 실패한 뒤 성공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미순(서전주중학교 · 45) 선생님도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연수에 참가했다.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한 청소년기에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그러기에 그는 파라미타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개발 등 과제 많아

파라미타는 현재 전국 시도에 10개 지부와 15개 지회가 설립돼 있고, 350여개의 분회, 2만여 명의 회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만족할만한 모습은 아니다.

김애숙(울산 문수고등학교 · 53) 선생님은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먼저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또한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파라미타 사무국의 조한곤(38) 과장 또한 "종단과 포교원 및 산하단체와 연계 없는 활동은 어렵다"며 "교사불자연합회나 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포교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수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은 2007년 1월 전문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최고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또 2007년부터는 각 지부에서도 기본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부여된다. 파라미타는 최고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에게 강사 자격증을 주는 등의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눈높이 포교를 위해 잠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연수는 강의와 체험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라

경제계 화두 운니지차(雲泥之差), 양극화 지적
높은 실업률 이면에는 가정 · 개인 문제 연결

(기획연재) **불교와 경제**
① 생활경제 속에서 불교를 찾다
② 인생을 경영하라
③ 불자CEO에게 듣는 자기 경영법

잠자고 밥을 먹는 일, 시장에 들러 찬거리를 사거나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 우리삶의 모든 활동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경제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념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의 경제관념과 생활은 어떻해야 할까. 불교에서 그 지혜를 배워보자.



그림 · 박구원

불교서 경제 따지는 현실에 대한 의문
"부정적 입장 견지하는 종교 인식" 잘못
부처님, 안목없는 사람에 사분법 제시
자리이타 · 나눔 등 지혜의 경제 일깨워

경제에 관한 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람들의 움직임과 생각 하나하나 경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부터 지역,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경제이다.

국내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운니지차(雲泥之差)'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기업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의 운니지차는 2006년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세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면서 정부를 비롯한 민간연구소들도 올해 성장률을 5%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임금격차 확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사회보장비 삭감, 고령화 급진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경제문제의 범위를 좁혀가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드러난다.

#잘 벌고 잘 쓰는 법

서울 도선사에 다니는 오순영씨(37 · 서울 상계동)의 생활 면면에도 알게 모르게 경제논리가 작용한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오씨는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제 소식은 대충 훑어보거나 흘려듣기 일쑤였다. 나, 내 가정과는 동떨어진 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반면 오씨는 남편과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꼼꼼하게 가계를 챙겼다. 기초생계비를 비롯해 아이들의 양육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졌다.

신행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오씨는 신행생활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선사에서 보내온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불교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초와 향을 사서 불단에 올리고 시주금을 내는 일까지도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었고, 오씨에게는 가정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한 분야였다.

순간 오씨는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됐다.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교는 수많은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세계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어 풍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데 불교는 되레 그 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를 욕망을 부정한 무소유의 종교로 이해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종교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은?

부처님은 재산을 얻거나 늘이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증식의 방법을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이를 두 눈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목이 없는 사람과 안목은 있으되 식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각각 눈먼 사람과 한 눈만 있는 사람으로 비유했다. 이는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되 바르게 벌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수입을 생계비와 생산비, 저축, 여윳돈 등 으로 나누어 사용하라는 사분법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불교의 경제논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자리이타와 나눔, 회향의 가르침은 바르게 쓰는 법을 일러준 지혜의 경제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경제관을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불자들도 있다. 불교학을 전공한 김효주(42 · 부산시 명륜동)씨는 지난해 경전에서 사분법을 접하고 가정경제에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효과는 너무 좋았다.

전엔 여섯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저축은 물론 여윳돈을 가질 없었지만, 사분법을 적용한 뒤부터 저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진우(47 · 청주시 우암동)씨는 큰 효과는 얻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사분법을 가정경제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다. 저축비중이 높았던 예전과 달리 생계비와 생산비, 저축의 비율을 어느정도 맞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윳돈을 굴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정진우씨는 사분법을 통해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교에서 경영법을 찾은 것 외에도 스스로 자신을 경영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경제의 출발점을 자신과 가까운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교의 경제관은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적용돼 실증받은 바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개인, 가정의 담을 넘어 기업으로,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연(蓮)국수



연잎향기 가득한 연국수는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을 사용하여 재래식 방식으로 한올한올 정성 들여 면을 뽑아 옛맛을 재현한 고급 손국수입니다.
건조와 숙성을 반복하여 쫄깃하고 감칠맛이 나며, 무표백 무방부제 무색소의 완전 무공해 고급식품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격 3,000원

분다의 경제학 (1)

돈을 위해 산다고?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대박 터뜨리세요."

이런 말들이 아마도 새해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덕담이고 인사일 것이다. 몇 해 전 '부자 되세요'라는 모 금융회사의 광고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부끄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민망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되바라진 광고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인사가 되어버렸다.

돈이야말로 내가 움직이고 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문의 윤리로까지 승화된 듯하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산다"라는 말을 부정하면 위선이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이 아닌 그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거나, 정치가이거나, 정신이상자라고 간주한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온갖 노력을 다해 벌려고 하는 돈을 가지고 막상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돈을 벌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궁색하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돈을 잔득 쌓아 놓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그럴 듯한 변명 중의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사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선(善)이 되었다. 어떠한 과정을 밟든 돈을 벌게 되면 존경 받고 힘을 가지게 된다.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무시의 생각이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돈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동료를 속이는 등의 이야기는 너무나 소박한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경제활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는 부(富)와 재(財)를, 보다 직설적으로는 돈을 경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부모, 아내, 자식, 그리고 남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경계하고 있다.

즉 일정한 윤리 규범에 따라 재산의 획득을 추구해야 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정당한 법에 따라 재산의 증대와 축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행위가 '해탈을 위한 수도'라는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참다운 뜻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과 윤리' 보다 돈의 현실적 가치 크게 부각
어떻게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까 고민해야
경전은 윤리규범에 따른 재산 증대 축적 강조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한때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 경제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비하했던 적이 있었다. 단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 있고 다른 가치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냉소하면서 붙였던 말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로 우리야말로 경제적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그 과정이야말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한 달에 한번 만이라도 생각해보자.

오직 돈만을 추구해온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

■구병진(경영학 박사)



구병진 박사는 서울대 경영학 박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초빙교수,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강사로 출강했으며,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실장, 다산캐피털 대표이사, 푸른1318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쳐 실물경제 분야에도 정통하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 문의전화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시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광짝,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각시식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충	전
식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학인스님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제2기 범음범패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천도재,천수바라작법
011-9601-66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秘法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작용법(瓶)
2 달마사연 장중도법(道)
3 빠른 명상법(禪)
4 돌아가신 조상,무덤 보는법(業)
5 빙의,정신병 치유법(薦)
6 영가천도비법(薦)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010-3189-3525
경남의령 해용사 -법 경-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승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역학방문지도
명리학, 관상, 수리신점
초보에서 고급까지 창업책임지도
스님 특별대우
자연이치가 곧 명리이다
해임법사 ※전화상담환영※
02)3437-8433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 한세트, 조끗이 180개
• 대불 모실분에게 3,000만원 드리겠습니다.
• 꼭하실분만 연락요망.(2회 분할가능)
054)853-3855

건강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수행승입니다
산중 빈토굴이나 빈집 지켜드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6510-9494

출가 3년미만의 사미, 사미니승 각 한분씩을 모십니다
(45세 미만의 남녀출가 희망자 가능)
02)577-0007
011-354-8484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의식여법하게 하실 부전스님, 기도스님 (백일기도가능) 비구스님 모십니다
063)564-2861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미국가실 비구,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김포 위치
011-688-66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대 비구승 혼자거주함
지장도량 법정사(경남 가천)
011-529-3713
055)835-9448
꼭 인연되고 싶은 보살님 전화주세요

비구니스님구함
수행할 스님 구합니다
비구니스님(행자)
되시고자하는분도 연락주세요
010-8678-5442
051)248-24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40~50대 숙식가능한 분
보시금 월 100만원
011-584-353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493-11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0세
보시금 80만원
010-7160-27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723-0967
031)584-15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가하실분 가능)
나이제한 없음
▷경기도 지역
02)575-8000

경기 이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632-1141

비구 부전스님,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영주
054)744-1008
011-744-165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259-5989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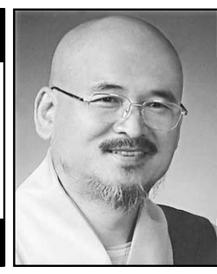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예비스님, 남·여]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안전성검사 : 시험번호 제 G02128호
● 상표등록번호 : 40-2001-0031242
● 구입문의 : 성모암 (063-544-0416) 법연 스님 (010-9282-0733)
● 특별판매가격 : 125,000원(100㎖×60포)
◎ 본 제품판매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금에 사용됩니다.

민족사 이전 안내

도서출판 민족사 입니다.
2005년 12월 17일(토)부터 민족사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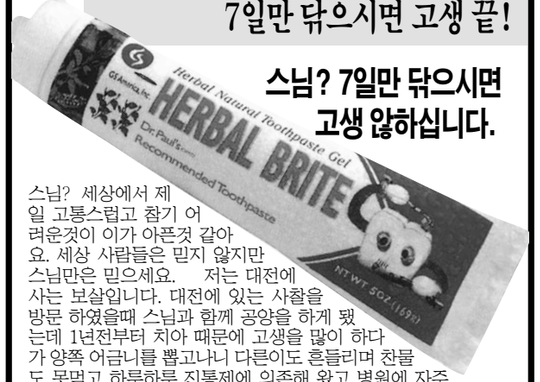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10호

전화번호는 변경 없습니다.
02)732-2403~4

도서출판 민 족 사
윤재승 합장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동해안	● 위치: 충남	● 위치: 전남
● 법당: 25평	● 법당: 15평	● 법당: 18평
● 요사: 50평	● 요사: 30평	● 요사: 37평
● 부지: 270평	● 부지: 3,000평	● 부지: 15,600평
● 가액: 6억	● 가액: 3억5천	● 가액: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김해시내사찰 -25억
명당,납골당절치
2.서울시내큰사찰구함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 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 사무장 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근교
● 평수 900평정도, 실평수 2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총각 2평 요사채 방6개
조방시설완벽
● 특징: 부산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 요세의 사찰임
사찰연역 약 60년 도량
● 가액: 5억
010-4877-59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중산리
● 토굴 기도처
암자110평
상,하채
● 가액: 6500만원
011-827-81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 600평
법당 : 25평
요사 : 37평
● 가액 : 3억
055)271-8496
011-768-8744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영도
● 평수: 82평,법당: 23평
● 법당내 단청
요사채 1층 28평
요사채 2층 23평
※ 5대이상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비구니스님 좋은조건해드립
016-637-6144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 임야 13,000평. 과수원 4,300평
대지 100평
● 남향 주택 30평 (황토방 있음)
● 가액 : 6억5천만원
※산머루, 옻나무 심어져 있음
산에는 밤나무
정원 잘 꾸며져 있음. 누각 있음
011-232-1993

토 굴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통
고속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전체평수: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4평
황토2중 흑벽돌집
● 신축한지 1년
토굴 또는 별장으로 적합함
부처님 신중탱화등 다 모셔져있음
● 가액: 1억7천만원
016-337-973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소재
● 부지 : 30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청)
● 구법당 15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 기타 : 산신각,석등
● 가액 : 2억 9천
● 백년고찰로 산세 계곡이 아주 좋음

● 위치: 경북의성군 소재
● 부지 6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임법당)
● 산신각 3평(목재)
● 가액 : 5천 2백만원
● 특징: 관리자가 없는 문화재 (석불) 문화재가 인정해 있음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영덕 풍력단지 내
영덕대게 특구지역
● 평수 : 940평
전용허가 200평
● 진입로 포장
상수도 완비
010-7109-328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2-60호
당고개역에서 1분거리
● 법당 : 실평수 18평
1층 반지하 17평, 옥상 다락방
● 부지 평수 33평
※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뉴타운지역으로 허가됨
● 가액 : 3억 3천만원
02)939-2809
011-894-2809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신도시. 위치 좋음
● 평수 : 38평, 1층
● 가액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 즉시 법회 가능시설. 일체 완비
010-3993-5270

포교원안내

● 위치: 동국대역 5분거리
● 건평: 실평수 25평, 옥상: 50평 사용가
● 법당1 방 2
● 보증금 : 천이백오십만(12,500,000)
월세 60만원(전기수도냉난방포함)
● 즉시 입주가.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3021-242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 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소재
● 법당 : 70평
● 특징 : 교통편리, 건물3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건물 : 요사채, 법당 : 45평
● 특징 : 소원불, 800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우체국옆
● 시설(40평), 법당, 삼존불,
각탱화, 방2, 부엌,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협의절충
016-542-105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남영으로 자리한 명당의 아늑한 전통한옥으로 꾸며진 법당과 요사채
● 잔디와 한나무가 잘가꾸어진 정원 포장된 주차장을 함께 포함한 일체형 토굴입니다.
● 특징 : 산으로가 있는 산을 오르면 낙동강이 펼쳐진풍수지리상 명당입니다.
● 평수: 170평 ● 가액: 1억9천만원
● 꼭필요한분만 전화요망
011-245-5467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포교당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
5평7층건물중 5층
● 시설위치 A급
● 법당, 사무실, 공양간,
방4, 목욕탕, 화장실2
실내 소각장 완비
● 가액: 추후 결정
011-749-4553

암자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 대지: 80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스님방
● 가액: 1억5천만원
017-563-11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암자안내

● 위치: 전주시 화산공원내
● 평수: 건물 35평
(법당,대중방,주지실,
입식주방,목욕탕)
외 산신각
● 토지는 제외
● 가액: 2천6백만원
010-6657-0733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부근 3층 45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방2개,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시설비1700만원
051)516-9518
011-551-9517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3천5백만원
● 가액 :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암자 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지
● 임법당, 정원 및 텃밭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1년에 3백만원
017-813-9126

사찰터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면목역도보 10분거리
● 평수 : 4층건물, 3층 약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창고,주차장,환기시설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271-7603

포교당안내

● 70평의 포교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비구비구니스님 인연기다립니다
● 위치: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상가
3층, 평수: 70평 옥상 30평사용
● 법당: 24평 삼성각: 6평
방3개 접견실2개
책임지고 잘 운영하실분이나
같이 운영하실분, 양도도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별도 협의
018-212-38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마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160-2734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불교문화재 9점 등 36점 전 세계에 1년간 소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한국의 대표 유물 36선을 선정, 아리랑 TV 해외위성방송을 통해 1월 5일부터 일년 동안 전 세계에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 삼성문화재단 · 아리랑국제방송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번 문화유산 해외 홍보 프로그램의 명칭은 'National Treasures of Korea'로, 채널 Arirang TV Korean(국내 케이블)과 Arirang TV World 1(아시아, 유럽) Arirang TV World 2(미주)를 통해 유물별로 6회씩 하루 18회,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1800회 방영된다.


한국의 대표유물 36선에 선정된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방영되는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유물 24선과 삼성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2선이다. 이 가운데 불교미술품은 달마도 · 연가칠년명금동불상 · 감산사 미륵보살 · 경천사10층석탑 · 천흥사종 · 반가사유상(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도 ·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 금동신묘명삼존불(이상 삼성리움박물관 소장) 등 9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중국과 일본의 유물과 차별성이 있어 우리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국 최고의 걸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70세이상 고령자 궁 · 능 안내지도위원 채용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궁 · 능 관람서비스 개선 및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관람안내 지도위원'을 채용한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정부부처에서 공개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이번에 채용되는 관람안내 지도위원은 창경궁 · 덕수궁 · 종묘 · 서오릉 · 선정릉 등 모두 5개소에 배치돼 관람 안내 및 질서유지 계도, 수표업무 보조, 문화재 지역 환경정화 작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궁궐지킴이, 문화유산해설사 등으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해당 궁 · 능 근무경험자 및 교사 경력 소지자를 우대 선발한다. 채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궁능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며, 접수는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교육관에 있는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에서 받는다. (02)3701-7570

해외 저명 불교학자 '장서'

금강大 · 가산硏에 온다

국내 불교학계에 귀한 불교학 자료들이 다량으로 속속 반입되고 있어 불교학 연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지난해 7월 작고한 독일의 저명한 불교학자 하인즈 베헤르트(H. Bechert) 교수가 남긴 장서 2만여 권을 인수키로 했으며, 금강대(총장 직무대행 조성환) 또한 독일의 한 전문사서 펠릭스 에르프(F, Erb)씨로부터 소장 도서 5천여 권을 최근 사들였다.


하인즈 베헤르트 교수.

독일 괴팅겐 대학의 베헤르트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곰브리치(R. F. Gombrich) 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기 팔리어 불전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인물이며, 에르프씨는 대표적인 인도불교학 연구거점인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인도철학과 전문 사서로서 중관학 전공자다. 두 사람 모두 불교학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서 이들의 소장도서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택의 서가 두 곳과 괴팅겐 아카데미 등에 장서가 보관돼 있는데, 그 길이만도 100m(5단 서가)에 달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측은 대략 2만여 권으로 수량을 추산하고 있다.

그의 장서에는 팔리어 ·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 원전 자료는 물론 18~19세기에 간행됐으나 지금은 절판돼 구할 수 없는 서구의 불교학 연구서가 수두룩하다. 또 경전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필사본 자료도 다수 들어 있다. 특히 50~60년대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수년간 체류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적도 있어 희귀 자료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월경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가 도착하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소장 도서 규모는 3만여 권으로 크게 늘어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실장 현원 스님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한역 · 티베트어역 · 팔리어역 대장경 등 원전 중심인 반면, 이번에 들여오는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는 2차문헌과 18~19세기의 서구 불교학연구 초기 도서가 다수 들어있다"며 "내용과 성격상 균형 잡힌 자료 보유가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목록작업을 거쳐서 불교학연구자들에게 자료 열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교학 관련 자료가 빼곡하게 꽂혀 있는 하인즈 베헤르트 교수의 서가.

금강대가 최근 들여온 에르프 박사의 장서에도 귀중한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70 · 80년대 불교학을 공부했던 에르프 박사는 불교학연구자의 길을 접고 전문 사서로 남기로 결정, 책을 매각했다. 에르프 박사의 장서에는 티베트 불교관련 개인전집류 등 절판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다. 금년 가을 개관되는 금강대 불교학 도서관에서 에르프 박사의 장서를 만날 수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나 금강대의 경우에서 보듯 전문 연구자의 개인 장서를 통째로 구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서 확보 방법이라 할 만하다. 절판돼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된 많은 책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연구자가 자신만의 안목으로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구해온 자료를 일거에 사들일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미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인 장서를 사들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창가학회 또한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를 사들이기 위해 유족에게 거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먼저 신속하게 움직인 덕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장서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연구원은 "역사가 짧은 도서관이 오래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명학자의 장서를 기증받거나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불교학 연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강大 전문사서 에르프씨로부터 5천여권

가산硏 불교학자 베헤르트 장서 2만여권 인수

절판 · 희귀 서적 확보 … 불교학자들에 '공개'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6>

불확정성 원리와 제행무상

20세기 초, 코펜하겐의 보어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발표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때였다. 독일의 하이젠버그라는 젊은 과학자가 이러한 이론의 물리 · 수학적 의미에 대해 보어와 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은 과학사에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아있다.

이 토론의 결과 26세의 하이젠버그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불확정성 원리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실험적으로 입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빛을 쪼여주면, 입자의 운동량이 변해 있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양을 알 수 없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이 발견은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사고까지도 바꿔 놓았다.

입자 위치 · 운동량 동시에 측정 불가능 존재와 존재 사이 변치않는 순간 있는가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떠한 것이라도 본질을 알 수는 없다. 알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본질을 바꾸기 때문이다. 과학적 측정은 본질을 아는 것이라기보다 본질이 우리의 측정 행위(혹은 사고행위)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치 스프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늘여서, 이 스프링이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는 초등학생과 같이, 우리는 항상 분자를 알기 위해서 분자를 늘이거나 줄이거나 한다. 우리가 보는 꽃 역시 꽃을 본다기 보다, 꽃의 표면에 빛을 쪼여서, 이 빛이라는 에너지 덩어리에 반응하는 꽃 표면의 분자(마치 스프링과 같은)의 늘어짐에 의한 반응을 반사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낸 오류라고 하는 편이 옳다. 오로지 측정에 의해서만 존재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존재의 모습이다. 마음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불교의 유심론의 손을 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설파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모든 행에서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가르침에서 불교의 허무주의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제행무상은 바로 2500년 후, 하이젠버그가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와 상통하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우주 존재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존재와 존재로부터 일어나는 상호 관계들이 어느 한 순간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변화하는 자체가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도 명료한 가르침인가.

이러한 존재원리가 '나', '나의 소유', 그리고 '절대'라는 개념들이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 낸 부질없는 오류인가를 성성히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마음이 허덕일 때, 가만히 앉아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 아니 우주의 존재 원리를 체득하도록 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일만배』 절수행 동참안내

절 수행으로 불자의 근본인 신심을 키웁니다

• 때 : 2006년 1월 21일(토) 0시부터 ~ 24시까지(금요일 오후 11시까지 도착해야 함)
• 장 소 : 도솔산 도피안사 아라한전(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 지 도 : 덕암거사 박종린 법사(동국역경원 역경위원 016-204-4744)
• 동참금 : 50,000원
(또한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삼천배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삼천배 시작 한 시간 전까지 도착 요망. 동참금 : 20,000원)

불교신앙은 부처님 자비광명이 실재함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수행정진을 통해 끊임없이 그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는 자기극복을 위한 공부, 용맹정진이 있어야 합니다.
일심으로 절하면서 염불 (나무아미타불), 염송 (마하반야바라밀)하는 용맹정진의 절수행은 자신의 참된 성품인 부처님께 예배공경하고, 업보업장이라는 한국불교의 굴레를 한 달음에 벗어나 모두를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인도하는 뛰어난 수행법입니다.
이러한 절수행의 용맹정진을 통해서 자기극복을 이루어 삼매를 닦아 얻으며,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나태와 방종을 물리치며, 환한 얼굴과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어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하는 일마다 충실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생명 부처님무량공덕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다국토 성취한다

연락처
• 전 화 : (031) 676 - 8700 • 전 송 : (031) 676 - 8704
•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 E-mail : dopiansa@kornet.net

다시 보는 화제의 신간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고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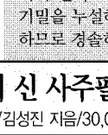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 50,000 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일 주 문



법주사 어린이 한문학당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월 · 금요일 오전 10시 법주사 설법전에서 어린이 한문학당을 운영한다. (043)543-2776



제4교구 유치원 교사 수련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제4교구 유치원 교사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33)332-6661~5



금강산림 대법회에서 법문

하동 칠불사 주지 통광 스님은 1월 19일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되는 금강산림 대법회에서 초청법사로 참석, 법문한다.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황사에서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를 연다. (061)533-3521



불레협 제1회 지도자 연수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운광 스님은 1월 2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1회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광주에 선원 개원

광주 자비선원 주지 부민 스님은 1월 21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장동 로타리에 선원을 마련하고 접안 및 개원식을 봉행한다. (062)228-7701



금강불교신문 부사장겸 주필에

이은윤 前 중앙일보 편집국 종교전문위원은 1월 12일자로 천태종 기관지인 금강불교신문 부사장 겸 주필에 임명됐다.



재부 호남향우회 신년하례회

맑고향기롭게부산모임 박수관 본부장 겸 재부 호남향우회 회장은 1월 10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재부 호남 향우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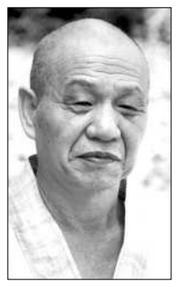
공불련, 재경지역 신년하례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1월 20일 오후 7시30분 서울 구룡사에서 '재경지역 병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02)739-1080



대불청, 제50차 대의원총회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은 1월 22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02)738-1920



오현 스님 시조부문 한국문학상 수상

오현 스님(속초 신흥사 주지 · 사진)이 지난 12월 26일 제42회 한국문학상 시조부문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세계시조사랑회 이사장이자 계간 <시조월드>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현 스님은 <심우도> <절간이야기> 등을 발행한 시조시인이다. 스님은 현대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남명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문학상은 1964년 한국문인협회가 제정한 상으로, 등단 경력 30년 중진 중 창작 활동이 우수한 문인에게 시상한다. 강지연 기자

"월드컵 우승~불심 응원하러 가요"

연예인 법당 건립 발원 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

2006 큰일 준비해요



대한불교 가수회 김흥국 회장(사진)이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독일 월드컵 우승 기원이다. "16강 8강 4강의 신화를 써내려갈 우리 선수들이 분투하는 그 현장에 응원하러 갈 생각"이라는 김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새 앨범 'Soccer Dance 으아'에 이미 월드컵 응원곡으로 사용할 'soccer song'을 수록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축구사랑모임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흥국 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며 "우리 모임의 아리랑응원단도 독일 월드컵 그 역사의 현장을 같이 만끽하고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응원뿐만이 아니다. 독일 교민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동포애도 나눌 계획이다.

"대한불자가수회가 올해로 15년이 됩니다. 매년 양로원 군부대 교도소 위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호주 시드니나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해피타임'과 SBS 러브FM의 '김흥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를 진행, 인기를 얻고 있는 김흥국 회장은 올해 할 일이 또 있다. 대한불자가수회 기반 마련에 매진할 생각이다. 젊은 불자 가수들을 찾아내도 이들이 모일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해 지속적인 참석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 연예인들이 모일 수 있는 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회장은 해야 할 일로 원로불자연예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인연 있는 사찰에서 명절 때에라도 원로불자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단 차원에서 연예인들이 개인 신행만 하지 않고 포교 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사음악회 출연 섭외에 대해서도 김흥국 회장은 "사찰에서 알음알이로 가수들을 섭외하지 말고 대한불자가수회를 통한다면 불자 가수들이 대한불자가수회로 모여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49가지 서화로 보는 중국전' 개최

中 서예 · 도각 전문미술사 쟝루이펑씨



"제 이름이나 유명세가 아닌, 한 국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에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머문 두 달여간의 시간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촉망받는 서예가이자 도각(陶刻) 분야 전문 공예미술사인 쟝루이펑(蔣瑞峰, 30 · 사진)씨. 22살의 나이로 중국 최대 철강회사인 보산철강의 벽화를 그리는 등 유명세를 탔던 쟝씨가 한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1월 26일까지 서울 청운동 산지우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화전 '49가지 서화(書畵)로 보는 중국전'. 이를 위해 그는 지난 두 달여간 한국에 머물며 작품을 완성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의 세습화와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부(富)'와 '자연'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해 봄으로써 인류가 타고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번 서화전에서 상형문자인 동파(東巴)문과 백화문, 간자체 등 다양한 서체를 선보이는 동시에 직접 제작한 자사(紫砂) 화반과 도각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한국학연구소 박현 소장은 "전시를 통해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월 20일에는 서화전을 책으로 엮은 <중국을 이해하는 49> 출판기념회도 열릴 예정이다. (02)720-5634 여수령 기자

불교 군종장교 도입 결정한 최영희 장군 타계

성불회 결성 군포교 활성화에 큰 족적 남겨



국방부 장관 시절 불교 군종장교를 처음 임관시킨 최영희(崔榮喜 · 사진) 장군이 1월 11일 순천향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1921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 장군은 46년 임관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보병 1사단장과 8사단장으로 많은 전공을 세웠다. 60년 육군참모총장과 연합참모부 총장을 거쳐 61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고 68년 국방부장관 제7, 8, 9, 1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시절 불교 군종장교 도입을 결정해 5명의 군종장교를 임관시켜 기독교 위주의 군종업무를 개편, 군포교의 초석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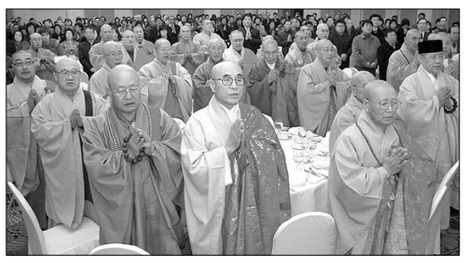
전역 이후에는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장성불자연합회인 성불회를 결성, 1995년부터 회장 소임을 맡으며 충정사 운영, 군불자 위문, 전몰장병 천도재 등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훈 · 포상으로는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 금성충무훈장, 은성을지훈장 등을 받았으며 유족으로는 최원남씨와 6녀가 있다.

영결식은 13일 서울 국립 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엄수됐으며 이날 오후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됐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이 · 취임식



태고종 제주교구는 1월 4일 제주시 칼호텔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종무원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6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상허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제주교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종무원장 · 단기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불교신문

중신회 임원단, 동국대 일산병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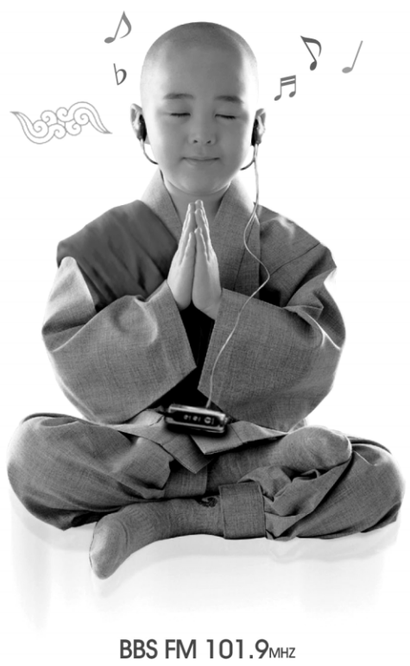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단이 1월 10일 동국대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김의정 회장, 손안식 부회장, 주양자 고문 등은 이날 동대 일산병원과 업무협조, 의료협의 등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의정 회장은 동대 일산병원에 입원중인 지율 스님을 방문, 스님의 건강을 빌었다.

불자 여교사회 마곡사서 자비명상체험



부산지역 불자 여교사회 회원 30명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주 마곡사에서 자비명상을 공부했다.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지도로 이뤄진 자비명상에서 회원들은 장애인 체험, 숲길명상, 유서 써보기 등을 체험하며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www.bbsfm.co.kr



BBS FM 101.9MHZ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 FM-89.7MHz
대구 FM-94.5MHz
안동 FM-97.7MHz
포항 FM-105.5MHz
청주 FM-96.7MHz
춘천 FM-100.1MHz

큰스님! 불교방송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즐거움, BBS 불교방송

세상 이야기, 음악 이야기, 문화 이야기, 시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BBS 불교방송
듣고 있노라면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귀를 뗄 수 없는 즐거움, BBS 불교방송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아침예불, 저녁예불
세민스님과 중앙 승가대 스님
05:00-05:30,18:00-18:15

경전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시간
05:30-05:50 / 월호스님의 능엄경강의

지광 스님의 지혜의 길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가르침에 대한 명쾌한 새벽 법문
05:50-06:00

불교강좌
불교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심을 높이기 위한 불교산책
06:00-06:20 / 김재성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BBS 불교방송



불자 세상보기

곽 대 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위문화 코드는 '평화'

두 명의 농민이 시위과정에서 사망한 지난해 11월의 여의도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1월 7일에는 전 · 의경의 부모와 전역자들이 평화로운 시위문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더 이상은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회성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성숙된 민주사회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존권이 직결된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행동을 보이는 시위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시절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가 이룩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사표현의 통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시위의 방법을 고수하는 일부 시위대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집회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무리하게 강경진압에 나설 이유가 없다.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전 · 의경의 사정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 · 의경의 부모들은 길바닥 한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가슴이 아리고, 방송화면을 통해 그들이 시위대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바라보면 자식 걱정에 온 가족이 서로 붙들고 운다고 한다. 이들이 거리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는 이 땅의 아들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 · 의경들이 강경진압의 멍에를 쓰고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반발심리가 깔려있다.

미국에서는 평화로운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0일에 25년만에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어떤 폭력도 없이 평화적 시위를 고수한 채 파업을 마쳤다.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원은 총포류와 같은 무기는 물론이고, 화염병과 같은 인명살상 가능성이 있는 흉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은 직업경찰관 가운데 별도로 선발해 훈련시킨 폭력시위 진압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일단 진압작전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체포한다.

우리 사회도 외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질서유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담당하고, 경찰과 평화로운 행사진행에 대한 '신사협정'을 맺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경찰은 폭력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에는 시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이 투철한 전문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시위발생의 원인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자신들을 대신해 전 · 의경들이 거리에서 시위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구경>의 한 구절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평화는 얻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비와 포용의 불교정신과 비폭력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불자들은 결코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2006년 새해에는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떨쳐 버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시위대의 안타까운 죽음도 전 · 의경 부모들의 서러운 눈물도 필요치 않는 평화로운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해 성숙한 시위문화가 참으로 절실하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대구지역 초중고 불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 모임을 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교육현장의 수장인 불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이처럼 뜻을 모은 것은 단순한 친선모임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그들을 정토건설의 보현행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뜻으로 보여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타종교의 청소년 선교전략은 전쟁차원에 비견될 정도로 결사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마저 틈만 나면 기독교인임을 공공연히 자랑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의지는 아직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대구 교장 교감들의 큰 서원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비해 그 활동이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지금처럼 스스로 찾아오는 중년이상의 부녀자층에 자족해서는 불교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단 구성원들의 위기의식과 순교적인 각오 없이는 이 땅의 불교미래는 희망을 걸기 어려운 것 또한 눈물겨운 현실인 것이다.

단순한 모임결성이나 법문을 들려주는 차원으로는 학생 청소년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모여들게 할 수는 없다.

종단은 물론 지역사찰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와 시대적 기호에 밀접한 교재연구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인터넷 세대인 청소년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며 자질과 꿈을 키워주어야만 학생 청소년 포교는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대구지역의 불자 교장 교감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서원한만큼 교육현장에서부터 포교의 새 기운이 싹터 오르길 기대한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공인의 자세

"집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월 10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 황 교수가 마지막까지 장담했던 '원천기술'도 "현재는 없다"는 것이 서울대 조사위가 밝힌 결론이다. 충격과 실망이 크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올린 두 논문을 완전한 줄기세포 없이 시험데이터나 사진의 조작을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논문 공저자 40명의 조작 책임과 가담 정도를 가려야 한다. 난자 채취와 사용 과정의 잘못도 밝혀야 한다.

황교수 관련 '논란'이 지난 연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이후 국내의 전반적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황교수 문제에 대해서 불교계 중진스님들도 "이번 황우석 교수 문제의 취재나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수도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즈메디에서 파견된 연구원이 서울대 연구팀을 완벽하게 속이고 실험결과를 제출했다"며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사안이기에 수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검찰수사가 남은 상황에서 황교수를 둘러싼 의견의 양분화는 극명해지고 있다. '황우석 사태'로 온나라가 들끓었던 50여일간 우리 국민이 최소한 얻은 것은 있다. 국민의 신망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공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다. 사회지도층일수록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진실만을 말해야 할 것이다.

■ 김주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사회봉사기간, 임무 부여해야

'Ⅰ vi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를 지킬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교와 신념을 근거로 집총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무함,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어감을 주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 개념을 확대하여 그들을 '병역거부자' 가 아닌 '대안적 병역희망자' 로 지칭하고, 예비역과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봉사기간과 임무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다만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사회제 계층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제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헌우(가톨릭대 2년)

병역거부 범죄 아닌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를 선언한지 벌써 3년이 되어간다. 대불련 임원시절 이라크전쟁반대 활동에 참여했지만 전쟁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그것을 겪어 보지 못한 내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과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입영일이 다가왔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의 선택은 '총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단된 한반도라는 상황 속에서 군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부처님 가르침 중 자비무적이라는 절대 가르침이 있듯이,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서 해결되지 않을까?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연구와 논의를 한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병역거부를 단순히 범죄가 아닌 종교와 평화를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신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나 역시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간과 강도에 관계없이 기쁘게 수행할 것이다.

김도형(목포 해양대 졸업)

행정적인 업무 맡게 배려를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다. 특히 대한민국 남아라면 꼭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신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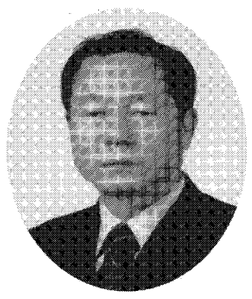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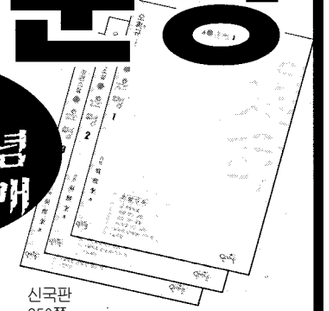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먼저 나라를 생각했으면 한다. 다만 국가에서도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총을 쏘게 하지 말고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맡게 하는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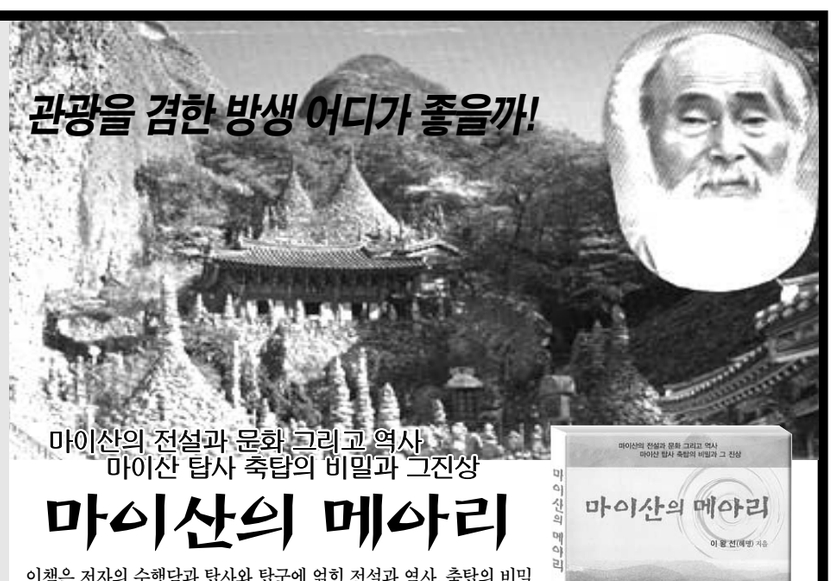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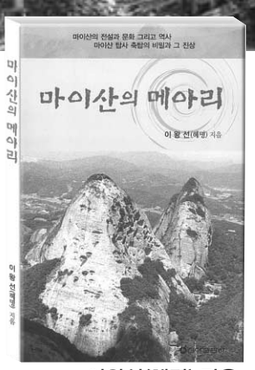
군인이라고 꼭 총을 쏘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서는 취사병, 복지회관 업무를 보는 사병 등 장병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군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같은 업무를 맡긴다면 군복무와 집총거부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김정훈(원주 한라대 1년)

'현대' 만평 심 민 섭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마이산의 전설과 문화 그리고 역사
마이산 탑사 축탑의 비밀과 그진상
마이산의 메아리
이책은 저자의 수행담과 탑사와 탑군에 얽힌 전설과 역사, 축탑의 비밀을 책으로 역은 것이다. 저자는 마이산의 아름다움, 신비스러움 불가사의 함을 이책에 담았다. 마이산 탑군의 지킴이로서 그간 소송 전말과 분쟁,소유권등 탑사에서 그간 일어났던 무수한 법정에서의 소송을 책속에 진솔하게 담았다. 또한 저자는 마이산탑사에서 태어나 조부인 이갑룡처사와 함께 지내며 조부가 탑을 쌓거나 수도하는 모습은 보아왔고 신비의 영산 마이산에 돌탑조성 과정도 그림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신아출판사‖값9,000원‖전화 063)275-4000, 252-5633


이왕선(혜명) 지음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40분 전주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대형사찰들 해외포교 팔 걷었다

美에 '뉴욕안국선원' 개원·능인선원 대학 추진
구룡사 NGO '붓다월드' 지구촌 누비며 구호활동

'세계화 시대에 국경은 없다'

일부 조계종 교구본사와 대형 사찰들이 새해 들어 해외포교거점 확보를 통한 해외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포교에서 소위 '명문'으로 꼽히는 이들 사찰들은 그 명성에 걸맞는 포교 경험과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찰은 간화선 수행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지난해 4월 미국 뉴욕 중심가에 '뉴욕안국선원'을 개원한 안국선원은 간화선 관련 강좌나 수행 프로그램 등으로 현지인 포교에 나서겠다는 방침아래 세부 운영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뉴욕 안국선원은 선불교 중심의 해외포교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됐으며, 안국선원 분원형태로 운영된다.

안국선원은 또 해외포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선연구원을 중심으로 영문불서 발간, 법문 번역 등의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여 년 간 해외포교활동을 벌여온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구룡사는 우선 지난해 출범한 NGO 단체인 '붓다월드'를 통해 지구촌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붓다월드'는 인도네시아 네팔 티베트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의 구호활동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후원활동에 적극 나선다.

또한 미국 원각사와 보광사, 호주 정법사, 인도 고려사와 녹야원, 설원사, 캐나다 대각사 등 직접 운영 또는 간접 후원하는 7개 사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해외포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도 본격적인 해외포교에 뛰어든다. 해외포교 가운데에서도 미국 포교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종교법인을 설립하고 뉴욕에 사무실을 낸 영남불교대학은 올해 포교 전담 스님 파견과 법당 건립 등 현지 포교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도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뉴욕에 불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능인선원은 현재 뉴욕주에 2700평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며,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문도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LA 금오선원 불사를 공식 지원하면서 해외포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한국전통사찰 건축양식으로 건립될 금오선원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법주사는 또 직접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역시 문도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LA 반야사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간화선 포교에 나설 뉴욕 안국선원 전경.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중국 정부 판첸 라마 띄우기?

국영TV 이례적으로 즉위식 방영
티베트서 열린 예불 1만여명 운집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제 11대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Gyaltsen Norbu, 16)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AFP 통신은 최근 중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기알첸 노르부가 즉위식을 가진지 열흘 만에 티베트 시가체시 타쉬룬포 사원의 예불의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허가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1만 여명이 운집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은 "판첸 라마가 티베트의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국영 TV는 예외적으로 노르부의 판첸 라마 즉위식을 방영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95년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계둔 최끼 니마가 실종된 후 기알첸 노르부를 11대 판첸 라마로 내세웠다. 중국정부의 노르부 띄우기는 달라이 라마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달라이 라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달라이 라마가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티베트 자치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러 칼미크 공화국에 대형 불상

높이 9m 유럽최대…인근에 불교단지 조성

러시아 남부 칼미크 공화국이 대규모 불상을 건립하고 불상이 들어선 곳을 불교단지로 조성하는 등 불교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칼미크 공화국은 지난해 말 높이 9m의 유럽 최대 불상을 수도 엘리스타에 조성하는 한편 이곳을 대규모 불교단지로 만들었다.

이번에 조성된 불상은 좌상으로, 불상내부는 금속과 유리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뒤 겉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불상을 봉안하고 법회를 연 모습.


이번에 조성된 칼미크 불교단지.

불상이 들어선 곳에 조성된 불교단지는 2000석 규모의 사원과 박물관, 콘서트홀, 도서관 등을 갖춘 유럽 최대 규모의 불교타운으로, 칼미크 정부는 이곳을 '유럽불교센터'로 명명했다.

칼미크 공화국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신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부차원에서 불교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칼미크에서는 12월 26일이 겔룩파 창시자인 라마 쫑카파의 열반일이자 성도일인 만큼 종교적 의의를 가진 민속명절이기도 하지만 해가 바뀌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에 맞추어 사원 개원식이 진행돼 일련의 축제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은희 기자

유대교회서 괴한 난동
러 불교회 폭력반대 성명

러시아 전통불교회가 1월 11일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유대교회에서 예배중 괴청년이 난입해 난동사건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불교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전통불교회 회장 판디토 함보-라마 담바 아유쉐예프는 12일 이타르타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교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내는 그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며 "이와 같은 폭력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범인은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은희 기자**

티베트 염불송 대가
2년 연속 그래미상 후보

티베트 스님의 음반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그래미상 후보로 올랐다.

이번에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음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티베트 염불송 대가인 타쉬 스님의 '티베트 승려의 노래(Tibetan Master Chants)'.

타쉬 스님은 음성에 놀라울 정도의 힘이 배어 있고 사원에서 염불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이 깊은 공명을 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쉐라빙 사원 스님 등의 그래미상 합창음반이 최우수전통음악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희 기자**

불교국 부탄, 군주제 폐지
2008년 민주선거 실시

폐쇄적이던 불교국가 부탄이 군주제를 폐지하는 등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부탄 국왕은 오는 2008년 국왕직에서 퇴임하고 첫 민주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AFP통신은 많은 부탄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무관심하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도입될 경우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은희 기자**

태국-인도네시아
종교 초월해 협력 모색

불교국가인 태국과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종교를 초월해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태국을 공식 방문한 데 이어 올해에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답방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은희 기자**

300년된 대장경 목판영인본 등
中 민족문화궁 불교유산 훼손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 있는 민족문화궁(民族文化宮)의 불교문화유산이 지하수장고를 지나가는 난방 파이프의 균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베이징의 '차이나 데일리'는 수장고 균열로 대장경 목판영인본이 2만여권의 고서들과 함께 물에 흠뻑 젖은 채 발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훼손된 불교유물은 300년된 대장경 목판영인본으로 중국에서 몇개 남지 않은 귀중한 문화재이다.

'차이나 데일리'는 민족문화궁(民族文化宮)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약 4만 5000~6만쪽에 달하는 대장경 영인본이 이번 사고로 훼손됐다면서 일부 페이지는 보존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내용을 인식해 필사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훼손된 고서들이 원형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으로 문족문화궁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민족문화궁(民族文化宮)은 베이징 최대 번화가 시단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실과 도서관, 오페라 극장까지 구비하고 있다. **이은희 기자**

불교 탄생지 보디가야서
세계평화발원 특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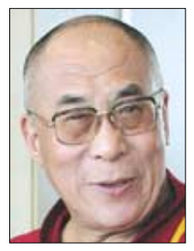
인도와 해외의 불교승려 수백명이 불교의 탄생지 보디가야에서 세계평화발원 특별법회를 열었다.

티베트 카규파의 정신적 지도자 제17대 카르마파(18)는 1월 7일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로부터 약 110 km 떨어진 마하 보리사에서 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카규파의 연례행사인 몬람 축제(Monlam Chenmo)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행사 관계자는 "세계평화발원 대법회가 보리수로 알려진 바냔나무아래서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기자**

인도성지 아마라바티에
국제불교연구센터 설립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의 불교성지 아마라바티에 국제불교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1월 9일 인도의 불교성지 아마라바티에서 열린 티베트 불교 법회 칼라차크라에 참석한 달라이라마(사진)는 "한 때 불교가 번성했던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 콘다에서의 고고학 연구와 발굴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마라바티는 뛰어난 학승들이 거주하면서 포교활동을 했던 곳이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이날 법회에서 "평화와 자비를 삶속에서 구현하는 불교야말로 치열한 경쟁세계에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여시아문

본래면목이 완전한 황금빛 그대여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재가자를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게송집 '황금빛 봉황이' 출간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구(死句)를 들고 어리석은 의심을 하고 있으나,
누구나 올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인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야 별 수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성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 고집을 높이 살 만은 하나,
그렇다고 공부되어진 것은 또 무엇인가.



수불 지음
안국선원 선원장

황금빛 봉황이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통신판매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Tel:02)2004~8220, 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나눔의 바퀴’ 굴리는 재미로 살지

폐지 모아 나눔 실천 김순태 할아버지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사람 마음 알아요”
14년째 파지 고물 수집해 판 돈으로 불우이웃 도와
할머니 잔소리에도 새벽 1시면 어김없이 동네 순찰
현재 84세… “지금70이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다. 주위 사람을 살피고 돕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김순태(84 ·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할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서 남돕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

김 할아버지는 14년째 파지와 고물 등을 수집해 이것을 판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설날과 추석만 제외하고 1년의 363일 계속 고물을 수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할아버지. 자기 부양능력이 없어 매월 3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소학교(지금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 그때부터 오늘까지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네 그려. 허허.”

그래도 김 할아버지는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막노동 등 이것 저것 안해 본 일이 없다. 한때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정된 생활도 잠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후배에게 가게를 맡긴 것이 화근이 돼 포목점 사업이 망해버렸다.

“가난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또 주위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공릉동에 살 때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가 이거야. 그래서 늦었지만 주위 사람들부터 챙겨보자는 생각이 들어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네.”

할아버지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1시. 자전거를 타고 우선 중곡동과 장안동 일대를 순찰(?)한다.

“1시가 넘으면 시내 곳곳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선 이 사람들을 다독여서 집으로 보내. 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자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주머니에 3만원을 지참하고 나간다. 택시라도 잡아서 취객들을 집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또 전화박스가 고장 나지는 않았는지, 공공기물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뒤처리까지 한다.

이렇게 순찰이 끝나면 할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작업을 준비한다.



두툼한 방한복을 입고 귀를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작업을 위해 2개를 붙여 만든 ‘특수제작’ 목장갑을 끼면 준비 완료다.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제 그만 좀 해요. 할만큼 했으니 좀 쉬세요.” 김금숙(78) 할머니의 잔소리다.

사실 할머니의 걱정은 올해 들어 더 커지고 있다. 할아버지의 무릎 통증이 더 악화되고, 폐지와 박스를 나르면서 종아리와 정강이에 난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갑을 끼고 있지만 이미 두 손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심하게 부어올랐다. 그러니 할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할머니는 “갈라진 손을 본드로 붙여 놨어요. 어떻게 본드를 쓸 생각까지 했는지 나참….”

그래도 김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나갈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든든한 내조 덕분이다.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켜봐 주었고 또 함께 절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와 남양주 불암사에 가. 거기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어”라며 웃는다.

할머니의 성화가 끝나면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폐지 수집이 시작된다. 거리에 버려진 폐지와 종이 상자, 우유팩, 신문 등이 차곡차곡 리어카에 실린다.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웃 주민 한기목(57)씨는 “할아버지가 워낙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음식재료를 담는 박스를 모아 뒀다가 한꺼번에 드린다”며 일손을 거든다. 이른 아침 출근길을 서둘던 공공심(44)씨도 다정하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넨다. 공씨는 “정말이지 김 할아버지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자 어느새 리어카에는 폐지, 박스 등이 수북이 쌓였다. 이것은 다시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돼 수거업자에게 넘겨진다. “폐지 수거 업자들이 값을 많이 쳐줘. 다른 사람들은 kg당 50원 정도 주는데 나한테는 75원이나 줘. 그러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이렇게 할아버지는 한푼 두푼 돈을 모아 그동안 중곡3동 지역의 불우시설과 독거노인들을 도왔다. 이웃 종교 시설인 ‘작은 예수의집’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년소녀가장과 어린이시설에도 의류와 학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 1월에는 동대문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의류들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또 중곡3동 동사무소와 공동으로 1년에 네번 정도 60여명의 중증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서울 시내 나들이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딱 70이면 좋겠어.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일이 참 재미있네.”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세월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김순태 할아버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갈 것 같은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오늘도 나눔의 리어카를 끌며 중곡3동을 따뜻한 마을로 만들고 있다. 소한(小寒)을 지나 대한(大寒)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김순태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천수경”은
우리 가슴속에 자리한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김호성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천수경의 비밀
견음신앙의 근본경전 신앙생활의 필수가 되어 버린
천수경은 불자님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경전입니다
천수경과 함께라면 당신도 이제 진정한 불교의 세계로 초대된 불자입니다.

민족사 732-2403~4 minjoksa@chol.com
철·우·스·님·이·풀·어·가·는·계·율·단·상
마음을 버리는 방법
영산율원의 철우스님께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삶 속에서 느낀 경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계율이야기

철우스님 지음 | 신국판 8,500원
풍족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의 복을 누리고 사는 지혜”
철우스님은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의 율주스님으로서
절은 스님들과 오래도록 한 회상에 같이 살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배움을 바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알기 쉬운 불교입문서에 유쾌하게 빠져봅시다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영석 지음 | 신국판 | 값 9,000원
불교공부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을 위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벗어버리는 책”이
1500만 불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불교 개론서처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망라하면서도
아주 읽기 쉽게 씌어진 교리와 수행의 핵을 짚은 불교입문서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1> 차가운 겨울 보름달 뜬 밤에

내가 머물고 있는 절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학캠퍼스가 있는 곳이다. 달 밝은 날이면 함께 사는 스님네들과 학생회관으로 가서 우동도 한그릇 하면서 보름밤을 완상하곤 한다.

마조 선사(709~788)도 무척이나 보름밤을 좋아하신 모양이다.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달밤에 밤마실 나간 것을 정리해 놓은 '마조가 달빛을 감상하다'는 마조완월(馬祖玩月)이라는 공안이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준다. 삼경인 아홉시가 지나면 모든 큰방대중이 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3인방을 달밤에 평대중 몰래 불러내어 데리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달을 바라보다가 말고 마조선사는 바로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달 밝은 밤에는 무엇을 하면 가장 좋겠는가?"

느긋하게 달을 보면서 흥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일격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서당지장(735~814) 백장회해(749~814) 남전보원(748~834)이 어디 보통 인물들인가. 가장 먼저 서당지장이 반격에 나섰다. 서당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동당의 주인인 마조에 버금가는 위치를 가진 지장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물론 나이도 제일 많다.

"공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正好供養)."

그렇다면 지금 우리처럼 야참을 즐기면서 달을 보는게 제격이란 말이지. 우리가 바로 서당지장의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적통의 제자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고지식한 율사기질을 가진 백장회해는 표정을 정돈한 다음 관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正好修行)."

어휴! 숨 막혀. 그러니까 백장청규나 만들고 있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꼬장꼬장한 그 품새 말이다. 이를 곁에서 듣고 있던 남전은 소매를 뿌리치며 '쌩' 하고 바람소리를 내며 가 버린다. 혼자 따로 시킨 스파게티 잘못 먹고 설사 났나?

그런데 남전은 이번뿐만 아니라 늘 그랬다. 본래 좀 괴각기질이 있었다. 대답을 듣자하니 전부 '수준 이하인지라 같이 상종 못할 놈들(스승인 마조는 빼고)'이라고 구시렁거리면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스승인 마조는 모두의 답변에 흡족해 했다. 고슴도치의 제 새끼 감싸 안기는 아니겠지.

이 선문답을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든 선사가 서당지장이다. 달밤에 무슨 얼어죽을 도타령이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가 버릴건 뭔가. 그저 맛있는 것 먹으면서 음풍농월을 읊는 것도 제격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공양'이란 말에 뭔가 깊은 뜻이 있는건 아닐까? 고타마 선사께서 인행(因行)보살 시절에 나무 밑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때 나무위에 있던 원숭이들은 뭔가 좀 '튀는' 공양물을 올리고 싶었다.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물 속에 비친 보름달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 바로 저거야."

그리하여 원숭이들은 손에 손 잡고 아슬아슬하게 연못으로 내려갔다. 마침내 맨 끝의 원숭이가 달을 잡기 위하여 물 속에 다가 손을 넣었다. 그러나 물결이 흔들리니 달이 없어져 버렸다. 조금 후 잔잔해지니 또 달이 나타났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수십번 수백번 달을 건지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를 뒷날 선가에서는 '노월(撈月)'이라고 불렀다.

감상적인 '완월(玩月)'에서 방일하지 말라는 '노월(撈月)'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하긴 '월천담저수무흔(月穿潭底水無痕)'이라 했지. 달이 못 밑을 뚫어도 못 위에는 흔적이 없는 법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이렇게 달 밝은 밤에는 무얼하면 좋겠는가"
"공양을…" "수행을…" "…" 3인 3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등교사 '요가 연수' 체험기

요가는 '움직임'의 수행이었다. 부지런히 몸을 꼼지락대야 했다.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올리는 남세스러움도, 주책없이 터져 나오는 잔방귀도 감수해야 했다. 점잔 떨 요량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왜 이처럼 요가는 움직임을 강조할까? 어색하게나마 여러 동작을 따라 해보니 저절로 답이 나왔다. 몸을 움직이니 경직된 몸과 마음이 열렸다. 동작 하나하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느낌을 맛볼 수 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요가수행도 직접 몸으로 부딪쳐봐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움직임을 통해 고요함에 들어가는 요가 수행. 1월 10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연구소가 마련한 전국 초등교사 요가연수 현장에 달랑 운동복 한 벌을 들고 찾아갔다.



초등학교 교사 25명이 1월10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요가 연수에서 '태양경배' 자세 가운데 뱀모양 요가동작을 하고있다.

몸 움직이니 굳어있던 심신 열려

적절한 긴장 · 이완 · 호흡으로
순간순간 변화흐름 짚어내
초등생 대상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요가' 등 개발 '눈길'

 # '경험의 과학', 요가

"움직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직여야 느낌이 옵니다."

민망한 요가동작에 고개를 연신 떨구고 있을 즈음, 조옥경 지도교수는 기자에게 말을 던졌다. 온몸을 마루바닥에 널브린 25명의 연수생들 틈에 서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사실 엄청나게 겸연쩍었다.

적당히 망가질 생각으로 동작을 따라했다. 펴고, 꼬고, 늘리고…. 곧장 '뚝! 뚝!' 소리가 흘러나왔다. 에로틱한 신음도 곁들어졌다. 뭉쳐있던 근육은 요동을 쳤고, 뻣뻣한 몸 구석구석은 연신 당겼다.

요가. 몸과 마음의 총체적 계발을 통해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수행법이다. 적절한 이완과 긴장, 호흡이 핵심이다. 행법은 '다스림'에 있다. 굳은 몸을 부드럽게,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거친 숨을 섬세하게 다스리는 것이 요가수행의 고갱이다. 때문에 요가는 순간순간의 깨어있음을 강조한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라는 주문이다. 다분히 '알아차림'과 '정신집중'을 중시하는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닮았다.

"요가는 잠재된 생명력을 일깨우는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의 성숙, 그 꼭지점인 깨달음에 다다르게 하는 직관과 통찰력을 키우는 수행법인 거죠. 천천히 움직이면, 자신의 신심에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각 없는 요가수행은 기계적인 체조와 같다는 조교수의 설명. '자각'을 요가의 으뜸으로 친다는 것에서, 요가를 '경험의 과학'이라 부르는 까닭이 읽혀졌다.



어린이 요가의 한 방법인 '짝궁 요가'.

 # 천천히, 그리고 끝없는 동작의 반복

첫 동작은 태양경배 자세. 12단계로 이어지는 이 자세의 압권은 '뱀 자세'였다. 숨을 마시면서 발끝을 펴 발등을 바닥에 댔다.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골반을 바닥으로 밀어 내렸다. 뱃심으로 머리와 가슴을 들어올리니, 고개를 빳빳이 치켜든 모양새가 영락없는 코브라다.

"굳어있던 근육이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풀리지요. 발가락과 허리에서 전달되는 느낌을 관하세요. 바닥과 내가 완전히 연결됐는지도 살피고요."

조교수의 말마따나 자세가 완성되니 기쁨이 밀려왔다. 순간, 통증이 무심하게 다가왔다. 꾹꾹 참았던 숨은 탁 트였고, 토막토막 끊어졌던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호흡과 동작이 몸에 익으니 막혔던 느낌들이 솟아올랐고, 어느새 심신은 날개를 단 듯 가벼워졌다.

다른 연수생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쉬는 시간, 교사생활 4년째인 박수영(28 · 부산 문현초)교사에게 말을 걸었다.

"늘 움츠렸던 어깨, 거북이처럼 오그라든 목 등은 소극적인 사고를 하게 했어요. 요가 수행은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아요. 막힌 가슴을 뻥 뚫리게 했고, 억압된 감정, 일상의 번거로움을 단번에 걷어내는 기분을 갖게 한 거죠."

하혜영(37 · 울산 평산초) 교사는 요가를 통해 몸이 말하는 나를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 오는 느낌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마치 도구처럼 여겼던 몸을 하나의 주체로서 여기게 됐다는 것이었다.

 # 게임보다 재미있는 '요가'

이번 연수의 특징은 요가수행과 교육의 관계성을 모색한다는 점. 프로그램은 '학급에서 요가 활용하기' '짝궁 요가' '이야기 요가' 등으로 짜여졌다. 순전히 '어린이 요가'에 연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자, 연수는 '이야기 요가'로 이어졌다. 동화 줄거리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소재들을 요가동작으로 표현해내는 어린이 요가 프로그램이다. 요가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구연동화와 경쾌한 음악이 버무려진 점이 인상적이었다.

백선혜(38 · 안양 삼성초) 교사는 "지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학교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과로서만 학습을 평가하고 있어 늘 안타까웠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솔직해져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생활 20년째란 이경희(43 · 포항 이동초)교사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내는데 요가수행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자오락 게임과 TV 시청 등의 교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요가가 그런 문제를 해소할 것이란 확신이었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일승종
선 가 사
주 지 청감(송현출)
신도회장 최병일
신도부회장 김명자
총 무 이순권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내일이면 늦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707
TEL 053)781-2034
011-527-2034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숭림사 주지 지광
부회장 태봉사 주지 혜안
재 무 남원사 주지 영명
익산지역 32개 사찰 주지 일동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이의식
<신행단체 회장>
거사림(능인회장) 박중근
천천마한클럽 부회장 김한철
대 원 회 장 김덕순
가릉빈가 합창단장 문순복
삼천배 모임 회장 심 대원경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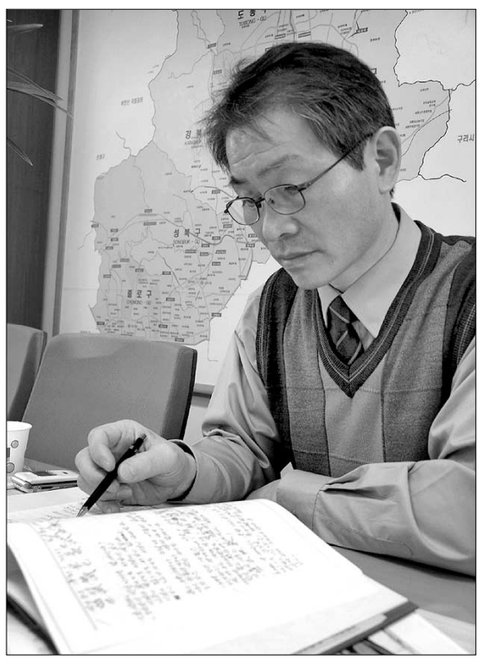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신행기록 어떻게 하세요?

'신행 고수' 김정흠씨에게 배우는 신행 다이어리 작성법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소중했던 경험도, 가슴 벅찬 감동도 기억 속으로 산화되곤 한다. 길을 걷다 떠오른 '기가 막힌'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다. 잠시 다른 생각에 이내 사라져버린다. 후회해도 이미 늦는다. 하지만 기록은 '과거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소중한 순간들이 오롯이 남아있고 현재의 내 생활을 반추할 수 있는 단서도 들어있다.

신행생활에서도 기록은 보다 알찬 공부의 토대가 된다. 신행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을 가져보자. '신행 고수' 서울북부도로관리사업소 김정흠 시설관리과(52 • 법명 수선)과장이 지난 5년간 써온 '신행 다이어리'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신행고수로 유명한 서울북부도로관리사업소 김정흠 시설관리과장은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자신의 신행생활을 정리하고 되돌아본다.

신행 다이어리, 왜 쓰나

"처음에는 내 공부보다 초심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갖고 있는 불교지식을 재점검하는 차원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들이 쌓이니까 그간의 신행생활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더군요."

1998년 서울 중랑구청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불자회 조직을 주도했던 김 과장. 불자모임을 꾸리다 보니, 공무원 불자 중 불교의 기초교리조차 모르는 초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10여년 신행생활과 교리공부를 병행해온 김 과장은 '초심자들과 함께 이야기할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초심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불교 용어 등을 메모해온 신행노트가 생각났다. 다시 한 번 노트에 옮겨 적고 자신의 생각도 보태 자그마한 신행 다이어리를 마련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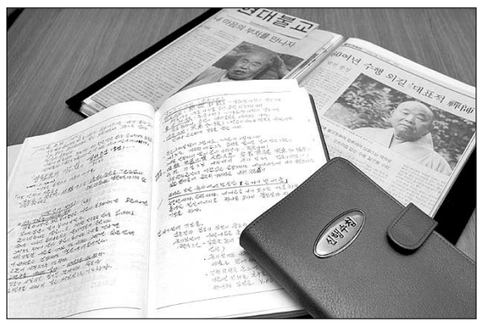
이렇게 쓰게 된 신행 다이어리가 결국 불자회 신행공부 자료로 변신, 초심자들에게 자상한 길잡이가 됐다.

단순 지식 쌓기에서 체험의 기록으로

불자들에게 교리공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신행 다이어리도 함께 갖춰줘야 한다. 혼자서 불교 공부를 하려면 '예 · 복습'이 잘 이뤄져야만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리공부를 제대로 해야 불자로서의 마음가짐도 올곧게 가질 수 있고, 이것이 토대로서 굳건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신행 다이어리' 쓰기 기본 원칙이다.

김 과장의 신행 다이어리 한 장을 열어보자.

"절이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 무상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으면 고통만 따를 뿐이다. …(중략)… 아상(我相)부터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이다. 절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완전히 잊을 수 있다."(2000년 12월 20일)



김 과장이 신행생활 틈틈이 적어온 신행 다이어리와 불교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는 신문 스크랩. 사진=박재완 기자

하루 공부량 정해 소감 적기…목적 분명해야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만큼 적어야 효과 높아

다이어리를 이처럼 기록하다 보니 지식만을 추구하던 메모습관은 자연스럽게 신행으로 이어졌다. 지식으로 '아는' 불교를, 몸소 '체험하는' 과정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다이어리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니 신행 다이어리가 나의 신행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초심자들을 위해 쓰기 시작한 신행 다이어리였지만, 결국 신행생활에 보탬이 된 것이지요."

김 과장은 신행 다이어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알려줬다. 매일 쓸 수 있는 분량만큼, 혹은 조금씩 공부하는 만큼 다이어리를 썼을 때 그 효과가 금방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하루하루 써나가는 다이어리는 산란한 마음을 다잡고 불교공부를 하는데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를 알아보는데도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수행을 할 만한 여력이 생기면 선방 스님들께 '화두'를 하나 달라고 청해서, 생각 날 때마다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메모 했다

신행 다이어리는 잘 써두면 향후 법요집, 참배 기행문, 불교의식집 등으로 쓰일 수 있다.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신행 다이어리 작성은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한다면 더욱 알차게 꾸릴 수 있다.

김 과장은 "일단 신행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서는 사경, 독경, 공부모임 등에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매일 간경 · 염불 등의 공부량 정하기 △공부소감 적기 △신행 체험담 쓰기 등을 기록할 것도 함께 주문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사경해 놓으면 작은 '법요집'으로 쓸 수 있다. 사경하면서 경전공부가 되고, 기록한 내용은 법회 또는 공부할 때마다 꺼내볼 있어 요긴하기 때문이다.

또 성지순례를 통해 느끼는 점을 기록해 두면 훌륭한 '참배 기행문'이 되기도 한다. 여행 당시 느끼는 것은 그 장소를 떠나는 순간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그때그때 독특한 인상 등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사찰만의 독특한 예불 문화나 성보 등을 정리해 두는 것도 나중에 훌륭한 불교지식 사전이 된다.

이와 함께 신행 다이어리에 예불 · 헌공 · 법회 · 의례 · 찬불가 등을 메모해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보면 어렵게만 여겨졌던 불교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메모를 잘 한다'와 '신행활동을 잘 한다'는 서로 등치될 수 없다. 신행 다이어리는 신행활동 틈틈이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행 다이어리를 쓸 때는 △'왜'라는 이유 및 목적의식 유지 △꽉 짜인 틀 대신 여유 있는 메모 쓰기 △근무여건, 신행정도 등에 따른 신축성 있는 신행 다이어리 계획 세우기 △정기적 법회 참석, 선지식 친견, 사찰 순례 등을 통한 신행 방향 점검 여부 등을 항상 살펴보는 것이 좋다.

김 과장은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행을 지나치게 다이어리에 엮어두려 하면 목적과 수단이 뒤집히고 메모를 맹신하게 될 수 있다"며 신행 다이어리에 함몰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신행 다이어리 만들고 활용하기

일반다이어리를 이용해서도 '불자용 신행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다. 불교 달력을 활용해 매월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의 기도일과 불교 행사 등을 체크해서 불자 다이어리에 옮겨 쓰면 된다.

▲한꺼번에 너무 욕심껏 만들지 않는다. 의욕만 앞서다 보면 금세 지치기 십상이다.

▲달별로 계획을 세우고 좋아하는 경구, 선시 등을 써넣는다.

▲올해의 목표, 닮고 싶은 인물, 좋은 습관, 고칠 점, 올해 읽을 불서 등을 한 달씩 끊어 기입하고 수시로 확인한다.

▲바인더로 신행/ 공부/ 법회/ 사찰 순례 등으로 묶을 나눠 쓴다.

▲직장인의 경우 직업에 맞게 법회 일정을 조정하고 불법에 따른 리더십 배양 방법 등도 생각해 기입, 일상생활 속에서 써본다.

▲보관할 때 앞표지에 큰 라벨을 붙여 언제 쓴 것인지 기록해 놓으면 그 때 그 때 꺼내어 찾기 쉽다.

일터가 도량입니다

"쉬는날 맞춰 법회보고 봉사하고"

운불련 수원지부 박성갑 · 연덕주 거사

일이 힘들기로 치자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직업이 택시기사다. 100여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수원지부에 일을 수행이라 여기며 사는 불자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운불련 수원지부 회장 박성갑(55 · 사진 왼쪽)씨와 前 회장 연덕주(55)씨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다. 그러나 근무연수도 성격도 다르다. 박씨는 25년, 연씨는 7년. 박씨가 조용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이라면 연씨는 화통하고 쾌활하다. 둘이 성격도, 근무연수도 다른데도 이들에게는 시쳇말로 전 · 현직 회장 사이의 알력 따위가 없다.

"회장직이요? 감투가 뭐 중요하나요.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하죠."

단합이 잘 되기로 유명한 운불련 수원지부. 그 중에서도 박씨와 연씨는 남다르다. 서로 쉬는 날도 맞춰 법회보고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다 보니 '도반중의 도반'이라 불린다.

운불련 수원지부는 매달 첫째 목요일마다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지만 두 사람은 더 자주 사찰을 찾는다. 가끔씩 일터를 떠나 훌쩍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속상할 때 함께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한다. 그러다 절이 보이면 들어가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박씨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잡보잠경>의 '걸림 없이 살 줄 알라'. 연씨 역시 이 경구를 좋아한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저희가 이 말들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자라도 택시기사의 애환이 왜 없었겠는가. 박씨의 경우, 지난해 4월 술 취한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회의가 생긴다.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죠. 그런데 나중엔 그 손님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싹싹 빌더군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 있겠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바꾸니까 더 이상은 화가 안 나데요."

몸에는 아직 흉터가 남아있지만 박씨 마음의 흉터는 이미 아물었다. 듣고 있던 연씨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씨는 "친구가 부처님 말씀을 늘 거울삼아 일하다보니 이렇게 착하게 산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무척 미안하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지만 친구가 다칠 때 아무 도움도 못 줬다는 생각 때문이다.

두 사람에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부휴선사의 선시에서처럼 '둘이 함께 한 번 웃고 즉시 친해진 후로 서로 서로 갈고 닦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사실 우리만 도반이 아니지요. 불자 운전기사님들 모두 도반입니다. 올해 도반 모두가 무사고 운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 개강일: 2006. 1. 19 18:00 - 22:00 (12회 과정)
금요반 ● 개강일: 2006. 1. 20 18:00 - 22:00 (12회 과정)
전 수 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칠차원 생명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 법에는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뜻이 있으니

수연, 중생 근기따라 법 설할 수 있어
8만4천법문 자신 바로보는 지혜 길러줘

부처님의 세상이요 깨달음인 '그 무엇'에 대하여 근본 자리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체험을 통하여 '그 무엇'을 바로 알고 직접 깨치고자 하는 것이 선(禪)이다. 다시 말해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화두로써 직접 단숨에 깨치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看話禪)이다.

그러나 이 공부는 아주 뛰어난 역량이 있어야만 한다. 전생에 해 놓은 공부가 많든지, 금생에 죽어라 공부하여 깨달음의 문턱까지 가 있든지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단숨에 깨달아서 단숨에 수행을 끝내는 이런 공부를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글이나 말을 방편으로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가귀감> 3장에서는 말한다.

然法有多義 人有多機 不妨施設

그러나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의 근기에는 많은 차별이 있으니 여기에 맞추어서 방편을 쓸 수도 있다.

여기서 '법'이란 앞서 말한 '그 무엇'으로서 곧 깨달음의 자리이다. 법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不變)'의 뜻과 인연을 따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수연(隨緣)'의 뜻이 있다. "법에는 많은 뜻이 있다"라고 한 것은 수연의 뜻을 따른 것이다.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변과 수연은 바닷물과 파도

이것은 바닷물과 파도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바닷물이 여러 가지 모습의 파도로 나타나지만 바닷물 자체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닷물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의 '그 무엇'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연을 따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수연에 해당된다.

바닷물이 있어야 파도가 있고 파도의 실체는 바닷물이기에 바닷물이 파도이고 파도가 바닷물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불변이 수연이 되고 수연이 불변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말과도 그 의미가 같다.

사람들에게는 근본을 단숨에 깨칠 수 있는 돈오(頓悟)의 근기도 있고, 공부를 점차 닦아 나가야만 하는 점수(漸修)의 근기도 있다. 상근기에게는 돈오할 수 있는 법의 근본 자리를 바로 가리켜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화두선(話頭禪)은 화두를 통해서 이 자리에 바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점수에 해당하는 중·하근기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를 않는다. 그들은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해 주어야 조금 알아듣는다.

이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해 주는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이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는 수연(隨緣)에 해당된다.

법에는 수연의 뜻이 있기에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글이나 말을 방편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옛말에 "공(公)의 자리에서는 바늘 끝만큼도 잘못을 용납할 수 없지만, 사(私)의 처지에서는 큰 수레도 오고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근본을 드러내는 불변(不變)의 자리에서는 언어 문자가 가지는 허술한 틈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상계를 드러내는 수연(隨緣)의 처지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팔만사천 법문이 있게 되는 것이다.

팔만사천 법문은 부처님의 자비

중생은 본디 오롯하게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눈 밝은 지혜가 없으므로 윤회를 한다. 세간을 초월하는 번뜩이는 지혜가 없으니 그들의 두텁고 어두운 장막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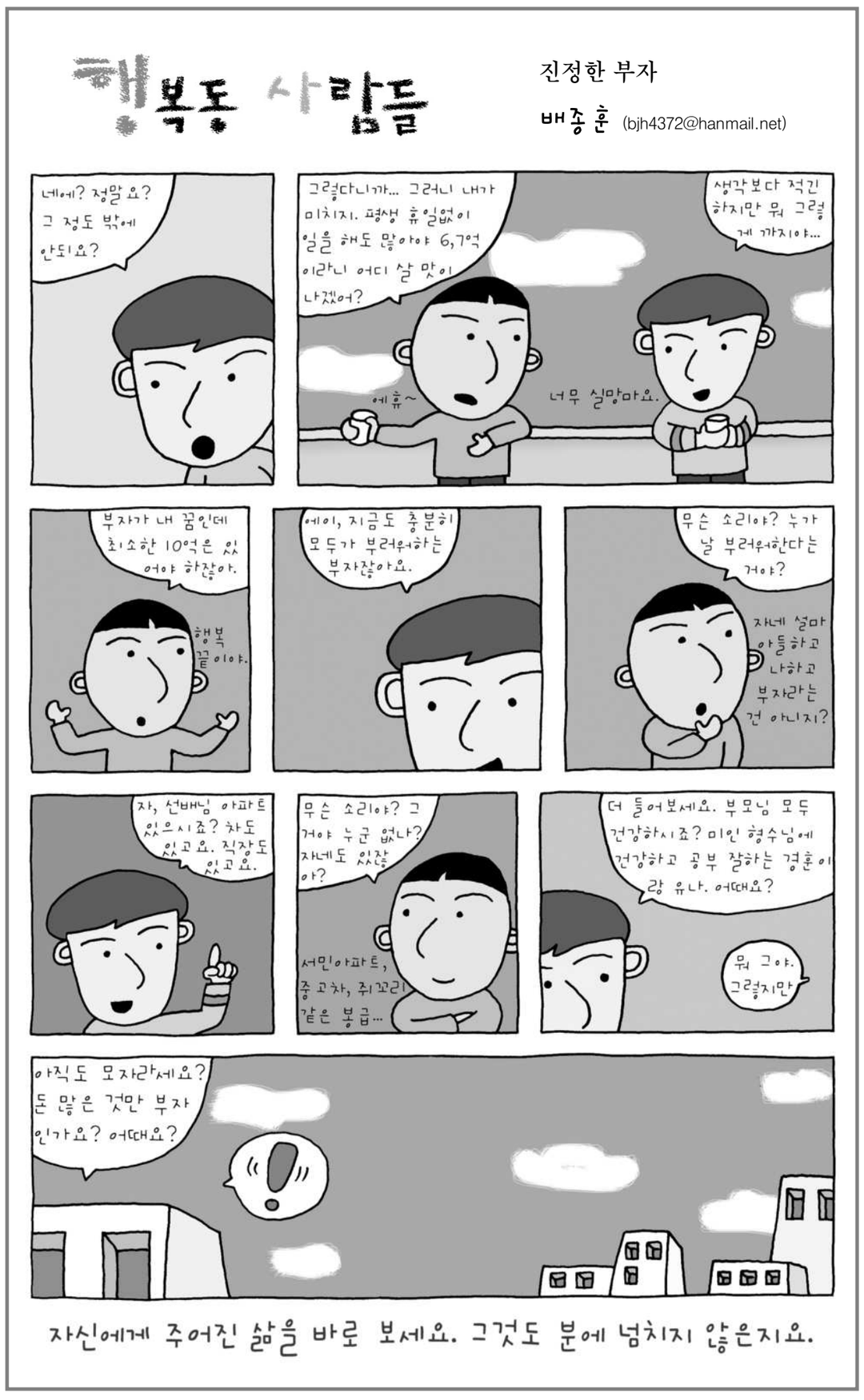
그래서 부처님은 팔만사천 법문을 통하여 중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로 보는 지혜를 키워주고 길러 주시려 한다. 중생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괴로운 사바세계를 벗어나 행복이 가득한 부처님의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입게 된 은혜는 우리가 갠지스강 모래알만큼 많은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려울 만큼 크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 공부해야 할 것을 드러내 보이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기쁨을 게송으로 말한다.

王登寶殿 野老謳歌
임금님이 높은 용상에 오르시니
촌 늙은이 흥얼흥얼 노래를 하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방장과 조실스님은 어떤 분?

결론부터 말할까요? 한 사찰의 상징적인 최고 어른으로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안거 결·해제 때에는 법문을 하면서 수행의 지표가 되는 출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방장과 조실스님은 법력이나 덕망이 크신 원로대덕이시지요.

방장(方丈)은 총림(叢林)의 최고 어른스님이고, 조실(祖室)은 선원이나 큰절의 최고 어른스님이죠. 총림에 대해 설명을 하면, 방장과 조실이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겠네요.

총림은 참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원,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 계율을 배우는 율원, 염불을 가르치는 염불원 등이 모두 갖춰진 큰 사찰이죠. 세속에 비유해 쉽게 설명하면 총림은 종합대학, 선원 등은 단과대학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방장은 '총장', 조실은 '학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방장은 원래 선종사찰에서 주지스님의 거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훗날 그 의미가 바뀐 것이지요. 조실은 훌륭한 선지식이 거처하는 방이란 뜻으로, 방장과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7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5강 혜능의 돈교(3): 새로운 교판(教判)

혜능 포교의 특징은 자성불(自性佛)을 재창한데 있다. 성의 정통은 바로 이 토대위에 서 있다. 누가 내게 선의 핵심은 무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폭적 신뢰'라고 답할 것이다.

자성불(自性佛), 즉 나 자신이 부처이므로, 이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들을 굳이 익힐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진리의 빛은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속에서 찾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즉 "정보에 의지하지 않는, 경전 밖의 진실!"이 선의 표어가 되었다.

헌데, 이 진실에 어떻게 접근할까. 바깥의 것은 보기 쉬우나,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진정 보기 어렵다.

옛 부대에 새 술을

전통적 경전과 수행법들을 버렸으니, 선은 새로운 독자적 방법을 개발해야 했다. 그것이 선의 얼굴과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었다.

육조 혜능은 그러나, 전통 전체를 내버리기보다, 그 오래된 부대에 단순화 직설화의 새 술을 담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나중 발전되는 선의 파격과 파천황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온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오래되고 다양한 불교의 교학과 수련법들을 '마음의 즉각적 파지' 하나로 귀착시켰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1) 경전의 문자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핵심적 취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평생 <법화경>을 읽어왔다는 어느 학승을 향해, "그 근본 취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굴림 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차이가 소승과 대승을 가른다고 말한다. 경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그 취지를 장악하는 것은 천지현격(天地懸隔), 하늘과 땅 차이이다.

2) 소승과 대승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혜능은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다. 혜능의 새로운 교판(敎判)에 따르면, "소승(小乘)은 아직 문자의 숲에서 헤매는 사람이고, 중승(中乘)은 문자의 취지를 대강 캐치한 사람, 그리고 대승(大乘)은 바로 그 자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최상승(最上乘)은? 그는 바로 그런 구차한 노력조차 필요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3) 불교가 개발한 다양한 수련법에 대해서도 혜능의 생각은 파격적이다. 그는 "마음은 거울이 아니므로, 어디 손댈 데가 없고, 손을 대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음은 거울이 아니니, 어디 먼지 앉을 데가 없다!"

그는 삼학(三學)이라 하여 주어진 계율을 지키고, 특정한 명상에 몰입하며, 불교식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삼학이란 요컨대 "마음에 아무런 내적 외적 갈등이 없는 것, 자신의 불성이 아무런 장애 없이 스스로의 빛과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육조단경>은 기존 불교에 대한 파격적 재정위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4) 그는 좌선(坐禪) 또한,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에 빠져드는 특정한 작법(作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무런 외적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본래의 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각성의 길"이라고 돈교적으로 변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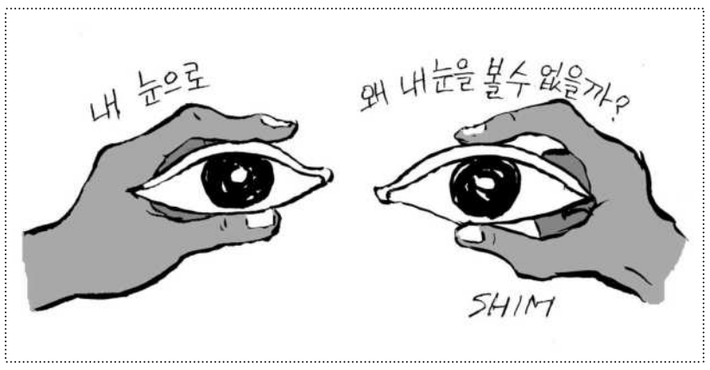
그는 이렇게 마음의 자기 각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밖에 다른 어떤 외적인 장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불교가 오랫동안 그린 꿈인 서방의 정토나 극락도 실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각성이 주는 안정과 축복으로 해석했다. "서방 정토는 없다. 그것은 지금 여기, 당신들의 마음 안에 있다."

놀라는 무리들에게 그는 "어디, 한번 보여주랴"라고 농을 할 정도이다.

육조 이후의 선

혜능의 돈교는 불교의 면목을 완전히 일신했다. 이후의 선은 이 자성불(自性佛)의 강령을 바탕으로, 그동안 하찮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겼던 자기 자신과 일상적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방거사의 감탄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신비가 있나. 내가 장작을 패고 물지게를 지다니…."

소승, 문자 숲에서 헤매는 사람들



돈교의 확산 진전과 더불어, 자아는 극단적으로 고양되었다. "네가 곧 부처이다"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전통 전체를 격하하고, 급기야 창시자의 신성까지 모독하는 파천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단하(丹霞天然 739-824)는 법당의 목불을 쪼개 캠프파이어를 해 버렸다. 이 정도는 약과에 속한다. 임제(臨濟義玄 ?~867)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권했고, 운문(雲門文偃 864~949)은, "붓다가 태어나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몽둥이로 때려잡아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었을 것을…"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우상 파괴적 정신은 양날의 칼이었다. 전통과 접맥되지 않고 파격과 기행에 의존하면서, 선의 생명력은 오히려 쇠퇴하고 고갈되어갔다.

경전과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의 규율을 떠나서, 순전히 자기 확신에만 의존하는 길은 위태롭고 취약하다. 이 약점은 일반적으로 입문(initiation)에 의존하는 신비주의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여기 동서양에 예외가 없다.

선은 8세기를 지나면서 활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행해졌다. 선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게, 선의 역사를 적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선의 정당성을 변명하기 위해 새로운 계보까지 씌어졌다. 그에 의하면 달마는 인도의 법통을 28대째 이은 사람으로 등록됐고, 6조 혜능이 선종사의 정식 법통으로 낙착됐다.

이와 더불어 선은 자신들의 독창적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간 법담을, 깨달음을 위한 명상의 도구로 삼는 간화(看話)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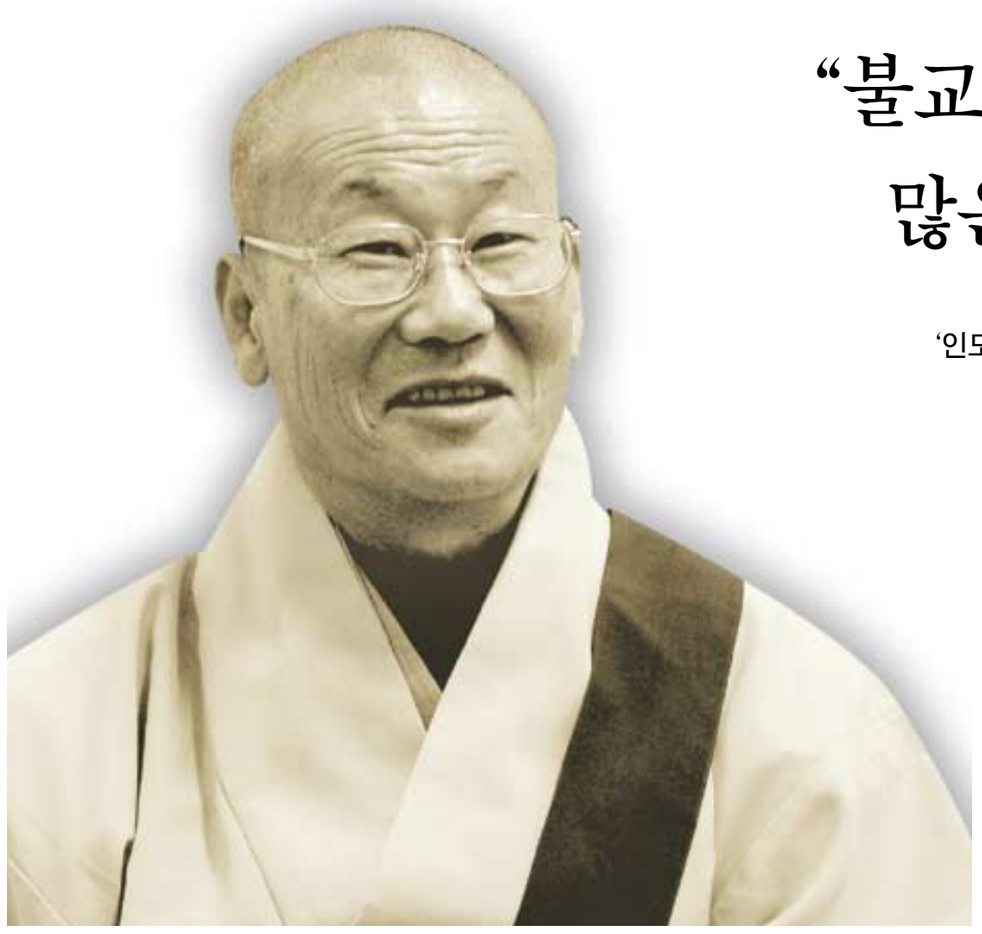
<육조단경>과 <금강경 구결>은 같은 정신의 산물

선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다. 또 왜 엇길로 샜느냐 하면, <육조단경>을 <금강경 구결>과 견주어보기 위해서이다. 누구든 두 작품의 해석학적 정신이 같은 궤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니, 틀림없이 <육조단경>은 <금강경 구결>과 동일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다.

<육조단경>이 기존의 전통적 불교를 돈교적 이념에 따라 파격적으로 재정위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듯이, <금강경 구결> 또한 금강경의 본래 맥락에 충실하지 않고, 자성불(自性佛)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고 파격적인 변주로 이어 나간 것을 보라.

저번 강의에서 <구결>이 호념(護念)을 "바깥의 여래(如來)가 아니라 자성여래(自性如來)가 자선호념(自善護念)할 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거기서 부촉(付囑) 또한 "저 밖의 여래의 약속이 아니라, 청정(淸淨)한 생각들이 이어져 나가도록(付囑)" 하는 노력이라고 탈 맥락적으로, 그러나 공부에는 절실하게 해석해 나간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교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 됐으면”

‘인도불교사’ 8년만에 완역한 호진 스님

대승불교 이전까지의 불교사 정리
불어원본 번역 끝내고 영역본 대조
한문 원전 직접 확인해 각주 달아
고유명사 등 현대 표기법에 맞춰

“오래전부터 이 책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이 방대하고 고대불교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내용이 준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습니다.”

불교연구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저술로 평가받는 에띠엔 라모뜨(1903~1983)의 <인도불교사(Histoire du Bouddhismeindien)>. 붓다의 생애, 초기불교 교리, 교단의 조직, 성전의 성립과 발달, 불교의 언어, 부파의 기원, 전도와 전파, 아비다르마의 발전, 조각과 건축, 유적의 발굴, 문헌학, 금석학, 고전학등 고대 인도불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거기다 인도 서북부인 카슈미르와 간다라, 스리랑카의 불교 역사까지 포괄하고 있고 자료도 그리스와 라틴, 중앙아시아, 중국, 티베트의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불교연구의 이정표로 불리운다.

저자인 에띠엔 라모뜨가 1949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저술한 <인도불교사>를 8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호진 스님(기림사 동암 · 前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이 <인도불교사>를 접한 것은 1978년 1월이었다. 스님은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후 이 책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연구하는 스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연히 이책을 한글로 번역해 보겠다는 발원도 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시공사의 끈질긴(?) 번역 요청이 스님의 작업을 미룰 수 없게 했다.

“출판사의 제의를 받고 망설였지만 <인도불교사>를 한국어로 출판하는데 있어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1996년 11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다음해 3월초부터 4년을 목표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8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님은 “8년 이란 세월은 인고와 보람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976년 출판된 2쇄본을 텍스트로 총 14번을 읽고 번역했고, 1988년에 나온 영역본을 대조하는등 꼼꼼하게 작업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한문 원전의 내용을 대부분 직접 확인하여 스님이 (*)로 표시하고 주(註)를 새로 달기도 했다. 인도 서북지방의 그리스식 고유명사들은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알렉산드로스(alexandros)의 경우 불어 알렉산드르(alexander)로 표기했다. 역시 산스크리트의 ‘v’ 발음은 ‘ㅂ’으로 표기해 ‘Nirv a’를 ‘니르와나’라고 하는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니르바나’로 썼다.

또 사진도 대부분 스님이 직접 찍은 최근의 것으로 바꾸거나 상태가 좋지 않는 것은 삭제했다.

호진 스님은 “라모뜨의 <인도불교사>가 출판된 지 거의 반세기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양과 질, 내용면에서 이 책을 능가할 고대 인도불교역사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 책이 많은 불교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불교사 1 · 2
호진 스님 옮김
시공사
1권 3만5000원
2권 3만원

이번에 발간된 <인도불교사>에는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기술돼 있다. 책의 구성은 제 1장 붓다시대의 인도, 제 2장 마가다 시대, 제 3장 마우리야 시대, 제 4장 슝가왕조와 야바나 왕조 시대, 제 5장 샤까-빠흘라바 시대, 제 6장 부파불교, 제 7장 불교라는 종교 순으로 되어 있다.

호진 스님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으로 제 1장 부처님 시대의 역사와 초기 교단성립과 교리 그리고 제 2장 불교성전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제 6장 부파불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꼽았다.

스리랑카 승가회로부터 ‘불교성전의 전문가’란 칭호를 받은 에띠엔 라모뜨는 벨기에 디낭에서 태어나 고향인 노트르담 드벨뷔대학에서그리스 라틴고전을 연구한 뒤 가톨릭 사제가 됐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로 꼽히던 루이드라 발레뿌생과 실벨 레비의 제자가 되어 불교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벨기에 루벵대학에서 45년간 인도 및 불교학을 가르치며 불교연구에 전념했다.

라모뜨는 프랑스의 로얄 콜레주드(프랑스 왕립대학)에서 산스크리트학과 고고학을 연구하며 간다라 불교미술 연구의 선구자가 된 알프레드 푸쉐 교수가 별세하기 며칠전 ‘인도불교사를 다시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당시 인도불교사는 6권 정도가 있었지만 모두 입문서나 개론서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새로운 필사본 발견과 중국과 티베트의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금석문들의 발견과 고고학적 발견물들로 인해 인도 역사에 대한 정보가 증가된다. 라모뜨는 이 새로운 자료들을 근거로 불교역사를 다시 써야 할때가 되었음을 직감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도 불교사>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극과 극 취향의 두 소녀가 나누는 빛나는 우정



시모츠마 이야기 두드림, 타케모토 노바라 지음
개성 있는 두 소녀의 독특한 우정. 별 다섯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설. 다소 만화같이 억지스럽고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유쾌하고 즐겁다.
줄거리를 짧게 정리하자면 로리타 패션의 모모코와 폭주족(오토바이를 좋아하는)이치고란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소녀의 독특한 우정을 그렸다. 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두 소녀의 그 뚜렷한 개성이 부럽기까지 하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 용기. 가장 배우고 싶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릿광대, aladdin.co.kr)

빼어난 작품성에 신화적 재미까지



나니아 연대기 시공주니어, C. S. 루이스, 폴린 베인즈 지음
대표적 환상 소설이자 유일한 동화인 <나니아 연대기>는 재미에 대한 무책임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있다. 7연작을 합본으로 묶어 놓은 책의 경우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 장수가 무려 1000장이 넘어 가는데, 한 번 손에 들면 놓을 수가 없다는 그 상투적인 문구가 그대로 적용되는 작품인 것이다. 빼어난 문학 작품이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고, 거기에 더해 플롯 자체로 가치 있는 신화적 가치를 획득한 나니아 연대기. 이러한 감동이 모든 독자를 찾아갈 것이라고 감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C.S.루이스가 <문학비평에서의 실험>에서 선언한대로 문학 작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문학의 수용자’들에게 감히 이렇게 외친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표지에 불과했다고. (mungi93, book.naver.com)

우린 아시아 동쪽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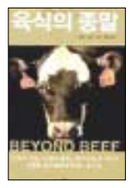


한국 속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정수일 지음
내가 알고 있는 역사관에 많은 것을 더하고 또, 많은 것을 빼주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옛부터 아시아 동쪽 끝의 조용한 은둔국이라는 통념을 깨뜨렸다. 다른 민족 신화와 비교해 우위라는 단군 신화와 고구려 건국 신화는 이해하기 쉽진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지극한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속의 세계를 밝히는 일은 사대심도 아니고 자만심도 아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시선과 그로 얻는 자부심이다. 아쉬운 점은 각주와 참고문헌 등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에게 최소한의 정당성과 사실성을 보여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dhmk, libro.co.kr/books)

책속의 밑줄긋기



○… 주술바퀴는 흥인, 황인, 흑인, 백인의 네 인종, 동서남북의 네방향, 흙 공기 물 불이라는 네가지 물질 요소, 영혼 정서 육체 정신이라는 인간 본성의 네얼굴등이 네가지 측면은 저마다 굉장한 선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무의 씨앗과도 같다. 이 가능성을 내다보고 자신의 의지로써 그렇게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수 있다. -<신성한 나무> 중 49쪽, 필 레인 주니어외 지음, 샨티



○… 미국에서는 전체 쇠고기의 15%를 차지하는 젖소들에게 항생 물질들이 투약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알게 모르게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관리자들은 몇몇 비육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동물들의 체중을 좀더 빨리 불리기 위해 사료에 산업 오수와 기름을 첨가하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육식의 종말> 중 20쪽, 시공북스, 제레미 리프킨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2006년 신개발 후불제실시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음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후불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카드
소재 : pp금창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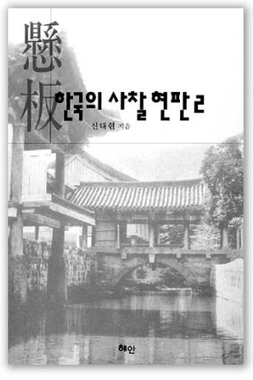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한국의 사찰현판 2
신대현 지음
도서출판 혜안
1만6000원

현판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상

신륵사 범어사 등 30여 고찰 현판 번역 · 해설
무관심 속에 방치된 역사자료 복원 의미 깊어

'대웅전에 들어가 보니 여러보물들을 봉안하고 있다. 불아(佛牙) 한쌍, 사리 1과, 삼존불이 새겨진 원불, 화엄경 6함, 가죽으로 만든 욕실용 신발 한 켤레, 동으로 만든 발우 50개등 영원토록 보물로 전해져야 할 것이다. 차마 손을 떼지 못하고 감상하였다.'

조선후기 대표적 문인이자 고위관료였던 홍석주(1774~1842)가 송광사를 방문한 뒤 1828년(순조 28)에 지은 <조계산 송광사 유산록>이라는 현판에 나오는 내용이다.

현판은 신문이나 잡지가 없었던 당시, 사찰을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들의 유일한 소통매체였다. 하지만 현판은 다양한 내용과 표현의 자유스러움으로 인해 비석에 새긴 정제된 금석문과 달리 공적인 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문으로 돼있어 해독이 어려워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한낱 나무조각으로 치부되는 현판의 내용을 해석하며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느끼는 맛에 푹 빠져 있는 신대현 박사(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가 <한국의 사찰 현판2>를 펴냈다.

이 책에는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 훼손되어 가고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인 30여 사찰의 가치높은 현판의 내용과 번역, 해설이 실려있다.

책을 보면 현판이 이제껏 우리가 알아왔듯이 단순하게 절의 중수에 관한 이야기나 자화자찬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시 스님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상, 현대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의 화해에 대한 내용등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조선 후기 문신이며 의정부 종1품 좌찬성을 지낸 김병기(1818~1875)는 조상대대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신륵사의 중건과정을 기록한 <신륵사 중수기>(1860년 작)에서 '사찰의 흥폐는 세상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유학자들이 신경 쓸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 가지 이유에서 폐하나로 아울렀다오'라며 스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송광사 '연천옹 유산록' 현판의 모습.

이 책에 소개된 <불영사 중창기>(1611년 작)를 지은 황중윤(1577~1648), <어제시판서>(1722년 작)를 지은 채팽윤(1669~1731), <대성암 화악대사 진영>(1850년 작)의 김정희(1786~1859)등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나 문신들이다. 이들의 글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불교와 유교가 대립만 한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층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교류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신대현 박사는 "아직까지 사찰 현판을 책임있는 기관이 나서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고, 사찰 역시 수십점 이상씩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술검토 및 공개를 한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교자료가 부족한 만큼 이제라도 현판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로나온 학술서 2권

고려땐 왜 불교의례가 많았나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안지원 지음 | 서울대출판부 | 1만6000원



고려시대에는 불교의례들이 왜 빈번하게 열렸을까.

최근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라는 책을 펴낸 안지원(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후 지역에 관계없이 민심에 밀착된 불교를 공통분모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기인한다"고 답한다.

즉 고려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준수하도록 유훈(遺訓)으로 남긴 '훈요십조'에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례화 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안 교수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추수감사제와 같은 농경의례의 성격과 역사성이 있는 토속적인 측면들이 포용되고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기획되어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형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행사는 단순한 축제로 그치지 않고 의례절차 속에 국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지배질서를 상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고려왕실의 권위도 높이고, 국왕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공헌하는 반대급부도 노렸음을 이책은 밝힌다.

안지원 교수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궤도를 같이하여 고려문화의 제 양상을 반영하고 변화하면서 고려와 함께했다"며 "이 행사들은 고려의 기층문화가 되었고 조선이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우리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 빛진 사찰 연기설화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 김승호 지음 | 동국대 출판부 | 1만4000원

동국대 국어교육과 김승호 교수가 10여년간의 작업끝에 <한국사찰 연기설화의 연구>를 간행했다.

이 책에는 사찰연기설화의 개념에서 부터 그 자료적 범위, 미학적 성격, 시대적 흐름, 담당층의 특성등 다양한 요소들로 사찰연기설화의 면모를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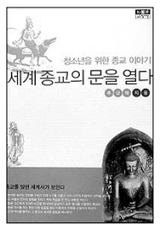
특히 김 교수는 사찰연기설화의 연구가 <삼국유사>에 매달리는 식으로 진행된 점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유사 소재 사찰 연기설화의 대부분이 사찰을 창건한 얘기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다 원래 설화의 이기(異記)임을 확신할 수 없는 마당에 계속 그것을 인용할 경우 사찰연기설화의 일반적인 특성까지도 놓칠 수 있다는 것. 김교수는 승려와 승단을 여과없이 공박, 희화화하는 폐사연기설화까지 다루고 있다. 이를통해 폐사의 원인을 민중들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책의 구성은 1부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이해를 돕는 사찰연기설화의 총체적 조망, 2부 사찰연기설화의 각론적 접근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2부는 서사성이 높은 몇몇 고찰의 연기설화에 나타난 소설적 성격과 그 의미를 타진하는 연구물도 포함하고 있다.

김승호 교수는 "이책에 소개된 폐사 연기설화의 경우 창사 및 연기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 역시 민중들사이에 사찰의 쇠망진단이자 내력임을 감안하여 사찰연기설화의 하위갈래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어른들은 왜 종교 때문에 싸울까 청소년 종교입문서



세계종교의 문을 열다 류상태 지음 | 인물과 사상사 | 8500원

만일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마을사람 33명이 기독교(가톨릭 포함),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는다. 5명은 나무나 바위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교이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기기도 하지만 종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마을사람 모두가 공평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04년 10월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한 류상태 실행위원(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이 청소년을 위한 종교이야기 <세계종교의 문을 열다>를 펴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왜 종교를 알아야 하는지, 종교를 만나는 즐거움은 어떤 것인지, 같은 신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모순, 종교를 통해 세계사를 보는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 부분 '종교가 화합할 길은 없는가?'에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자라온 '이웃'이며, 또한 인류와 세계의 희망을 위해 공헌해야할 공통의 숙제를 안고 '함께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벗'임을 강조한다. **김원우 기자**

지친마음 위로하는 샘물같은 이야기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은 외모에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아름다움은 이목구비의 조화만으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은근하고 품위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아픈 어린이돕기 '작은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목 스님.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하며 청취자들을 울렸던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다.

<마음밖으로 걸어가라>는 1장 사랑, 2장 용서, 3장 이해, 4장 행복, 5장 감사등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샘물같은 이야기 100여편이 실려 있다.

이 책에 실린 조건없는 사랑을 하는법, 미운 사람 용서하기, 이해하기, 행복지수를 높이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등의 방법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충분하다.

정목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일생의 서원이고 그들의 아픔이 사라진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며 "아픈 어린이들이 일어서는데 이 책이 작은 힘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음밖으로 걸어가라
정목 스님 지음 | 랜덤하우스 중앙 | 98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현지궁현지사, 자재만현스님, 1만5000원
-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철우스님, 8500원
-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도솔, 능행스님, 9500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스님, 3500원
-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이치, 월호스님, 98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宇宙間)의 법(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 무량의경 Ⅰ / Ⅱ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과 《근본진리의 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 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알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도서출판 阿那

고려시대 법화경 사경본 얼마에 낙찰될까?

미술품 경매시장 활기…불교작품 '주목'

미술품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술품경매 전문회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양강구도이다. 1999년 설립된 서울옥션(www.seoulauction.com)은 화랑을 통한 미술품 판매가 대세였던 우리나라 미술계에 본격적인 미술품 경매를 도입했다. 다음달에는 100번 째 경매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출사표를 던진 K옥션(www.k-auction.com)은 갤러리 현대 · 학고재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고가전략으로 경매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듯 경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미술품경매에는 불화 고승진영 등 불교관련 작품들이 자주 등장해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월 18일 오후 5시 서울 사간동에서 열리는 K옥션의 두 번째 경매에서는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 '아미타불화' 등 고미술품 63점과 백남준의 'TV를 보는 숙녀' 등 해외미술품 20점, 박수근 천경자 이응노 화백 등의 근현대 미술품 42점 등 총 125점이 선보인다. (02)2287-3600

경매 활성화되며 불교작품 자주 등장 '눈길'
K옥션, 18일 고미술 등 125점 선보일 예정





고려시대 사경작품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



비단에 그려진 '아미타불화' 19세기 作.



조선시대 월송당 계준 스님 진영.

고려시대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 10억 예상
예술성과 소장 가치 뛰어난 성보들 낙찰률 높아
전화 참여 일반화, 동일 가격시 서면 응찰자 우선
소더비 · 크리스티 양강체제, 전체 매출 80% 차지

고미술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옥션의 여섯 차례에 걸친 경매에서 고미술품 분야는 평균 68%의 낙찰률을 보여 2004년 평균 57%보다 성장했다.

근현대 미술품 낙찰률이 평균 59%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 그 인기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술성이 뛰어난 성보들이 경매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자들과 불교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미술 부문에 이어 근현대 미술품 부문에서는 문자추상이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전개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 '문자추상'과 지팡이를 쥔 노승과 동자승이 있는 정감 넘치면서도 고아한 사찰 풍경을 담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산사' '십장생', 불교에 심취해 삶과 자연의 합일을 화폭에 담았던 장욱진 화백의 '나무' 등이 간결한 붓놀림을 선보인다.

▶ 미술품 경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미술품 경매 초기에는 단순한 수화가 활용됐으나 이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과정을 겪었다. 수화 이후에 나타난 것이 파들피딩이라는 판넬을 드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경매장소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도 경매에 참여하는 전화경매가 일반화 되는 추세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웹 경매도 서서히 시도되고 있다. K옥션과 서울옥션 등도 사이트를 통해 상시 경매 대상작들을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공개응찰의 경우만 경매장에 직접 참가해 파들피딩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서면응찰은 보조 경매사가 대신 응찰하고, 전화 응찰은 담당직원이 경매장에서 응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신 응찰하는 방식이다.

공개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원할 경우 서면 공개 전화 응찰자 순으로 낙찰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서면 응찰자가 중복될 경우는 먼저 서면 응찰서를 제출한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의 '북해도 천로에서'.



향토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만익의 '가족'.

▶ 어떤 작품이 출품됐나?

이번 K옥션의 경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4억~5억원의 추정가를 달고 나온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이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제5권을 사경한 작품으로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머리에 불경의 내용을 요약해 묘사한 변상도가 금니로 그려져 있고, 이어지는 경문도 금니로 쓴 고려시대 작품의 전형적인 양식인 1행 17자의 절첩본(折帖本)이다. 고려 통례의 해서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고려 사경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구성이 완벽하고 단정하며 변상도 역시 뛰어난 회화성을 자랑한다.

국내 고려 사경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옥션 측이 낙찰가를 추정가의 2배 이상인 10억 원도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이유도 작품의 뛰어남에서 기인한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과 같이 고미술품 부문에 선보이는 작품은 조선 19세기에 제작된 '아미타불화'와 '월송당 계준 진영' 등이다.

불화 등 성보문화재들이 경매에 나오는 것과 관련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불화가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경매에 나온 성보들을 종단 차원에서 아니면 사찰이나 불자들이라도 나서서 구입해 모셔지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 성보박물관들이 가치성 높은 소장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조계종과 각 사찰의 성보박물관들은 경매현장의 활기를 성보박물관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때다.

최근 경매 시장은 근현대 미술품보다는 고미술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해외 유명 경매 어떤 것이 있나

미술품 경매에 있어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양대 산맥이다. 경매회사는 유럽에 300여 개, 미국에 300여 개 등 모두 600여 개에 달하지만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전체 경매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소더비는 1774년 런던에서 서적경매부터 시작한 경매의 원조이다.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80개소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소더비 보다 후발주자로 1764년 출발한 크리스티는 미술전문경매로 시작해 미술품 경매의 본가라는 명칭을 얻고 있다. 크리스티 역시 런던과 뉴욕을 거점으로 85개소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매 사상 최고가 낙찰 미술품은 2004년 5월 5일 뉴욕 소더비에서 판매된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으로 당시 1억416만8000달러(한화 약 1215억원)에 낙찰됐다. 한편 91년 크리스티경매에 출품된 14세기 고려불화는 22억원에 낙찰돼 당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만다라' 세상을 표현한 하인두의 '상의 조화'.



'무아'와 덧없음을 표현한 김창열의 '물방울'.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준의 '작고 빨간 재봉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부처님만 생각하면 노랫말 저절로 나와



팔순을 앞둔 노구에도 키보드 앞에서 찬불가 창작에 여념이 없는 운문 스님. 요즘도 매일 한곡 이상씩 노랫말을 만든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운문 스님 (운문사 주지)

즐거운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불러서일까? 서울 홍은동 운문사에서 만난 운문(雲門) 스님은 2년전 뵐 때보다 더 해맑아 보였다. 동자승처럼 해맑은 모습에서 반평생을 수행하며 산 수행자다운 풍모가 물씬 전해왔다. 천진불심(天眞佛心) 그 자체다.

1월 12일 운문 스님은 함박 웃음으로 기자를 맞아주었다. 굳이 바뀐 모습을 찾으라면 오히려 좋아진 건강때문에 보다 의욕적으로 변한 것이다.

"아, 뭐하러 또 왔어, 그동안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독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

"스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에요"라며 기자는 스님의 기우를 풀어드렸다.

지난해 9월 스님은 30여년동안 주석했던 구기동 운문사를 떠나 홍은동에 조그만 빌라를 빌려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삼보불교음악협회가 올해말부터 구기동 운문사에서 불교음악역사관을 건립하기 때문이다.

"법당은 똑같아. 수행자에겐 처처(處處)가 법당 아니겠어?"

스님이 거처하는 빌라에서 이틀간 스님과 생활해 보니 새벽 4시 아침 예불을 시작으로 점심과 저녁때도 예불을 모시며 사찰에서와 다름없는 일과였다.

"난 일상이 단조로워, 점심 공양하고 집앞 공원에 나가 포행하는 것 빼놓곤 거의 두문불출이야. 법당에서 예불모시고 관음정근하고, 노랫말 만드는 것이다지"

스님은 그랬다. 저녁 공양후엔 노래 가사를 쓰셨다. 40여년간 1천여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찬불가포교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들어 쓰여지는 노랫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아. 인생을 회향할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제야 비로소 찬불가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기자양반도 알듯이 내가 건강이 무척 안 좋았잖아.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해부터 차츰 회복돼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 더 좋은 노랫말을 만들고 회향하라는 부처님 뜻으로 믿고 노랫말 만드는 일에 더 정진하고 있어."

이틀동안 지켜보니 스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키보드 앞에 앉아 가사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팔순을 코 앞에 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스님은 열심이었다. 빼곡히 정리해 놓은 오선지 위에 채워져간 노랫말은 200쪽 분량의 책으로 묶어도 족히 서너 권이 넘었다. 대부분 요새 쓴 것이다. 오히려 작곡가들이 스님의 노랫말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다.

"지난해 말 원고를 넘겼으니 올 6월안으로 내 가사집이 새로 만들어 질거야. 예전에는 가사쓰고 어디 놔 두었는지 모를정도로 정리를 안 했는데, 지난해 몇 달동안 차곡차곡 정리해 출판사에 넘겼어.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야."

그런 왕성한 창작의 샘물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스님은 한마디로 원력이라고 말했다.

"내가 평범한 일반 가요를 만드는 작사가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곡들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거야. 평생 번뇌로 방황하는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감로수 같은 진리를 쉬운 노랫말로 바꿔 주어야겠다는 원력이 지금까지도 찬불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고 개인적인 수행의 방편도 됐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이런 발원과 노력이 불자들에게 전해져 찬불가 한두 곡씩은 부를 만큼 포교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스님은 배가 고프시단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불자들의 입에서 찬불가가 자주 불리워지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아직도 법회의식이나 특정 무대가 주를 이루고 있지. 찬불가의 역사도 거의 반백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법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불자들이 야유회 갈 때도 자연스럽게 불리워 졌으면 좋겠어."

신기한 것은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이들도 작사·작곡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운문 스님은 음악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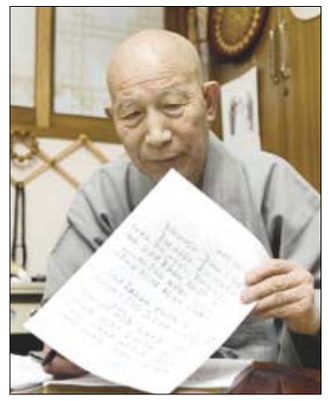
"물론 전문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불교음악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면 누구든지 좋은 가사를 만들 수 있어. 이건 내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 불자들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부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환희심이 넘쳐 가슴 속에서 노랫말들이 저절로 튀어 나오더라구."

수북이 쌓여 있는 찬불가 원고 뭉치를 보며 깨달았다. 처음 찬불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나 회향할 시기인 지금이나 자신의 원력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여여한 모습이 바로 저런 것임을.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하나의 가르침도 배웠다. 새해에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을 연말까지 여여하게 실천하라는 무언의 가르침.

운문 스님은 현재 '부처님 일대기' 등 장편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 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예불·공양·포행 시간 빼곤 작사작업 몰두
"이제야 비로소 찬불가가 뭔지 알것 같아"



그동안 써놓은 가사를 한데 묶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점심 공양이 끝나면 건강관리를 위해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긴다.

40여년간 찬불가 1천곡 만들어

운문 스님은 192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4년 망월사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53년 해인사 전문강원을 수료했다. 1956년 여수 흥국사 주지를 거쳐 1963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을 지냈다.

청소년 포교에 큰 뜻을 둔 스님은 1966년 청소년 교화연합회를 창립했고, 64년에는 불교동요집을 발간했다. 이후 40여년동안 1천여곡에 달하는 찬불가(찬불동요 포함)를 만들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 1회(1987)와 제 3회(1990) 조계종 포교대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스님은 삼보불교음악역사관 건립 때문에 잠시 구기동 운문사를 떠나 홍은동 운문사에 주석하고 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결과 집착말고 과정 즐기세요

운문 스님의 가르침

나는 틈날 때마다 청소년 불자들에게 공(空)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화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성인불자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지만 어릴때부터 자꾸 듣다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깨우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지요. 불교에서 공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자들중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만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實體)가 없지요. 이것이 공의 기본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연의 모임으로 태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다가 마침내 인연의 모임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인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을 잘못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허무는 공에 대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한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물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비극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선 잠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버리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 불자들이 정말 계획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요즘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 1천여곡에 달하는 무수한 곡들도 찬불가 포교에 대한 집착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대중들에게 회자되다가 허공속으로 사라지는 노래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랫말을 탄생시키는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 과정을 즐깁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노랫말이 대중들에게 불려지면서 같이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노랫말도 더 많이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하다보니 저절로 유명해 졌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나 현상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그 뜻을 더 쉽게 이룰 수가 없어요.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꼭 이루겠다는 계획을 누구나가 두세가지씩은 세워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몰두하고 그것을 즐기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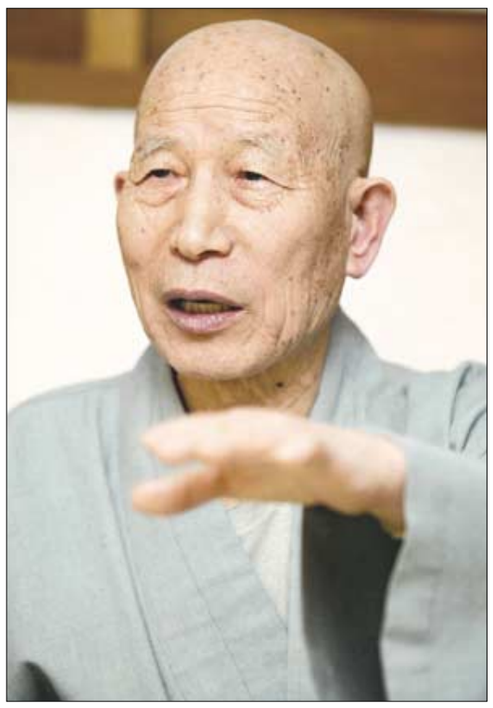
예컨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을 즐기십시요. 그러다보면 자신이 목표한 결과에 성큼다가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기도 못지 않게 찬불가도 큰 소리로 목청껏 불러 주었으면 합니다.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일 또한 사찰에 나가 법문 듣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신행 생활이지요.

찬불가는 다른 노래처럼 단지 멜로디가 좋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는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말씀이 녹아 흐르기 때문에 흥에 겨워 듣고 부르다 보면 어느새 법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사를 짓는데 있어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잘 옮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랫말을 짓기전에 경전과 계송을 갖다 놓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조사스님 계송을 인용해 지은 곡들도 몇곡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찬불가의 가사를 열심히 되새기며 부르는 것도 경전공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찬불가를 새해부터는 목청껏 부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화두를 하나씩 가지라고 말입니다. 특히 나는 가사가 안 써지거나 마음이 안잡힐 때면 화두인 '이뭣고'를 잡고 참선을 합니다. 화두는 바로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지요. 스님이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할 때만 던지는 물음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학문제라든가, 과학문제, 또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단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이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두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잠시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버리는 공(空)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운문 스님.

이루고자 한다면 모든것 비워내야
지금껏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떠나
본래마음 찾는 한 해 설계하세요

그러나 불교의 화두는 인생의 본질, 즉 마음을 해결하는 문제 제기로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을 내던짐으로써, 지식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자신의 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은 마음이 앞장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본 마음자리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에만 골머리를 썩히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떠나 화두를 잡아 보세요. 정신이 맑아지면 오히려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열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보배의 탑을 가득히 쌓고, 불전에 많은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세우신 큰 서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대 감각에 알맞는 포교방안을 수립해 젊은 청소년을 교화 육성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8>



좋은 친구의 향기

부처님께서 난타와 함께 향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는 여러 가지 향을 담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난타에게 말하였습니다.

"난타야, 저 향 상자를 집어보아라."

난타가 향 상자를 집어 들자 부처님은 곧 다시 내려놓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네 손의 향기를 맡아보아라. 어떤 냄새가 나고 있지?"

난타는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향 상자를 내려놓은 뒤에 제 손의 향기를 맡아 보았습니다.

"아, 부처님.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달콤하고 은은하고 미묘한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구나 좋은 벗을 가까이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도 그와 같다. 함께 있으면 그의 좋은 점을 본받고 따를 것이니 마치 은은한 향이 제 몸에 스며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좋은 벗과 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니 향기가 바람을 따라 널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법원주림 제51권)

향상자 집었던 손에 은은히 남는 향기처럼
좋은 벗은 우리 영혼 살찌우는 고결한 존재

며칠 전 새 수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해 쓰던 수첩의 주소록을 펼쳐보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내 수첩 속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이름, 몇 년 간 기재되어 있다가 슬그머니 다음 해의 새 주소록에서 빠지는 이름, 수십 년간 내 주소록의 지정 자리를 다른 이름에게 양보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니 과연 이들의 수첩에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주소록으로 내 이름이 몇 차례나 고스란히 옮겨갔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들이 내 친구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만 내가 그의 친구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좋은 친구일까요, 그렇지 못한 친구일까요?

<법원주림>에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일곱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위하여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줄 수 있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명성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를 위해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 손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셋째는 상대를 위해 참기 어려운 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는 절대로 친구 사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서로 비밀한 일을 알려주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간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밀은 잔뜩 알고 있으면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다면 대등한 친구사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서로 허물을 감추어주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의 치명적인 허물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허물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네 허물이야'라는 뼈아픈 지적도 필요하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허물은 알지도 못하였다는 듯이 덮어두고 감추어주는 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그와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고통 받아도 상대를 버리지 말아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사람이란 본래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익을 따지지 않는 마음, 손해를 보더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우정의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니 내 마음을 반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곱째는 상대가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서 세상은 나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초라한 겉모습 속에 반짝이는 그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은 바로 친구인 내게 있기 때문에 결코 세속의 잣대에 흔들려 친구를 저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주소록에 담긴 사람들이 내게 일곱 항목을 얼마나 채워주었는지를 따져보다가 새삼 나는 그들에게 이 일곱 가지 중 몇 가지라도 해당할까 생각하니 불안해집니다.

올 한해는 그들의 향기로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김경우 명가원 대표에게 듣는
中 차시장 이용 노하우

茶사러 중국 가세요?

최근 발간된 〈중국차의 이해〉, 올바른 이용 정보 소개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장. 차 소비층이 두터운 중국에는 차를 사고파는 전문 차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차시장은 차와 다기의 유통은 물론, 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차문화 교류의 장이다. 최근 〈중국차의 이해〉(월간 다도)를 펴낸 김경우 명가원 대표(38)에게 중국 차시장 풍경과 이용 노하우를 들어본다.



북경 마련도시장



북경 반가원시장



광주 방촌시장



상해 구성시장

▷중국서 가장 규모 큰 북경 마련도(馬蓮道)시장

茶 종류만 몇 백가지, 中 차산업 한눈에

북경 수도 공항에서 서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있는 마련도시장은 중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차 전문 도매시장이다. 도로 양쪽으로 난 2㎞ 정도의 거리에 차와 다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마련도시장은 중국의 차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판매되는 상품도 각양각색이다. 화차(花茶)와 죽엽차(竹葉茶), 야생 고정차, 철관음, 홍차 등 그 종류만도 몇 백 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보이차보다는 맛과 향이 맑은 청차를 권한다.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보이차와 달리 청차 종류는 마른 찻잎의 색이 밝고 윤택한지, 향이 신선한지 등을 꼼꼼히 살피면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근(약 500g)당 5백~8백 위안(약 7~11만원) 선이면 상등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이차 전문 판매, 광주 방촌(方村)시장

탕색 맑은것 선택, 다도구도 다양

광주 백운 공항에서 약 50㎞ 떨어진 곳에 있는 방촌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꽤 많이 알려진 곳으로, 입구에 우리말로 '다우 여러분 환영합니다'란 간판이 걸려있다.

철관음, 봉황단총, 보이차에 이르기까지 차의 종류도 다양하고, 다도구 또한 자사호에서부터 목기로 만든 진열장이나 대나무로 만든 제품 등 없는 것이 없다.

특히 보이차 전문점이 많다. 보이차를 살 때는 오래된 보이차를 찾기보다 잡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탕색이 맑은 것을 선택한다. 판매하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 자기 나름의 지식과 주관을 가지고 차를 구입해야 한다. 차 포장 재료도 많이 판매하므로 눈여겨 볼만 하다.

방촌시장에서 차와 다구를 살 때는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가격을 흥정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흥정 자체를 즐겨 본다면 물건을 구입하는 또 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옛 차도구 찾는 재미 솔솔, 북경 반가원(潘家園)시장

매주 토·일요일 형성, 흥정은 필수

북경 수도 공항에서 동남쪽으로 30㎞ 정도 떨어져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장이 형성되며,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벼룩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이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 상점 및 노점 판매대가 약 3천여 군데 설치돼 있다. 판매되는 물품도 불상과 도자기, 고서화 및 중고 서적 등 다양하다.

노점 판매대에서는 주로 차 마시는데 필요한 소품류 등이 판매되고 있다. 처음엔 아주 높은 가격을 요구하므로 바로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시장을 한 바퀴 구경한 후 다시 흥정해 구입하는 것이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요령이다.

간혹 제법 오래 되었을 법한 천목다완도 눈에 띄고, 고서화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차인들이 좋아하는 차 관련 소재의 그림을 만날 수도 있다.

▷상해 차 유통의 중심, 구성(九星)시장

대만 상품 많아, 비교적 비싼 편

포동공항에서 홍교포동 방향으로 70㎞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택시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형성된 지 5년 정도 되는 신생 시장이다. 2백여 개의 가게들이 영업하고 있는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상해 지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차·다구 전문 도매시장이다. 이곳에는 대만 상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대만에서 건너온 상품이 많다.

차엽시장 입구에는 절강성이나 강소성 등에서 생산된 녹차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 특히 맛이 순수하고 향이 좋은 안길백차를 눈여겨 볼만하다. 다구로는 휴대용 스테인리스 차병이나 유리제품 차병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제공=〈중국차의 이해〉(월간다도)

interview

中 차 이해하는 길라잡이 역할 톡톡
3월 자사호 작가 초청展 개최 예정



"차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다 보니, 차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체험으로 얻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차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서울 견지동에서 7년째 차·다구 전문점 '명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우 대표는 매월 2~3차례씩 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체득한 정보를 담은 〈중국차의 이해〉를 펴냈다. 책에서는 중국차의 역사를 개괄한 후 벽란춘·보이차 등 명차(名茶)의 유래와 제다과정, 자사호 감상과 구입요령, 차시장 및 다관, 중국차 우리는 법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중국차를 이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차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중국차와 유통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때 올바른 차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차 유통문화 발전을 위한 차유통협회(회장 이진수) 발족에 앞장서기도 한 그는 오는 3월 인사동에서 자사호 작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중국차 바로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짱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2. 보이차 이름의 유래

보이차에 대한 혼란은 진실과 거짓의 갈등 속에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거짓말이 보태지는 이와전와(以訛傳訛)의 혼전 속에 보이차 문화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보이차'의 선택도 다를 바가 없다.

보이차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정보는 어느 정도로 깊이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당신이 보이차를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보이차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앞서 그 이름의 유래와 의미를 풀어보는 것이 순서인듯 싶다.

보이현 생산량 적어 중심역할 미약 판단에
中 정부 개명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주력

중국 독음으로 '보이(普洱)'를 '푸얼'이라고 부른다. 이에 '보이차'와 '푸얼차'는 같은 것으로, 모두 중국 운남(雲南)지역에서 만든 차의 이름을 일컫는다. '보이차'라는 이름은 명·청 시대 당시의 전남(滇南) 곧 지금 운남 지역의 서쌍판납(西雙版納)과 사모지구(思茅地區) 특히 소위 6대 차산(六大茶山)에서 생산된 찻잎을 당시의 행정소재지였던 '보이부(普洱府, 지금의 普洱縣)'에서 가공·판매했기에 붙여진 것이다.

'보이현(普洱縣)'이란 지명은 청나라 옹정(雍正) 7년(1729)부터 연차적으로 보이부(普洱府), 보이진(普鎭)을 거쳐 오늘날까지 약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이현의 정식 명칭은 '보이하니족이족자치현(普洱哈尼族彝族自治縣)'이며 1985년 12월 15일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을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이곳 토착민인 하니족(哈尼族)의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보(普)'자는 성채의 뜻을 가진 '채(寨)'를 뜻하며, '이(洱)'자는 물굽이의 뜻을 지닌 '수만(水灣)'을 뜻한다. 이러한 토착민의 어원에서 비추어볼 때 '보이'라는 의미는 곧 물굽이가 있는 성채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의 물굽이는 란창강(瀾滄江)을 말한다. 란창강의 원류는 중국 티베트이며, 전체길이는 약 4,0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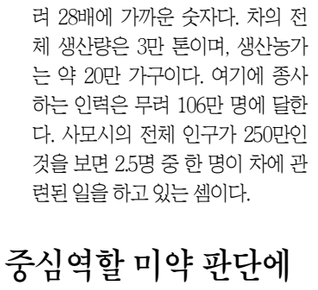
운남성의 행정구역 중 가장 넓은 지역이 사모(思茅)지역이다. 오늘날 보이현의 행정구역이 바로 이 사모시(思茅市)에 속해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사모시의 차 재배면적이 약 102만 무(畝)에 이른다고 한다. 한 무를 200평으로 계산한다면 약 6만8000 헥타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는 한국의 전체 차 재배면적인 2500 헥타르보다 무려 28배에 가까운 숫자다. 차의 전체 생산량은 3만 톤이며, 생산농가는 약 20만 가구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무려 106만 명에 달한다. 사모시의 전체 인구가 250만인 것을 보면 2.5명 중 한 명이 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모시의 10개 현(縣) 중 보이현의 차 재배면적은 6만1000 무, 즉 4000 헥타르이고, 차 생산량은 1200 톤 정도에 불과하다.

사모시 전체 차 생산량 1/30 밖에 되지 않는 보이현이 이제 보이차의 산업에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시정부의 판단이다. 그래서 사모시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프로젝트가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인 즉 사모시(思茅市)의 명칭을 보이시(市)로 바꾸는 작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보이시'로 개명되면 그 경제 시너지 효과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어느덧 보이차의 위력은 마시는 '차'라는 단순 경제에서 벗어나 문화·관광·건설 등 산업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 동력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한서대학교



보이현에 남아 있는 청나라 보이부의 유적지인 문창공.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 총3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요법(식품류,약재류) 사상의학강의실, 나의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인장학,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음오행,수리<원격,형격,이격,정격>,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자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3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구입방법 1안 : 금번행사 특별가격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료"로 구입하는 방법

위 특가행사의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명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LG파워콤(방송광고중)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쓰세요.
전화 한 통화로 전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체국 313049-01-003391
농 협 453050-55-002174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교수 송인창
전국대표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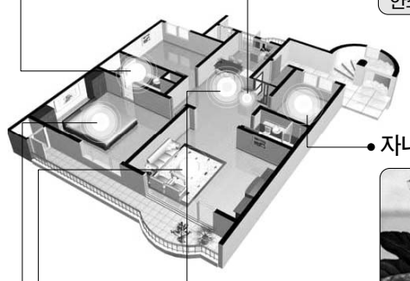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화분 하나 놓으니 공기가 다르네

집안 공간별 공기정화식물 배치법

이제, 집안 공기마저 안전하지 못하다. 카펫이나 마루 바닥재, 마감재, 쓰레기봉투와 종이타월에서조차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화학물질이 발생되고, 이 물질은 실내공기를 오염시켜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추운 날씨 탓에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겨울철은 실내오염이 여름철에 비해 최고 2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들이자니 한 대에 80~90만원이 넘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땐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자. 해결책은 의외로 작은 화분 하나에서 찾을 수 있다. 기능성 식물 하나가 집안 악취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훼농협의 도움말로 집안 공간별로 놓아두면 좋을 식물을 알아본다. 대부분의 식물은 화훼단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2000~5000원 선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인도고무나무나 산세비에리아 등은 화분을 포함해 2만~4만원 선이다.



욕실


관음죽

냄새가 많이 나고 습도가 높은 욕실에는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고 냄새를 흡수하는 식물을 둔다. 특히 빛이 많지 않은 실내에서 잘 자라는 **관음죽**은 암모니아 제거 효과가 탁월하고 퀘퀘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해충에 강하며 빛이 많지 않은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

일정 온도만 유지하면 하얀 꽃대가 일 년 내내 올라오는 **스파티필름**은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하고 알코올, 아세톤, 트리클로로틸렌, 벤젠 등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식물이므로 통풍이 잘 안 되는 화장실에 두기에 적합하다.

이 밖에 실내 환경 연출로도 적합한 안스리움과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탁월한 네프롤레피스 · 싱고니움 · 테이블야자, 일산화탄소 제거에 좋은 트리안, 악취제거에 좋은 팔손이 · 스파티필름 등이 좋다.

단, 욕실에 둔 화분에 비눗물이나 뜨거운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인 물주기 외에 필요 이상으로 물이 주어지지 않는지 살핀다.

현관


안스리움

집안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현관. 하지만 신발장 빼곡히 놓인 신발과 환기부족으로 인해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신발장 위에는 실내 미세분진과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효과적인 **인도고무나무**를 놓아보자. 인도고무나무는 햇빛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은 장소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젖은 수건으로 잎을 닦아주기만 하면 될 만큼 키우기도 쉬우므로 현관에 두기에 적합하다. 공기정화기능이 탁월한 안스리움이나 악취제거에 좋은 샤포닌 등도 현관에서 키우기에 좋다.

자녀방


팔손이

자녀의 학습과 휴식,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녀방. 책이나 책상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팔손이나무**는 어떨까? 이국적인 모습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음이온 방출이 많이 돼 학습능력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가 있다면 전자파 차단을 도와주고 음이온을 방출하는 산세비에리아와 필로덴드로 등을 놓아준다.

주방


거베라

요리 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가 많이 발생하는 주방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는 식물이 필수적이다.

거베라는 쓰레기봉투나 종이타월 같은 주방제품에서 많이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정화능력이 우수하다. **아이비**를 거실과 주방의 경계선에서 두면 요리과정 중에 불완전 연소 된 이산화황 등의 오염물질을 흡수하게 한다. 부엌 요리 시 발생하는 음식냄새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큰 **파타리필름**은 크기에 비해 증산작용이 뛰어나 건조한 실내의 습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 밖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을 감소시키고 음식 냄새를 없애는 스킨답서스, 산호수, 벤자민 고무나무도 어울린다.

거실


벤자민 고무나무

가족이 모여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에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실내 휘발성물질을 제거하는 나무를 둔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세비에리아**는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등 공기정화효과가 높다. 특히 다른 식물과 달리 밤에도 산소를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음이온이 다른 식물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방출돼 '음이온 식물'이라 불리기도 한다. 생명력이 강해 기르는 데도 부담이 없다.

잎이 많고 모양이 수려한 **벤자민고무나무**는 공기 정화 효과도 크고 난방기의 불완전 연소된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를 흡수한다.

침실


선인장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침실에는 향이 자극적이거나 꽃이 크고 화려한 식물, 넝쿨식물은 피한다.

뛰어난 공기정화능력으로 새집증후군을 막아주는 **아글라오네마**, 담배연기 제거에 탁월한 **보스톤**이나 네프로네피스 등이 침실에 두기 적합하다. 은은한 분위기를 내는 동양란도 좋다. 특히 산소 및 이산화탄소 밸런스 조절하는 선인장과 호접란은 밤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정화기능을 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유도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제공=한국 화훼농협

■공기정화식물은 어떻게 새집증후군을 없앨까?

NASA(미항공우주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에코플랜트(eco-friendly house plants, 실내에서 적응을 잘하고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정화시켜주는 식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산세비에리아 등 공기정화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공기 중 오염 물질을 빨아들여 분해한다.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물과 산소를 배출한다. 이때 식물은 공기 중의 오염 물질도 흡수하는데, 이 물질들이 식물의 뿌리로 내려가면 미생물이 분해해 제거하는 것이다.

공기중 오염물질 흡수 뿌리서 미생물이 분해

국내에서는 한양대-인천대 공동연구팀이 공기정화식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물이 차지하는 부피가 클수록, 양지에 화분을 집중해서 배치할수록 공기정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

채수(菜水)-사찰요리의 기본재료



흔히 고기 우려낸 물을 육수라고 하는데, 사찰에서는 육수를 요리에 응용할 수 없었기에 요리에 맛을 낼 방법을 찾다가 다양한 채수(菜水)를 만들게 됐다. 채수란 버섯이나 채소 등을 끓여 우려낸 물을 이르는 말로, 사찰음식의 기본이 되는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조그만 암자에서는 큰 사찰과는 달리 먹을거리가 풍부하지가 않았다. 이러한 암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버섯이 단백질의 주 공급처가 되었고, 조리를 하고 남은 야채 한 토막이라도 버릴 수가 없었다. 버섯에 야채 토막 그리고 다시마 한 두 장, 김치 담고 남은 무도 한 조각을 같이 넣고 끓인 것이 바로 채수인데, 그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 음식 맛을 낼 때 사용하게 된 것이다.

초하루 법회나 보름 법회 때는 소면을 삶아 이 채수에 말아 먹기도 한다.

아무것도 대접할 것 없는 조그만 암자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시는 신도들에게 작은 정성을 베풀고자 하는 스님들의 맑고 순박한 마음이 채수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 역시 고기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 모든 요리에는 육수 대신 채수를 이용한다. 맑고 깨끗한 국물을 이용하고 싶으면 다시마와 무를 사용하고,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내고 싶으면 다시마에 무, 버섯을 이용한다. 또한 김치를 담글때 젓갈 대신 고추씨와 다시마, 무, 버섯을 이용한 채수를 넣으면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

채수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은 후 1회용 비닐 팩에 넣어 얼려두면 그때그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설에는 육수 대신 버섯을 넣은 채수로 맛좋은 떡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만드는 법





재료(물 1ℓ 기준) : 다시마 10cm x 30cm , 마른표고 5장, 무1/10조각, 당근1/4조각, 청고추2개, 홍고추2개

① 물 1ℓ에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인다.(다시마는 젖은 행주로 깨끗이 닦아준다. 묵은 다시마를 사용할 경우 국물에서 비린내가 날수가 있으니 남은 소주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② 물이 끓고 연한 갈색이 나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먼저 건져낸다.

③ 좀 더 진한 갈색이 나면 표고버섯을 건져낸다.

④ 채수가 완전히 끓고 나면 모든 재료를 건져내고 식혀서 200cc씩 담아서 냉동 보관한다.

맛 포인트

- 단맛을 내고 싶으면 양배추 몇 장을 넣어준다.
- 매운 맛을 내고 싶으면 물1ℓ에 고추씨 2큰술을 넣는다.
-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는 전통 사찰음식을 원하지 않을 때는 파뿌리와 양파를 함께 넣어도 무방하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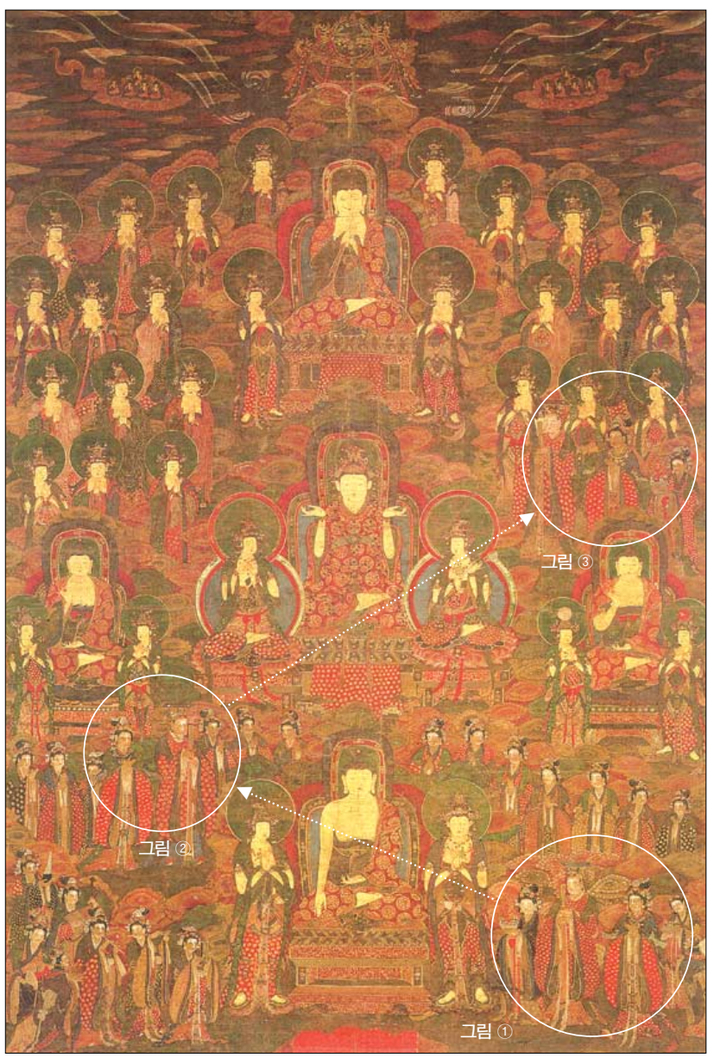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불화 속의 명장면 (1)

日 십륜사 '오불존도' 속 왕과 왕비

염원 · 사상적 깊이 절묘한 조화



오불존도(五佛尊圖). 조선전기왕실불화로 일본 효고(兵庫) 십륜사(十輪寺)에 소장되어있다.

중국불화로 오인, 일본 국보지정 등 화려한 경력

독특한 십자구도로 기품 간직한 조선왕실佛畵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의 실행으로 전례 없는 불교의 암흑기로 치부되는 조선전기.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통념을 단숨에 깨는 한 작품이 일본 효고(兵庫)현 정토종계 사찰 십륜사(十輪寺)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중국불화로 오인돼 왔기도 하고 또 메이지시대에는 한 때 일본 국보로 지정된 바도 있었던 화려한 경력의 이 작품, <오불존도(五佛尊圖)>는 조선전기 궁정에서 발원한 왕실불화로 밝혀졌습니다. 정교한 묘사에 못지않게 도상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그 사상적 깊이 또한 매우 심오하여, 형식과 내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작입니다.

작품의 가운데 세로축으로는 삼신불(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이, 가로축으로 삼불(아미타불, 노사나불, 약사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즉 종선상으로는 '법신(法身)-보신(報身)-응신(應身)'으로 출가신도가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해야하는 자력(自力)신앙의 구조를, 횡선상으로는 '아미타-노사나-약사'의 중생구제를 위한 타력(他力)신앙의 구조를 보입니다. 작품 정중앙의 노사나불은 세로선상으로는 자수용신(自受用身), 가로선상으로는 타수용신(他受用身)으로 그 양면적 의미가 주의 깊게 배치되어, 모두 오불존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십자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종선상의 삼신이 삼신귀일(三身歸一) 또는 일승(一乘)의 원리로 하나로 표현될 경우, 조선시대 조각상 및 불화에서는 주로 석가불로 표현되어 '아미타-석가-약사'의 삼불로 유행했습니다. 또한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괘불의 주인공으로는, 본 작품 정중앙에 위치한 것과 같이, 양팔을 벌려 설법인을 취한 화려한 보살형의 노사나불이 특히 유행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조선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불화 도상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오불존도에 극명히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횡으로 위치한 삼불을 중심으로 위 · 아래 두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윗부분은 법신 비로자나를 위시하여 녹색 두광의 금빛육신 보살들로 가득한 청정법계(淸淨法界)이고, 아랫부분은 응신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속세의 중생들로 가득한 사바세계(娑婆世界)입니다. 그런데 중생계라고해도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궁녀, 비단옷과 진귀한 장신구를 두른 귀부인들로 가득한 것으로 미루어 궁정이 아닐까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왕과 왕비로 보이는 인물 한 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해와 달이 그려진 관을 쓰고 홀(笏)을 들고 왕비는 화려한 머리장식에 귀걸이 영락 등으로 치장하고, 나란히 예를 갖추고 합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쌍의 왕과 왕비의 모습은 작품의 세 군데(그림 ①②③)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 곳에 나타나는 왕과 왕비의 의습 · 장신구 · 지물의 동일함이 확인되어 그 형식상의 묘사에 있어 차별화하려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장 아랫단의 왕과 왕비(그림 ①)의 산호 공양단지를 든 시녀가 윗단(그림 ③)에도 역시 동반되어 반복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이 세 쌍은 동일한 한 쌍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단의 사바세계에 있던 왕과 왕후는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가, 드디어는 상단의 비로자나부처와 보살들만이 존재하는 법계(法界)의 문턱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작품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국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극락왕생이 아니라 법계 해탈을 궁극적인 목표로 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기원되는 궁극의 세계는 정토(淨土), 정토라 하면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극락정토(또는 서방정토)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력왕생을 염원한 것이 아니라, 부단한 극기와 게으르지 않은 수행과 또 일체 서원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끈기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절대 법열의 경지인 '청정법계(淸淨法界)'를 목표로 했다는 것입니다.

삼불 중심 세 영역에 동일한 왕과 왕비 배치

점진적 상승 극락왕생 아닌 법계 해탈 의미



법계에의 진입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려한 이러한 대담한 작품은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지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왕과 왕후는 누구이며, 이들이 법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한 발원자는 누구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발원문은 바라져서 판독이 불능한 상태이고, 또 후대에 약 두 번에 걸쳐 보채를 가한 흔적이 보여 그나마 보이는 몇 자를 근거로 추론하는 것 역시 작품 오독의 우려가 다분합니다. 작품 형식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대가 분명한 조선전기 관련 불화(예를 들면, 일본 영평사소장 1483년명 삼제석천도) 및 유사연대의 사경화 등과 형식을 비교해본 결과, 본 작품연대는 15세기 극말에서 16세기 극초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정황과 당시 생존했던 또는 이미 타계한 왕 및 왕비의 생몰연대를 고려해 몇몇 가능성들을 조심스레 배제해 나가다 보면, 이 불화에 그려진 젊은 왕과 왕비는 성종과 그의 첫 왕비인 공혜왕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종 · 세조가 착수한 다양한 문화사업과 국가체제를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문화 창달의 왕으로도 일컬어지는 성종은 홍치 갑인(1494)년 서른아홉 한창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럼, 이 작품을 발원한 시주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끊임없는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불사(佛事)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위치의 인물, 불교에 대한 깊은 학문적 조예와 신앙심으로 이러한 오불존도와 같은 작품을 위탁했을 법한 인물은,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仁粹大妃)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인수대비는 세조 · 예종 · 의경왕 등 선왕들을 위해, 또 무명 속을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기위해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등 경전을 일천여 번이나의 인출한 바 있으며, 고승 학조(學祖 · ?~?)와 더불어 심지어 연산군 시대에까지 몇 차례에 걸쳐 수백 건의 불전언해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당시 불경언해본의 김수온(金守溫 · 1410~1481) 또는 고승 학조 등이 찬술한 발문에서, 법성(法性)과 보살행에 대한 인수대비의 깊은 학식과 열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종과 공혜왕비 위한 인수대비의 불사로 추정

깨끗한 마음이 곧 청정법신 임을 작품에 응축

물론 이상은 어디까지나 많이 고민해본 결과로서의 추론이고, 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작품에 나타난 '법계를 향한 열망'입니다. 법계와 이에 이르는 구도의 길이 대서사시처럼 웅변되어 있는 화엄경의 한 유명한 게송에는 '만일 누구든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면, 법계의 성품과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된 것임을 관하라'라고 역설되어 있습니다. 즉 법계의 실체는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이겠지요. 이 불화는 평범하나 또 비범한 진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올 병술년에는 끊임없이 이는 마음의 거친 파도가 고요히 가라앉아, 청정하고 영롱한 만월(滿月)을, 그 본모습 그대로 가득 비추어낼 수 있었으면 하고 기원해 봅니다.





■ 필자 강소연씨는
유년시절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보냈고 청년기를 미국 보스톤에서 보냈다. 고려대 • 런던대 • 서울대에서 동양미술사를 전공하고, 일본 교토(京都)대학에서 불교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대만 국립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장학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불화 연구로, 2005년 일본의 최고학술상인 '제17회 국화상'을 수상했다.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연말연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 농 협 053-01-265785 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런 자유인 돼라!

여러분과 오늘, 새해에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굴림을 굴리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이 소국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니까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중나가는 사람을 잘 뽑아서 내보내야 했었죠. 이건 국운이 달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소신껏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시라면 시, 또는 군이면 군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봐서, 입이 무겁고 아주 청렴하고 이 마음공부에 정말이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았죠. 뽑아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내보냈는데 사신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새참으로 떡이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가지고 나간 상을 놓고서 떡을 차려 놨는데 그쪽 사신이 거기서부터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 번 시험해 보고 자기한테 하치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나라 전체를 그냥 하치 않게 보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죠.

거기서 안내자로 나간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러니깐 떡을 냉큼 다섯 개를 집어 먹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떡을 먹다 말고 손가락을 세 개를 척 들면서 아무 말 없이 무언(無言)의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 개를 먹었느냐?' 하는 줄 알고 '난 떡을 다섯 개를 먹었다.' 하고 다섯 손가락을 탁 내밀었단 말입니다. 하하하…. 다섯 개를 탁 내미니까 그쪽에서는 '허, 삼강오륜을 그냥 통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선 가슴이 뜨끔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네모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하거든요. 아, 그러니깐 '너는 네모반듯한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또 '동그란 떡을 먹었다.' 하고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얼마나 재밌는 얘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딨느냐 하면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정신계의 '참나'가, 뿌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간에 내면에서 뿌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확연히 깨우치진 못했어도 거기서 뜻을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떡 먹은 걸로 그냥 돌려서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뜩퍼뜩 생각을 했지. '아, 떡을 반듯한 거 먹었느냐 묻는구나.' 그러고선 '동그란 거 먹었다.' 그러고 '셋을 먹었느냐?' 하니까 '다섯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망하게 만들려고 가는 길을 스스로 이 안에서 흥하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모든 거를 다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뭉쳐 있는 모든 악업 선업 그 자체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피치 못해요. 그 모든 걸 한마음으로 모아서 주장자가 된 것은 자기 몸뚱이를 그냥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떡을 먹는 걸로 생각을 나게 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농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조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야! 안내하는 사람도 이러하니 저 안에서야 어찌 감히 말이나 물어보랴.' 해서 그냥 떨려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슬슬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곤 갔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그냥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삼강오륜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했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혀끝을 척 차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 나라를 치게 되면은 우리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치지 못하겠다." 하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뜻을 아십니까? 이 마음공부 하시는 양반들! (대중 웃음) 법이 법이라는 이름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항상 평등공(平等空)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이 아니다, 생명이 들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하는 평등공!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공(空)! 그래서 평등공에서 나오는 법은, 즉 말하자면 방망이가 오면 훨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허술히 듣지 말고 허술히 행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옛날에도 얘기했죠. 두 친구가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들고 한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나라마다 전체 왕들을 모아 놔도 저렇게 이익하게 말씀은 못하실 거라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받아서 모르는 나라에서 좀 펴 봤으면….'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옛날에는 수레가 백 대씩 이렇게 장으로 나가는 행렬들이 있었죠. 그런데 술을 먹고 쓰러져 가지곤 수레에 치여서 죽고, 한 사람은 친구가 죽으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물건을 짊어지고선 배에 실어 가지고 어떤 섬나라로 갔더랍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오네요. (대중 웃음)

그때 그 나라의 인군이 돌아가셔서 새 인군을 뽑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말이 뽑아요, 말! 그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옷을 해서 척 걸치고선 나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말이 꿇어앉는 데가 있어요. 그 말이 꿇어앉는 데가 있는데 그 말이 꿇어앉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나라 국민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앞에 꿇어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꿇어앉는 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인군으로 모셔 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말이 꿇어앉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나라 국민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앞에 꿇어앉는 겁니다. 그래

닥쳐오는 어려움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놓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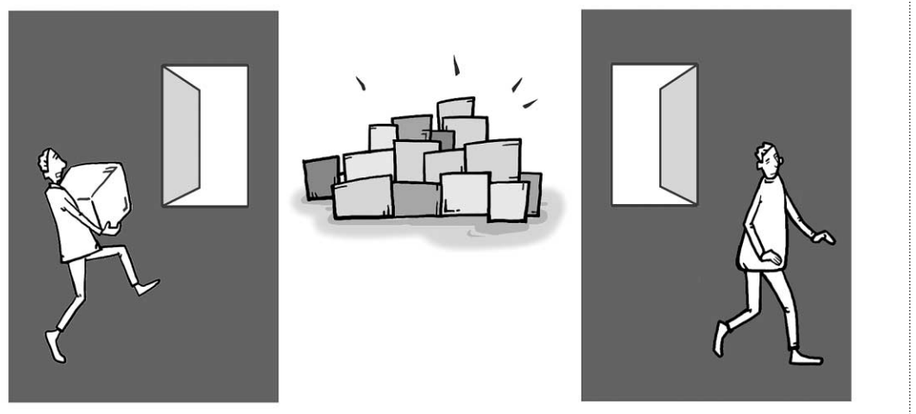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는 문제들이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건건이 생기곤 하죠. 그것이 바로 선악업에서 나오는 까닭이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거마다 불바퀴에다 놓으라고 하죠. 오는 대로 그냥 거기 집어넣어라, 그러면 타 버린다. 닥치는 대로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지 그냥 '아이그, 버리자.' 그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게 했으니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네가 모든 걸 막아야 하지 않아.' 하고 또 놓고 '이것은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놓고 '너만이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그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못됐다거나, 잡혀갔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논다거나, 건건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돼서 애로가 많은 집들도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식구들이 전부 애를 쓰는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대치를 해야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가 시급한 게 지금 그거지 딴 게 있습니까? 내 몸과 가족들과,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바로 내 성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돼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세상 물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다 탁트인단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니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 있으면서 정신계를 받아들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들 있습니다. 정신계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의학계에서도 볼 때에,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앞줄에 앉아 있는 의사를 보시며) 안 그렇습니까, 의사 나으리? 그, 약을 파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약사? 응, 난 이름도 몰라요. 약사나 의사도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 다르고 한 사람이 달라요. 안 한 사람은 그냥 건건이 걸려요. 우리 절에도 산부인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도 걸림이 없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 애로가 많았던 것이 다 없어졌대요. 무슨 까닭일까요, 그게? 대치가 되니까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저 아주 몹쓸 감기가 들어도, 폐가 나빠질 감기라도 소화제를 먹고 그냥 낫는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약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바로 직속으로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낫는 겁니다. 그러니 눈 앞에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가 묘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법사 스님을 다들이 이렇게 모시느냐 하면, 나는 위에서부터 내리 그냥 그 뜻을 배워 나왔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차차 올라가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아예 그냥, 그냥 돼 버려서요. 그러니 이 현 시점에서 사회의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예의나 그런 것들을, 내가 혹시나 모르면 대치해 주십사 했던 거죠. 그래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법사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내가 말하는 게 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것이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신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맥과 동맥, 이 둘을 놓고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정신계와 물질계는 동일하게 같이 지금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고 있거든요. 나로서는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지 간에 온 힘을 다해서 자세히 하려고 해도 자세히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떠져야 내가 자세히 안 해도, 컵만 들어도 벌써 '저건 무슨 소리야.' 하고 알게끔 돼 있습니다. 소가 음메 해도 벌써 무슨 소린지 알게끔 돼 있고요. 개가 멍멍 짖어도 무슨 소린지 알게끔 돼 있어요. 꽃이 바들바들 떨어도요, 꽃도 살아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아침에 해가 떴을 때는 꽃이 아주 기지개를 쫙 펴고요, 저녁 나절이 되면 하나하나 오므라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산에 다니다 보면요, 무엇이든 딱 닿았다 하면 탁 말아들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이든 뭐든 말아들일 뿐만 아니라, 벌레가 오면 모두 말아들여서 그냥 삼키고 말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으니 모두 스승이지 어디 업신여겨 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돌 하나가 굴러가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 돌이 참 똥덩어리처럼 굴러가네.' 하고 웃기도 합니다. 또는 물이 흘러갈 때에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것이 다 말없이 가르치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전부가. 바다를 내려다보십시오. 바다가 내가 이럭한단 말이 없어도 수많은 물줄기가 다 그리로 흘러가고, 비가 쏟아지면 빗물, 똥물이면 똥물, 악취나는 물, 구정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도, 오만 게 다 들어가도 여여하게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였다 하면 그 흔적은 없어지죠. 그러니 모두가 스승이 아니라고 볼 수 없겠죠.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이 계셔서만 불법이 아니고, 머리를 깎고 목탁을 쳐서만 불교가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통신과 통신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고, 이렇게 일체 만물이 다 서로 끝없이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는 줄 아십니까? 나오면 깎아 버리고 나오면 깎아 버리는 원인이 어딨을까? '살아나가는 모든 게 찰나찰나 바뀌고 화해서 나투니, 지나간 것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한 오늘이다. 그런데 오늘도 공했으니 세월과 네월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대로 충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아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무명초를 다 깎아 버리면 또 나고, 그게 정상이죠. 깎아 버리고 아주 안 난다면 정상이 아니죠. 나고 또 깎고, 나고 또 깎고 우리가 한 발짝 딛고 또 딛고, 한 발짝 딛고 또 딛고, 밥 먹고 또 먹고, 똥 누고 또 누고, 이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불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사가 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게 다 그냥 불교죠. 그런데 불교 안에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따로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가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따로따로 나누지만 불교 안에 종교가 전부 있는 거다. 그 불교 안에서 걸상 하나 이쪽으로 놓고 내 걸상, 저쪽으로 하나 놓고 내 걸상, 하는 것이니 그것은 너무 옹졸한 짓이야. 지구 안에 우리 생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요리 피하면 뭘 하고 저리 피하면 뭘 하냐?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 묘에는 불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오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 불의 뜻을 아느냐? 세계 전체, 이 우주 전체가 모두 불바퀴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 그게 불이 돌이냐? 생명이 또 돌이냐?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이야 돌이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떡거리고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아, 들어 주니까 재미있데요. 그 사람네들은 다 가톨릭교 기독교거든요. 하하하…. 어느 스님이 들어갔다 내쫓겼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초청을 해 놓고 트릿하면 그냥 내쫓는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강당에 꽉 찼는데 들어가서 (주먹으로 법상을 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꽝꽝 치고 얘기했죠. 허허허…. 그랬더니 팔 넣고 잘밥을 해서 이런 들통으로 하나를 하고요, 찌개를 그냥 한솥을 해서 들고 노비까지 가지고 왔어요. 쫓겨나지 않구요. 허허허…, (대중 웃음) 그래서 편도 가르지 않았고, 또 진리가 편이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해 주시는 그 마음도 역시 동일하구요. 뭐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그런 것도 없이 아주 평화스럽고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까닭을요. 정말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요, 아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이구, 언제나 그 노랑도 상투를 길러서 내 낭군 되느냐.' 하는 셈으로 '언제나 길러져서 진짜 자유스럽게 저 집안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허! 날더러 하라고 뭐 등에 써 붙였나?' 이러면서도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임은 소임대로 아주 끊고 맺고 해야죠. 못하든 잘하든 말입니다.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덮어놓고 하기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해야죠. 이 세상 진리가 아주 거짓 없이, 선업이면 선업대로 피할 길이 없고, 악업은 악업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런 자유인이 돼라 이러는데 왜들 싫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바가지로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 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밀어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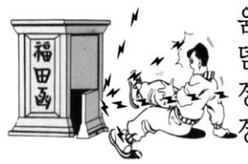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정초 소원성취 특별기도
55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전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특별 선물 : 청견스님 친필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1월 21일(토요일) 저녁 9시 ~ 2006년 1월 22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증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칠,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지장행자의 길 가렵니다 (중)

– 현대불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작 –

총화종 총무원장상 / 김남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그림 · 문병성

성철 스님의 영결식이 끝나고 다비식장에 도착해 다비식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해인사에서 톨게이트까지 무려 8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49재에는 저만 갔다왔는데 성철 큰스님께서 꿈에 저의 집을 세 번이나 방문하셔서 추운 날씨에 가족이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어느 날 다시 제 꿈에 찾아오셨기에 제가 "큰스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말을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큰스님께서 오신 김에 화두 하나만 내려 주시고 가십시오"하고 청을 드렸더니, 그것이 무에 어렵냐고 하시면서 "네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말을 화두로 삼아서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참선공부 열심히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시더니 홀연히 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아내가 둘째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터에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의 조짐을 느꼈는지 아내가 다시 한 번 병원을 다녀와야겠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애도 임신 2개월이라고 하면서 먼저 진찰을 했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되뇌면서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둘째가 세상에 나오던 날이 1995년 8월 4일 이었고 생애에 두 번째로 축복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고 귀엽게 노는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96년 3월경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가업인 제재소에 새벽 1시 30분경 원인모를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 네 식구는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갓난아이인 둘째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제 아내가 잠에서 깨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깨우면서 밖을 내다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제재기계가 있고 나무를 쌓아놓은 공장 100여 평이 화마에 휩쓸려서 불길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다른 방에 자고 있는 큰아들을 깨워서 우리 네 식구는 밖으로 대피를 했고 소방차가 4대가 도착을 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700여 평의 마당은 폐허로 변했고 다행히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방과 안방은 화마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신혼부부가 수퍼마켓을 하면서 세를 들어 살고 있었고 매일 거기서

화재로 삶의 터전 잃고 기도 시작
천수경 독송 · 5백배 · 지장정근 1만번
21일 기도 후 취직… 감사하는 삶 발원

자면서 숙식을 했는데 마침 불이 나기 전날 친정에 가고 없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세 식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더 낳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을 했는데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이번에도 자식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불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둘째에게 절을 하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데도 불교텔레비전에서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따라하더니 절을 제법 잘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스님을 만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꼭 합장을 한답니다. 또 한 번은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입구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때가 4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손을 잡고 걸어 올라가서 절을 하고서 다시 걸어 내려왔답니다. 웬만한 아이들이라면 업어달라고 할 텐데 업어주려느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면서 걸어서 왕복을 하니까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가 무척이나 신기해하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전생에서부터 불법과의 인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화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낙담과 깊은 시름에 잠겨서 방황하고 있던 차에 이제껏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은혜에 보답을 하는 셈 치고 기도나 해보자고 하면서 그 날부터 지장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원주시에 있는 고찰 국형사로 향했습니다. 차로는 10분 거리이지만 기왕이면 걸어가면서 지장보살 정근을 하기로 하고 1시간가량 걸어서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천수경>을 독송하고서 참회를 먼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절을 하루에 500배씩을 한 다음에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을 낭독하고서 지장보살 정근을 1만 번 한 다음 회향을 하고서 다시 염불하면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4시간가량이 소요되는데 처음 1주일은 힘들었지만 묵묵히 참고 하다 보니 이제는 기도가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채 못 되어 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선배님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괜찮은 회사에서 지역사람을 모집하는데 발이 넓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당의 사무국장도 맡아 보았고 동문회 일과 사회활동도 좀 했던 터라 선배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준비해서 다시 선배님을 방문했었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1주일 정도 지나자 선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번 회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기쁜 마음에 회사로 갔고 거기서 총무이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언제 쯤 출근이 가능하냐고 물으시기에 그동안 주변 정리도 해야 하니 10일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그 때 출근하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저에게 몇 번씩이나 가피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때에 살길을 열어주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올렸던 국형사를 찾아서 부처님께 준비해 간 초와 향 그리고 과일을 올리고서 절을 드렸습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출장녹음

지난 10년간 국내외 5백여 사찰과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제작하여 온 명실공히 전국 유일의 불음전문 녹음실
스님! 이제 녹음을 하기위해 스튜디오를 찾아 먼길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계신 곳에서 완벽하게 무잡음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여 마음에 쏙 들게 테이프나 시디(CD)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리녹음실에서 녹음하신 스님과 단체

선학원 남산스님. 조계종 서암스님. 법연원 조연스님. 통도사 정암스님. 법화종 구암스님. 문화재 해강스님. 문화재 청공스님. 문화재 진하스님. 문화재 혜철스님. 혜각스님. 혜관스님. 자명스님. 원명스님. 자원스님. 동광스님. 성문스님. 범진스님. 지우스님. 종옥스님. 구화산 인덕스님. 지홍스님. 일홍스님. 월곡스님. 상묵스님. 혜성스님. 덕일스님. 효재스님. 현장녹음 : 불교방송. 일본장생탄광천도재. 티벳한. 티벳불교문화교협. 몽고한. 몽불교문화교협. 민속문화대축전 등 .... 이하생략

佛音專門 달리녹음실
0502-555-1040
080-115-8008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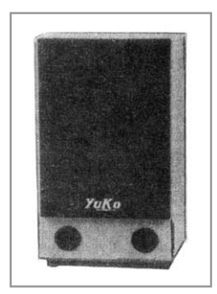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2. 6 월 · 화 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www.mahamall.co.kr

마하몰 설날 제수용품 특가전

팔상도 산수화 8폭 병풍



■ 규격(cm) : 164×335

■ 특징

큰의미가 담겨있는 최고급산수화8폭병풍.
후레임 등에 쓰인 마다카 나무가 일반 병풍보다 2배이상 두껍고 비단, 천, 한지 등의 재료를 최고급으로 사용하여 만듬. 한국의 산수화 속에 세계4대성인의 한분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넣어 의미를 더욱 높인 병풍.
뒷면에는 석주 큰스님의 반야심경 친필 글씨를 영인본으로 6폭표구하여 가치를 높임. 공장에서 많은 수량의 병풍을 만든 것이 아니고 표구전문화랑에서 소량만 100%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병풍.



석주스님 친필 반야심경(뒷면)
₩258,000
■ 규격(cm) : 164×335

병풍 · 제기 · 제기함



고급천 반야심경 6폭병풍
₩148,000
■ 규격(cm) : 155×260
■ 처음부터 완성까지 수작업으로 만든 병풍



백천이한동 풍속도 8폭 병풍
₩198,000
■ 구성 : 팔상도산수화8폭병풍 (뒷면:추사김정희반야심경)
■ 규격(cm) : 160×320



진품 군방도 6폭 병풍
₩260,000
■ 규격(cm) : 142×267
해산 김형래선생이 직접 그린 군방도 작품
인쇄나 복사가 아닌 진품6폭병풍
뒷면은 소산 황이수선생이 직접 쓴 친필글씨



사군자 손자수 8폭 병풍
₩295,000
■ 구성 : 사군자 손자수 8폭 병풍 (뒷면:추사김정희한시)
■ 규격(cm) : 160×320



풍속도 연결 8폭 병풍
₩208,000
■ 구성 : 운계이한동풍속도연결8폭병 (뒷면:추사김정희한시)
■ 규격(cm) : 160×320



문방도 8폭 병풍
₩198,000
■ 구성 : 매당 정인섭 문방도 병풍
■ 규격(cm) : 164 ×335



경작도 손자수 8폭 병풍
₩198,000
■ 구성 : 경작도 손자수 8폭 병풍 (뒷면:추사김정희한시)
■ 규격(cm) : 160×320



물푸레 福(복)제기 37기세트
₩198,000
■ 재 질 : 물푸레나무 ■ 제조원 : 원목공예
■ 원산지 : 가공(한국) / 원목(중국)
■ 구 성 : 지방틀1, 편틀1, 어틀1, 촛대2, 향로1, 식혜그릇1, 탕그릇3, 술잔3, 술잔받침3, 접시21, 제례서식책자



원목 물푸레 제기 37기 세트
₩158,000
■ 재 질 : 물푸레나무 ■ 제조원 : 원목공예
■ 원산지 : 중국(반제품)
■ 구 성 : 지방틀1, 편틀1, 어틀1, 촛대2, 향로1, 식혜그릇1, 탕그릇3, 술잔3, 술잔받침3, 접시21, 제례서식책자



남원 효목제기 37기세트
₩225,000
■ 재 질 : 오리나무 ■ 제조원 : 남원효목기사
■ 원산지 : 한국
■ 구 성 : 지방틀1, 편틀1, 어틀1, 촛대2, 향로1, 식혜그릇1, 탕그릇3, 술잔3, 술잔받침3, 나물접시3,접시18, 제례서식책자



남원 효목제기 47기세트
₩265,000
■ 재 질 : 오리나무 ■ 제조원 : 남원효목기사
■ 원산지 : 가공(한국) / 원목(중국)
■ 구 성 : 지방틀1, 편틀1, 어틀1, 촛대2, 향로1, 식혜그릇1, 탕그릇3, 술잔3, 술잔받침3, 나물접시 3, 접시18, 국그릇2, 밥그릇(뚜껑포함)4, 숟가락2, 젓가락2,제례서식책자



주물장식 봉황 제기함
₩98,000
■ 구 성 : 주물봉황제기함, 어형자물쇠, 열쇠고리개
■ 재 질 : 느릅나무 MDF, 주물장식
■ 규 격(cm) : 60×40 ×58



수공예 제기함
₩85,000
■ 구 성 : 수공예제기함, 어형자물쇠, 열쇠고리개
■ 재 질 : 느릅나무 MDF, 장석
■ 규 격 : 60×40 ×55

향로 · 위패 향(香) · 초



청자칠보투각향로
₩39,800
■ 국보 제95호로 12세기 전반경에 만들어진 청자향로의 재현품



고급청동향로
■ 大 높이325mm×폭430mm 100만원
■ 中 높이240mm×폭350mm 60만원
■ 小 높이150mm×폭200mm 30만원



반야심경 향로
■ 小 높이4.5cm×지름6cm 30,000원
■ 大 높이5.5cm×지름9cm 40,000원



청동 촛대향로 세트(소형)
₩105,000
■ 촛대 : 넓이 9cm×높이12cm
■ 향로 : 지름9.5cm× 높이7cm



황옥 촛대향로 세트(大)
₩750,000원
■ 촛대 : 넓이13.5cm×높이46cm
■ 향로 : 지름 25cm×높이19.5cm



황옥 촛대향로 세트(小)
₩570,000
■ 촛대 : 넓이13cm×높이31.5cm
■ 향로 : 지름 20cm×높이 15cm



개인용 백자, 청자향로
₩12,000
■ 지름 8.9 cm×높이 5 cm



황동 촛대향로 세트(大)
₩648,000
■ 촛대 : 넓이16.5cm×높이55.5cm
■ 향로 : 지름 30cm×높이22.5cm



황동 촛대향로 세트(中)
₩500,000
■ 촛대 : 넓이16.5cm×높이39.5cm
■ 향로 : 지름 24cm×높이 22cm



황동 촛대향로 세트(小)
₩90,000
■ 촛대 : 넓이6cm×높이 11cm
■ 향로 : 지름6cm×높이 5.5cm



연 꽃위 패
₩20,000
■ 재질 : 마블
■ 크기 : 165×105×200mm



향나무 위패
■ 1겹 : 10,000원
■ 1겹 연꽃 : 11,000원



사진틀 위패
₩140,000
■ 재질 : 알마시카
■ 크기 : 350×240×500mm



용초
₩109,200
■ 길이 31cm×지름 7.3cm
■ 수량 : 20개입



자연목향 자단향(단대)
₩8,000



참솔향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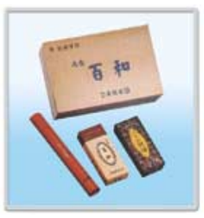
명심향
₩6,000



천연목향지관
₩8,000



한방지관향
₩8,000



백화향 선물세트
₩50,000



보원향 선물세트
₩60,000



신 선미향
개당 ₩2,000
세트(10개) ₩16,000



명심향
■ 견성향(지관단)-참숯무연아로마 15,000원 (길이 13.5cm / 중량 100g)
■ 견성향(지관장)-참숯무연아로마향 12,000원 (길이 23.5cm / 중량 70g)



식물성무공해 등초(대)
₩78,000
■ 규격 : 길이 12.5cm×지름 3.1cm
■ 수량 : 240개입(120세트)



무공해식물성양초(돈타레)
₩95,200
■ 규격: 5.6 cm×27cm
■ 수량 : 40개입

무공해식물성양초(원기둥)
₩75,600
■ 규격: 7.4 cm×29cm
■ 수량 : 12개입

밀납양초세트
₩30,000
■ 세트구성 : 1호 2개, 2호 2개, 3호 2개, 4호 2개, 양초받침 2개

밀납양초

1호 ₩50,000
■ 지름 59mm×높이 180mm
■ 1박스 10개입(5쌍)
■ 연소시간 : 약 72시간

2호 ₩60,000
■ 지름 59mm×높이 140mm
■ 1박스 20개입(10쌍)
■ 연소시간 : 약 50시간

3호 ₩40,000
■ 지름 47mm×높이 130mm
■ 1박스 20개입(10쌍)
■ 연소시간 : 약 30시간

4호 ₩32,000
■ 지름 47mm×높이 100mm
■ 1박스 20개입(10쌍)
■ 연소시간 : 약 24시간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